

차 례

开 幕 词	1
개 회 사	3
환 영 사	6
축 사	8
축 사	9
축 사	11

-- 기조강연 --

1.망명과 상상: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의식세계	13
2.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45
3.유럽 (대학 전공)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미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57

-- 초청특강 --

1.번역과목의 교수 내용에 대한 소견	79
2.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교육의 이론.....	97
3.문법이론과 문법교육의 실제.....	106
4.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의 내용과 방법	131
5.마인드맵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수법	140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2018年国际学术大会

开 幕 词

姜宝有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会长

尊敬的延边大学金雄校长，
韩国国际交流财团姜荣必副理事长，
国语国文学会朴昌远会长，
国际高丽学会延哉勋会长，
国语教育学会徐赫会长，
中国朝鲜-韩国文化研究学会蔡美花会长，
中国朝鲜语学会金光洙会长，
尊敬的国内外来宾，各位会员朋友们，大家好！

我谨代表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对2018年度国际学术大会在这山清水秀，民风淳朴的延吉，尤其是在坐落于卧龙山的学术殿堂-延边大学顺利召开表示衷心的祝贺！

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以及学会共同举办的本次2018年度国际学术大会，离不开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的大力支持。还要感谢韩国国际交流财团北京办事处李仁赫处长、延边大学朝鲜-韩国语学院金哲俊院长的鼎力支持，以及韩国语系张英美和朱松姬系主任带领的延边大学朝鲜语文学系和韩国语系全体成员的辛勤付出。在此，我对你们致以诚挚的谢意。

中国的韩国语教育自国立东方语文专科学校在重庆和南京开设朝鲜语讲座以来，已有73年的历史。1992年中韩两国建交以来，中韩两国在政治、经济和文化等方面的交流日益频繁、不断发展，中国的韩国语教育无论是质、还是量，都得到了迅猛发展。目前，中国国内已有280多所大学开设了韩国语专业。在外语专业中，韩国语系的数量和招生人数可以跻身前四、五位。

当今世界已经超越了基于互联网的第三次工业革命，进入了以大数据为基础的第四次工业革命，是人工智能的时代。传统的教育方式跟不上新时代的教育发展。面对人工智能时代和大数据时代，科学地重新设定韩国语教育是我们的使命。

在同时经历外语教育的环境变化和理念变化的当今，本年度国际学术大会以“融合与沟通：韩国语教育和人文科学的发展方向”为主体，探索新时代、新环境下的韩国语教育的发展方向。希望大家踊跃参与讨论。为了提高韩国语教育者和研究者的专门素养，本次学术活动中，年度国际学术大会将和青年教师进修和研究生论文竞赛同时举行。

今天，有来自中国、韩国、英国、日本等国家的66所大学的180余名教授和专家学者前来参会。有来自29个大学的四十多名教师参加教师培训，12所大学的19名研究生参加论文竞赛。规模盛大。

尊敬的各位会员，各位来宾：

在延边大学举办的本次学术活动具有多项深远意义。拥有70年历史的延边大学是中国韩国学发展的引领者。延边大学早在1949年就开设了朝鲜语言文学系，从而开展朝鲜语教育。又在1972年开设针对外语教育的韩国学系。延边大学一直坚持开展朝鲜语（韩国语）教育，其朝鲜语（韩国语）系也被选为国内唯一的国家重点学科。延边大学在国内的韩国语教育中发挥着先锋作用。国内大学的韩国语系的教授们有60-80%毕业于延边大学，或者与延边大学有着密切联系。由于地理上、文化上和学术上的优势，延边大学将会一直在中韩文化交流和韩国语世界化过程中发挥引领作用。

在这里，衷心感谢进行主旨演讲的延边大学金柄珉教授、首尔大学宋喆仪教授、伦敦大学延哉勋教授；和做青年教师培训讲座的首尔大学尹汝卓教授、延边大学金永寿教授、高丽大学李宽珪教授、北京大学王丹教授；以及参与论文发表和讨论的所有与会者。此外，我还要对负责研究生论文竞赛审查的复旦大学姜银国教授、延边大学金虎雄教授、梨花女子大学朴昌远教授、汉阳大学李三炯教授、釜山外国语大学宋享根教授，上海商学院的张延镐教授表示衷心的感谢。

今天，世界韩国语教育界的元老—首尔大学名誉教授朴甲洙，为了激励年轻一代的学术研究，不远万里跨海来到了这里。对朴教授的到来表达最深深的谢意。

最后，再次向大力支持本次学术活动的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朝鲜-韩国语学院全体老师同学表示衷心的感谢！

预祝本次学术活动取得圆满成功！并祝愿在座的各位身体健康、心情愉快！

祝各位在延吉、在延边大学度过一段美好的时光！

谢谢大家！

2018年 7月 21日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会长 姜宝有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개 회 사

강보유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장

존경하는 연변대학교 김웅 총장님

한국국제교류재단 강영필 부이사장님

국어국문학회 박창원 회장님

국제고려학회 연재훈 회장님

국어교육학회 서혁 회장님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채미화 회장님

중국조선어학회 김광수 회장님

존경하는 국내외 내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를 대표하여 2018 년 연례국제학술대회가 산 좋고 물 맑고 인정 많은 연길에서, 특히 와룡산(卧龙山)에 자리한 학문의 전당- 연변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 그리고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2018 연례국제학술대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 북경사무소 이인혁 소장님과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김철준 원장님, 그리고 장영미 교수와 주송희 한국어학과장을 비롯한 연변대학교 조선어문학과와 한국어학과 전 가족의 노고에 고마움의 인사 올립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국립동방전문학교가 중경과 남경에서 개설한 조선어강좌를 시작으로 이미 73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92 년 중한 수교를 계기로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심화, 발전,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2018 년 현재 중국 내 대학 한국어학과는 이미 280 개에 달하여 학과 수와 학생모집 수가 4,5 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통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3 차 산업에서 더 발전하여 빅데이터(Big Data, 大數據)를 기반으로 하는 4 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통교육 방식으로는 신시대 교육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빅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어교육을 과학적으로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워진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어교육의 환경 변화와 이념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례국제학술대회는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신시대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오니 열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본 학술행사에서는 연례국제학술대회와 함께 한국어 교육자와 연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청년교사연수와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국, 한국, 영국, 일본 등 나라의 66 개 대학에서 교수와 전문가 180 여 명이 오셨습니다. 교사연수에는 29 개 대학의 40 여명 교수가 지원하였고 논문경시에는 12 개 대학의 19 명 대학원생들이 지원함으로써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본 학술행사가 연변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70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변대학교는 중국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지구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연변대학교는 일찍 1949 년에 조선어문학과를 세워 모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을 하던 데로부터 1972 년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여 조선어(한국어)교육을 오늘날까지 줄곧 해왔습니다. 그 보람으로 연변대학교 조선어(한국어)학과는 중국 내 유일의 국가중점학과로 성장하였습니다. 연변대학은 또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의 60-80%는 연변대학을 졸업했거나 연변대학과 깊은 학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학문적 우세로 연변대학교가 중한 문화교류와 한국어세계화를 선도함에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부연하고 싶은 것은, 기조강연을 해주실 연변대학교 김병민 선생님, 서울대학교 송철의 선생님, 런던대학교 연재훈 선생님과, 연수강의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윤여탁 선생님, 연변대학교 김영수 선생님, 고려대학교 이관규 선생님, 북경대학교 왕단 선생님, 그리고 연구발표와 토론을 맡아하시는 모든 참석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 심사위원을 맡으실 이화여자대학교 박창원 선생님, 한양대학교 이삼형 선생님, 부산외국어대학교 송향근 선생님, 복단대학교 강은국 선생님, 연변대학교 김호웅 선생님, 상해상학원 장연호 선생님에게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세계 한국어교육의 대표적인 원로 학자이신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젊은 세대들의 학문을 격려하고자 바다 건너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전가족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학술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연길에서 그리고 연변대학에 계시는 동안 마냥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8 년 7 월 21 일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장 강보유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환영사

강영필

KF 한국국제교류재단 부이사장

존경하는

- 강보유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회장님,
- 김웅 연변대학교 총장님,
- 서혁 국어교육학회 회장님,
- 채미화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회장님,

그리고, 중국 전역과 한국 및 해외 각국에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한국어 교육자, 연구자 여러분, 모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이사 강영필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공동주최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에 KF가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한중 양국관계와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가 이끌어준 중국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발전적인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설립 이래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 문화예술 소개, 해외 인사 초청 및 국제행사 개최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와는 학회 설립 초기인 2002년부터 오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한국어 진흥사업은 지난 27년간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 해외 150여 개 대학에서 한국 관련 강의를 제공했던 것에 비해, 2018년 현재 전 세계 105개국 1,340여 개 대학에서 한국학/한국어 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만 270개 대학에 3천여 명의 교수진이 3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는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고한 파트너십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본격 확대되어 온 중국내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재단과 학회의 협력관계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각각 개최되어 오던 여러 행사와 회의를 통합하여 총회 성격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오랫동안 중국 내 한국 관련 연구와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연변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모쪼록 이 학술대회를 통해 중국내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학회와 연변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대회 강연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을 비롯하여 중국내 한국어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여러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KF 한국국제교류재단 부이사장 강영필

<참고 -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설립: 2001년

■회장: 강보유 5대 회장(상해 복단대 중한언어문화교육연구중심 교수/임기2년)

■구성: 부회장 4명, 연구이사 12명, 선전이사 7명, 지역이사 6명 등

(회원400여명 회비 운영)

■성격: 중국내 30개 주요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한국어교육/연구 학술단체

■KF 지원: 2002년 이후 약 30만불 지원

중국어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노영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대독)

안녕하십니까?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노영민 대사입니다.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연변대학교에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중국 전역과 한국, 해외 각국에서 참석하신 250여명의 한국어 교육자, 연구자들이 이곳 중국에서 “융합과 소통 - 한국어 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정세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사적 대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평화의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 동북아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동북아 지역내 주요국간 대화와 평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저는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중국내 한국어 교육과 연구결과의 확산은 한중 양국민의 상호 이해 및 역내 안정과 발전의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F가 2018년 1월 발간한 ‘해외한국학 백서’에 따르면 전세계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는 기관은 10년간 2배가 늘어 1,300곳이 넘습니다. 중국에서만 270개 대학에 교수진 3,000명, 학생수는 30,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내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관련 인사들간의 통합과 단결이 더욱 공고해 지는 회의가 계속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의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중국내 한국어 교육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국국제교류재단, 연변대학교, 중국한국어교육과 연구학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노영민(대독)

중국어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서혁

국어교육학회장

존경하는 중국한국(조선)어학회 강보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김웅 총장님, 김병민 전 총장님, 송철의 원장님, 민현식 전원장님, 강영필 부이사장님, 채미화 회장님, 김광수 회장님, 박창원 회장님, 연재훈 회장님, 강은국 교수님, 이인혁 소장님, 김철준 원장님, 장영미 교수님, 주송희 학과장님, 왕단교수님, 김영수 교수님, 박갑수 고문님, 송향근 이사장님, 윤여탁 전회장님, 이삼형 전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내빈 여러분 모두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국어교육학회 15 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서혁입니다. 오늘 유서 깊은 연변대학교에서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가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청년교사연수,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국어교육학회는 1991 년에 창설되어, 현재 한국 전역에서 1,000 여명의 전문가와 회원들이 활동하며, 연 3 회의 학술대회와 매년 5 권의 학술지 <국어교육학연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영문판으로 발행하여 한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 년마다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국어교육학회가 이렇게 발전해 오기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갑수 교수님께서 고문으로 도와주시고, 이삼형 전임 회장님과 이관규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저희 국어교육학회는 재작년에는 대련외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 년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8 년 2 월에는 동경에서 “자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국제동향”이라는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어교육의 연구와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11 월말에는 “리터러시(literacy)와 교육격차”라는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이화여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국어교육학회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직전인 지난 주말에 이화여대에서 한국의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말교육현장학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매체(미디어)교육 방안에 대

한 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사들의 국제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변대학교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조선어, 한국어 학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초청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와 국어교육학회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국어교육학회 회장 서혁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채미화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장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외국문학연구회 조선-한국문학연구분회를 대표하여 중국 한국 어교육연구학회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2018년 연례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는 거의 20년동안 학회지 <한국(조선)어교육연구>의 간행과 한국어교육 국제연례학술대회의 개최, 그리고 한국어교육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자 연수과정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연례학술대회는 중국 한국학의 모태이자 국제일류의 외국언어문학학과건설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연변대학에서 성황리에 개최됨으로써 더욱 중대한 의미와 영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와 조선-한국문학연구학회는 중국 한국어학과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이라는 공통한 과업을 담당하면서 상호 소통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학회는 조선한국언어문학과고급인재의 양성 및 새시기 한국어학과에서의 문화교육문제를 둘러싸고 함께 토의,연구하였으며 서로 협력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의 발전을 추진할데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목전 중국에서의 조선-한국언어문화교육은 엄중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세하에서 우리는 학과발전의 출구와 도약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용적인 인재양성과 국제적인 경쟁능력을 가진 고급인재양성을 동시에 실행할수 있는 교육내용을 창조하고 학과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 개발에 동참하면서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교육방법을 탐색해나간다면 한국어학과발전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 그리고 중국 한국어학과의 청년교원들이 함께 동참한 성대한 학술모임입니다. 중국의 한국어교육의 자세와 수준을 진단하고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금후 중국의 한국어학과 발전전략에 대해 사고하는 좋은 장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 학술대회가 중국 조선-한국언어교육의 새로운 활기를 찾는 데서 큰 힘으로 될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대회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21일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장 채미화

망명과 상상: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의식세계

김 병 민

(연변대학교, 산둥대학교 석좌교수)

<차례>

1. 들어가는 말
2. 타자의 시각: 중국혁명서사와 가치의 재정립
3. 결사의 선택: 의열투쟁서사와 영웅적 거사
4. 저항의 주체: 항일무장투쟁서사와 중한연대
5. 존재의 이유: 망향애환서사와 한의 정서
6. 경계의 넘기: 서사의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7.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식민지시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국은 특수한 공간이었다. 중국은 비단 식민지 한국 이민들의 생활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망명지사들의 항일독립투쟁의 정치공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 근대문학, 특히는 항일문학의 발전공간이었다. 중국체험서사로 특징되는 항일문학은 한국 망명지사들에 의하여 중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체험서사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된 상황으로 곽미선의 『김택영의 문학연구』(2013), 김동훈의 「예관 신규식과 그의 문학」(1998), 김병민의 『신채호문학연구』(1988), 황재민의 「박은식 ‘안중근전’의 문학사적 성격과 영향력」(2016), 강창민의 『이육사의 문학연구』(국학자료원, 2002) 등은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연구에서는 개별 문인들의 문학 활동, 창작특징, 의식세계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천명하였다고는 말할 수 있겠으나 중국체험서사에 대한 총체적 조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시각으로서의 망명문학의 성격, 특징, 가치, 위상 등에 대한 연구는 진일보 전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기되는 망명지사란 본토에서의 정치적 억압과 생존적 어려움으로 정치 활동 공간을 중국으로 옮겨온 후 장기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문필활동과 항일구국운동을 한 문인-지사들을 가리킨다.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다수가 계몽문화운동의 세례를

거친 지식인으로 항일문인인 동시에 항일지사로 그들은 망명문학의 주역들이다.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중국에 와서 중국문단에 진출하여 중국문인들과 상호교류를 전개하였고 중국매체들에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신문 잡지의 간행과 도서 출판, 창작활동, 사회-문학단체 활동을 통하여 망명문단을 구축해 가기도 했다. 망명문단의 형성과 발전에서 활약한 대표적 인물로는 김택영, 박은식, 신규식, 신채호, 조소앙, 류자명, 김규광, 장지락, 이두산 등을 거론할 수가 있으며 주요한 간행물로는 『독립신문』(1919), 『신대한』(1919), 『진단』(1920), 『천고』(1921), 『동방전우』(1939), 『조선민족전선』(1938), 『조선의용대통신』(1938), 『한국청년』(1939), 『한민』(1940)등을 들 수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망명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위한 전기(前期) 작업으로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특징, 그리고 그 의식세계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구체적으로는 중국혁명서사, 의사 폭력투쟁서사, 항일무장투쟁서사, 망향애환서사 등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서사양식에 있어서도 망명서사로서의 공동서사와 혼종성 등 독특성을 보여준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그 체험의 깊이와 사상의 심각성으로 하여 한국 근대 항일문학사 내지는 중한 문학교류사에서 특수한 위상과 가치가 있다.

2. 타자의 시각: 중국혁명서사와 가치의 재정립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했고 또한 망명지사들의 중국인식은 그들의 중국혁명서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므로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혁명서사를 재조명해 보는 것은 20 세기 한국인들의 세계인식과 근대 가치관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궤적과 특징을 살펴 볼 수도 있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혁명서사는 신해혁명서사와 대혁명¹서사, 항일혁명서사²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한국 망명지사들은 신해혁명서사를 통해 근대 중국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근대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보여 주었다. 망명지사 신규식³의 「손중산 대통령을 축하하여」, 「손중산에게」, 「황극강에게」, 「민립보 사원 서혈아에게」, 「고우 혈아군을 애도하여」, 「천구 대계도에게 드리노라」, 「송교인에게」, 「황극강을 애도하여」,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 「인형영사의 영전에」,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도야공에게」 등 일련의 시편들은 대표적 의의를 가진다.

¹ 대혁명은 중국의 1924-1927년 사이의 국공합작으로 전개된 국내 혁명전쟁을 지칭하는데, 북양군벌통치를 반대한 전쟁 혹은 정치운동이라고도 한다.

² 항일혁명서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항일투쟁서사를 다루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³ 신규식, 호는 예관, 별명으로 ‘청구한인’ 등을 썼다. 1911년 중국에 망명하여 동맹회에 참가했고 무창봉기에도 참가했으며 남사에 가입했고 중국 혁명당인들과 합작하여 신아동 제사를 건립했다. 임시정부 외무총장, 국무총리 역임. 1920년 『진단』 창간, 주요 저서로 시집 『아목루』 등이 있음.

신규식은 1911 년 중국으로 망명한 즉시로 동맹회에 가입했고 직접 무창봉기에도 참가했다. 그의 신해혁명 체험은 그로 하여금 봉건 전제체제의 필연적 멸망과 새로운 근대 민족국가의 도래를 인식하였던 것이다.

共和新日月,	공화국 새 세상 만들어 내여,
重劈舊乾坤。	낡은 세상 새로이 돌려 세우니.
四海群生樂,	사해의 만백성 기뻐들하며,
中山萬世尊。	손중산 우리러 받들어 모시네.
- 「祝孫總統中山」	- 「손중산대통령을 축하하며」 ⁴

荆天荆地一身轻	촉수오산의 길 평탄치 않아도
楚水吳山路不平	그대는 가시덤불 헤쳐 왔어라.
鐵血疆場當日愿	피어린 싸움으로 키워 온 포부
數千萬口是同聲。	만백성 모두다 그대를 환호하네.
- 「贈孫中山」	- 「손중산을 축하하여」

신규식은 위 시에서 청왕조를 뒤엎고 중화민국을 이룩한 손중산의 세기적 업적을 노래했다. 여기에는 그의 근대적 민족국가, 즉 공화제 근대국가에 대한 동경이 잘 보여진다. 신규식의 중국체험을 논할 때 가장 값진 부분은 바로 신해혁명에 직접 참가하여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과 그 필연적 추세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을 인정하고 근대 민족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게 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신규식은 1921 년 손중산을 만난 자리에서 신해혁명의 역사적 의의, 호법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중양국의 혁명은 동일하게 중요하여 중국혁명의 성공의 날은 즉 한국 독립해방의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했고 “중국의 통일은 유망하고 동아의 서광은 이미 열렸습니다.”⁵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그는 투철한 정치안목으로 중국, 내지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분석했는 바 망명인으로서의 특수한 시각이 돋보인다. 근대에 접어들어 중화주의 천화관의 붕괴와 함께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한국은 대 강대국관계에서 주체성 없이 좌왕우왕하다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한국은 대 중국관계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척화파, 친화파 등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제국담론에 휘말려 중국을 타자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중국의 근대혁명인식에서도 투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면은 식민지로 전락된 후 한국지사들의 중국망명이 현실화 되면서 극

⁴ 신규식, 「손중산 대통령을 축하하여」, 『신규식 시문집』(김동훈 외 편역), 민족출판사, 1998, 189쪽.

⁵ 민필호, 『한중외교시화』(일명 『중국호법정부방문기』), 『석림 민필호전』(김준엽 편, 나남출판, 1995, 235 쪽

복되기 시작했으나 중국의 현실, 특히는 신해혁명에 대한 인식에서도 다양하였던 것이다.⁶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규식은 중국의 혁명에 투신하여 신해혁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얻었던 것이다. 그의 시가에서 보여지는 신해혁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대로 한국 근대사상사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재발견인 동시에 근대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근대 계몽사상가들의 경우 근대적 민족국가론을 지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봉건정권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민주국가를 세워야 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규식의 중국체험에서 얻어진 근대 국가인식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신규식의 중국에 대한 재발견, 근대가치에 대한 재정립은 북양군벌정부를 부정하고 호법투쟁을 전개하는 신해혁명 당인들의 민주주의 혁명정신과 가치관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도 잘 보여진다. 왜냐하면 신해혁명과 호법투쟁의 진두에 서서 싸우는 혁명자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은 그대로 근대중국의 정신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신규식은 주변에서 중심부에 왔었으나 타자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타자화 하지도 않았으며 이중주체적 시각에서 역사현장과 그 인물들을 바라본 것이다.

시 「황극강을 애도하며」, 「인형 영사의 영전에」 등은 혁명당인들을 찬미한 대표적 작품으로 시문에서 시인은 신해혁명의 영도자 손중산을 보필하여 신해혁명과 호법투쟁을 지휘한 황극강⁷과 진기미⁸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뜻을 보여준다.

繼漁父英士血流黃歇,
義烈千秋,
淚灑難幹,
舊雨凋零悲故我。
同逸仙宋卿志在共和,
名齊一世,
功成不競,
中原寥落哭斯人
- 「挽黃克強 (黃興)」

어부, 영사의 뒤를 이어 상해에서 피흘렸으니,
의로움은 천추에 빛나고,
눈물은 마를 길이 없는데,
옛 친구 숨지어 슬프기만 하네.
손일선, 송교인과 더불어 공화제에 뜻을 두고,
함께 명성을 떨쳤으나,
영예를 다루지 않았으니,
중원에 표박하는 자는 울기만 하네.
- 「황극강(황흥)을 애도하여」⁹

⁶ 신규식의 경우에는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 정면으로 긍정했었다 유린식 같은 의병장은 재래 전통사상으로 하여 공화제를 지향한 신해혁명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를 보이지 못하였다.

⁷ 황흥은 손중산의 지기로 자산계급혁명의 지도자이다. 그는 황화강 봉기의 주요한 지휘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창봉기를 직접 지휘한 영수로 신해혁명 승리 후 남경 임시정부의 대원수로 추대되어(후에 부원수로 되었다.) 남경 임시정부 구성을 추진한 인물이다. 그 뒤 손중산이 귀국하자 그는 손중산을 대원수로 추대했고 자신은 육군총장을 단임했다. 신해혁명이 실패한 뒤 그는 원세개를 토벌하는 호법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그 뒤 그는 일에 지치어 병들었는데 1916년 상해에서 별세했다.

⁸ 진기미는 호는 영사로 황흥과 함께 손중산을 보필한 자산계급 혁명가이다. 1913년 호법투쟁에서 강소 호법군 사령원으로 나섰다. 그 뒤 1916년 원세개의 정부각료 장종창이 파견한 자객에 의해 피살되었다.

⁹ 신규식, 「황극강(황흥)을 애도하여」, 『신규식시문집』 (김동훈 외 편역), 민족출판사, 1998, 222쪽.

시문에서는 황극강이 근대적 지향을 품고 신해혁명에 투신함과 혁명직후에 손중산만을 추대하는 대공무사한 정신, 그리고 민족국가 창출과 수호를 위한 호법투쟁에서의 변함없는 민족정신과 기개를 예찬하고 있다.

시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維公岐嶷, 공은 슬기로웠고,
天挺英姿, 자태가 영매했으며,
一身所系, 대국의 안위를,
大局安危, 한몸에 지녔어라.
過從既久, 오래 사귀노라니,
希望無涯, 희망이 끝없었고,
同心協力, 일심으로 협력하여,
濟困扶衰, 난국을 이겨냈다네.
何圖蒼昊, 야망을 품은 자가,
驕子是恣, 분별없이 날뛰니
公嬰國難, 공은 난국앞에서,
改革乘時, 개혁을 실행했어라.

- 「陈先生英士誄」 -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¹⁰

시인은 신해혁명 지도자의 한 사람인 진기미¹¹의 혁명정신과 업적에 대해 찬미하면서 공화제 실현의 간고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신규식은 황흥, 진기미 등 혁명당인들을 통해서 민족국가, 민주주의, 민족정신 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했고 한국독립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 중국의 근대정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¹² 이외에도 신규식은 송교인, 서혈아, 대계도, 도야공 등 혁명당인에 대한 시편들을 통해 근대 중국의 혁명정신 즉 반봉건 민주주의 지향, 투철한 혁명정신, 민족적인 기개 등을 재확인하였다.

¹⁰ 신규식, 「영사 진기미선생을 위한 제문」, 위의 책, 226쪽.

¹¹ 진기미는 호는 영사라 했고 황흥과 함께 손중산을 보필한 자산계급 혁명가이다. 그는 호법투쟁의 앞장에 나섰는데 상소 호법군 사령으로 호법군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1916년 원세개 정부 각료 장종창이 파견한 자객에 의해 피살되었다. 신규식과 진기미는 생사지우였는데 신규식은 진기미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공의 덕으로 달려가 고인을 안고 통곡했고 “장태하도다, 살아서 영웅이오, 죽어서 신령이 되었으니 당중에 영사같은 자가 거의 없도다.”라고 외웠다고 한다. 진기미도 신규식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생활자금을 밖에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던지고는 갔다고 한다. 신규식은 선후로 위시와 함께 시 「인형 영사의 영전에」, 산문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등을 발표했다.

¹² 신규식의 근대적 지향은 시 「조카를 학생군단에 보내며」, 「청사를 전송하여」에서도 잘 보여지는데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자유와 민권이 보장되는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파하고 있다.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은 혁명세력의 선천적인 한계성과 군벌통치자들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해 온갖 곡절과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 신해혁명의 승리는 봉건군벌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고 손중산을 위주로 하는 혁명당인들은 호법운동을 벌리어 피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신규식은 자신의 시문에서 원세개를 위수로 한 군벌통치세력의 혁명당인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비판했다.¹³ 손중산을 위수로 한 황흥, 진기미 등의 영도아래 전개된 호법투쟁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인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근대적 지향의 투철성을 증명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대혁명서사는 국공합작에 의하여 전개된 북벌혁명의 가치의 정당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공합작의 파열에 따른 중국 근대혁명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1927 년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한 청당운동으로 국공합작은 파열되고 진보적인 공산당과 민중은 무참한 압제와 학살을 당해야 했고 대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뒤 남창기의, 광주기의가 일어나 공산당과 국민당은 대결상태에 있었다. 대혁명시기 중국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 그리고 부패한 군벌통치와 복잡한 현실에 대해 한국 망명지사들은 민감하게 파악했고 글로서 자신들의 시국인식과 정치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대혁명시기 시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보여준 주요한 작품으로 신채호의 수필들과 기행문 「태항산기」, 류자명의 기행문 「적색의 비통」, 「광주를 떠나면서」, 김산과 님 웨일즈의 「아리랑」 등을 들 수가 있다.

류자명의 기행문 「적색의 비통」(1927. 4. 26), 「광주를 떠나면서」(1927.5)¹⁴등은 북벌혁명의 좌절과 그에 따른 시국인식을 서사화한 작품으로 각별히 주목된다. 작자는 상기 글에서 손중산의 영도 밑에 전개된 북벌혁명에 대하여 전면 긍정적인 전제하에서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행문 「적색의 비통」에서 작자는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해 감행된 ‘4.15 광주참안’을 구체적인 묘사, 예리한 분석, 치렬한 정서로 비판하고 있다.

작자는 우선 혁명세력에 대한 국민당 우익세력의 세기말적 탄압과 무참한 살해를 구체적인 사례 이룰테면 계엄령의 반포, 계엄사령관과 공안국장의 포고, 공산당을 타도하자는 각종 포고와 표어, 공산당원과 그 영향을 받은 노동자, 농민, 학생들을 체포, 구금, 학살하는 장면들, 그에 반대한 혁명세력의 표어 등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 한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인(피살된 한 장면, 필자)의 희생자 중에는 18 세의 소녀와 19 세의 소녀가 있었다. ……수십 명의 군대는 범인을 압송해 묶어 세워 질풍같이 몰고 가서는 진

¹³ 신규식은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남사에 드림」 등 시에서 혁명당인들에 대한 봉건군벌들의 탄압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¹⁴ 류자명의 기행문은 작자가 광주에서 직접 ‘4.15 광주참안’을 목격하고 쓴 것으로 「적색의 비통」은 1927 년 4월 26일 타고하여 5월 13일-1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했고, 「광주를 떠나면서」는 역시 류자명이 광주를 떠나기 전인(5월 4일 광주를 떠남)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타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은 6월 3일-1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흙 가운데로 몰아넣고 총탄을 ‘탕! 탕!’ 쏘아, 그 뇌 속 혹은 가슴 속에 박아 넣었다. 한 소녀는 통곡을 하면서 최후에도 ‘장개석을 타도하자’를 외치며 죽었다.” 이러한 묘사에는 작자의 지대한 분노와 저주, 그리고 예리한 비판이 안반침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 작자는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의 시대 역행성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혁명세력이 정당으로 분할될 때 혁명 그것은 좌절되고 정권을 잃은 정당은 구세력 아래에서보다도 더욱 참화를 당하는 것은 역사가 가르치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하여 공산당 혁명세력에 대한 장개석의 피비린 탄압의 본질은 정쟁(政爭) 즉 정치권력탈취에 있음을 투철히 분석하였다. 작자는 또한 이러한 세기말적 탄압은 국민당 우익세력의 반 삼민주의 행동이라 지적하면서 국민당 당원들의 불순결성을 비판했다. 작자는 특히 국민당우익세력들은 삼민주의와 당의 정강 등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도자의 열에 있는 자까지도 혁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민중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다는 구실 하에 실제로는 민중과 혁명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시키려는 자가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작자는 “장개석 일파의 손에서 연출된 모든 현상은 실로 혁명가로서는 타기할 만한 일일 뿐이다”라고 명백히 지적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작자는 장개석과 일본과의 상호 이용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음모책략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통찰한 점이다. 작자는 “중국의 우경적 세력과 우의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일본의 득책(得策)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개석은 일본의 “이 최후 정책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는 바 투사, 문인으로서의 역사적인 안목과 정치적인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류자명은 상기 기행문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행문 「광주를 떠나면서」에서도 손중산의 세기적 업적과 황포정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의 시대역행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류자명의 대혁명 서사는 자신의 체험과 세계인식에 근거한 객관적 시각과 투철한 시국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상의식 저변에는 정의와 비정의, 진보와 반동, 강권과 민중, 정치와 혁명 등에 대한 깊은 사고와 분석이 설득력있게 전개되어 있다.

류자명의 대혁명서사에서 보여준 중국인식 내지는 시국판단은 같은 시기에 국민당 당국과 국민군의 요직에 있던 광말약의 산문 「오늘의 장개석을 보라」란 글과 혁명세력을 진압한 국민당의 노선을 반대한 노신 선생의 연설, 편지, 일기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4.15 광주참안’을 진실하고 적시적으로 그리고 예리한 안목으로 보여준 글은 중국문인들의 글에서도 찾기 쉽지 않다. 류자명의 기행문은 당대 한국 망명지사들의 정치적 지향과 문화적 자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류자명의 대혁명서사가 북벌혁명에 대한 전면적 긍정과 북벌혁명의 본래 취지를 배반한 장개석의 반동적인 시대역행성을 비판했다면 김산, 님웨일즈 공동작으로 되는

『아리랑』¹⁵에서는 장개석의 반동적 구테타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서 공산당의 진보세력에 의해 격렬한 투쟁을 벌인 광주기의, 해륙풍에서의 공산정권의 건립, 그리고 국민당 우익세력의 피비린 탄압 등에 대하여 쓰고 있다. 특히 엽정, 장태퇴 등에 의하여 전개된 광주기의, 그리고 해륙풍에서의 혁명투쟁에 대한 서사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대단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신규식 등의 신해혁명과 손중산에 대한 정당한 인식은 한국의 애국지사들과 열혈청년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였는 바 한국의 열혈청년들은 구국의 염원에 불타 올라서 광주에 달려가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고 북벌혁명에 투신했다.¹⁶ 또한 장개석의 테러가 있는 뒤 대부분 한국 열혈청년들은 국민군에서 탈퇴하여 남창봉기,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중국 혁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따라서 피의대가를 치렀는 바 좌우익 분열의 수난을 겪었다. 류자명의 대혁명서사와 시국판단은 역시 역사격변기의 한국 혁명청년들의 중국인식, 중국 혁명역량과의 제휴, 한국의 미래인식 등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환언하면 신규식, 류자명 등의 중국혁명서사는 한국인의 근대중국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근대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결사의 선택: 의열17투쟁서사와 영웅적 거사

한국의 망국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망국의 설움을 못 이겨내 자결-순국으로 일제침략에 항거했다. 이러한 의사들중에는 애국적인 군인, 관원, 문인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민영환, 홍범식, 황현, 박승환, 이준 등을 비롯하여 수십 명에 달한다. 또한 일제침략자와 매국노에 대한 지대한 분노를 지니고 거사에 나선 의사들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 인물로 의병장 안중근을 비롯하여 조선의열단(1919) 단원들인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오성륜, 나석주 등, 한인 애국단(1931)의 이봉창, 윤봉길 등을 들 수가 있다. 안중근, 윤봉길을 비롯한 한국 열혈지사들의 영웅적 거사는 전세계를 진감했다. 또한 중국내에서 조선무정부주의 연맹단체를 조직하고 폭력투쟁에 나선 지사들로는 신채호, 정화암, 유수인 등이 있다. 조선의열단, 한인 애국단, 조선무정부주의 연맹 등 민족운동단체 의사들은 항일투쟁을 위한 폭력투쟁에서 서로 합류해 갔다. 이처럼 한민족의 의사들의 항일투쟁은 나라가 망하기 전후 지사들의 장렬한 순국투쟁으로부터 민족주의 투사들

¹⁵ 『아리랑』은 1937년 미국기자 님 웨일즈(헬렌)가 항일투사 김산의 구술에 근거하여 쓴 김산의 자서전적인 실기문학작품으로 1941년 영문으로 출판되었다. 그 뒤 1941년대 『아리랑 노래』란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한국어로는 1984년에 한국에서 출판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조선문으로 1980년대에 출판되었고 중문으로는 1992년에 출판되었다.

¹⁶ 김산의 회억에 의하면 1927년 당시 광주에 온 한국인 진보적 청년 800여 명나 되었으며 400여 명 독립군 출신자가 의용병으로 왔다고 한다. (김산, 님 웨일즈, 『아리랑』, 1984.3, 203쪽)

¹⁷ 필자는 의사투쟁서사 범위에 망국전야에 자결을 선택한 의사들의 투쟁, 식민지시대 거사에 나선 의사들의 투쟁, 또한 무정부주의 민중폭력투쟁을 반영한 작품을 포함시켰다.

의 영웅적인 거사, 나아가서 무정부주의의 민중혁명폭력투쟁에 이르기까지의 가열치절한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한민족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기개를 전 세계에 알리었다. 의열투쟁서사는 일제식민지시기 지식인들의 자결과 거사를 소재로 한 텍스트를 가리킨다. 의열투쟁서사는 이해의 편의상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 의사폭력투쟁서사, 민중혁명 폭력투쟁서사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는 나라가 망하기 전후 죽음으로 일제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보여준 순국지사들의 전기를 가리킨다. 주요한 작품으로 김택영의 「홍범식전」¹⁸, 조소앙¹⁹의 「홍범식전」, 「황현전」, 「전해산전」, 「박승환전」, 「조병세전」, 「민영환전」 등이 있다.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는 물론 순국지사들의 유교사상에 기초한 충군 애국사상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의식과 영웅의식 등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준, 민영환 등에 대한 전기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어 각별히 주목된다.

의사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항일구국투쟁에 나선 의사들의 영웅적 거사를 통해 한민족 특유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를 찬양하였고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보여 주었다. 주요한 작품들로서는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쓴 박은식의 『안중근』, 김택영의 「안중근전」, 신규식의 「안중근전」, 이범석의 「안중근전」, 김구의 「이봉창 의사의 의거」, 「윤봉길 의사의 의거」, 조소앙의 「김상옥전」²⁰, 「이봉창전」, 「윤봉길전」 등 80여명 의사들의 전기를 묶은 조소앙의 『유방집』²¹, 신규식의 한시로 「旅順就義」, 「哈尔滨即事」, 「挽錦山郡守」, 「弘岩先生追悼文」 등이 있으며 소설로 류자명의 「조선혁명일사」²², 김산의 「기괴한 무기」²³ 등이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의 경우 안중근을 비롯하여 김익상²⁴, 오성륜²⁵, 김상옥²⁶, 이봉창²⁷, 윤봉길²⁸ 등 작품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투

¹⁸ 김택영, 『소호당문집·○정본』, 권10

¹⁹ 조소앙(1887-1958)메이지대학 졸업, 대한 임시정부 비서장, 국무위원, 대한 임시정부 외교부장, 한국 독립당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문원』, 『유방집』, 『소앙집』 등이 있다.

²⁰ 『김상옥전』은 1925년 간행되었는데 서문, '김상옥전', '발해경', '한 살림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겸 발행인은 '한 살림'으로 되었다. '한 살림'은 조소앙에 의해 조직된 무정부주의 단체이다. 「김상옥전」 서문은 중국인 黃介民과 張秋白의 썼다. 「김상옥전」에서의 '김상옥전'은 『유방집』에 수록되었다.

²¹ 조소앙의 『유방집』은 식민지시대 민영환, 이준, 이상설, 김익상, 김상옥, 이봉창, 윤봉길 등 80여명 지식인들의 소전을 수록한 인물 전기집으로 1932년 중국 대동학회에서 출판하였고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인 이제민, 황개민 등 40여명이 서문과 제사를 써주어 의사들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²² 위 작품은 1938년 『朝鮮民族戦線』 제5기에 발표.

²³ 위 작품은 1930년 『新东方』 第一卷에 발표됨.

²⁴ 김익상은 1921년 조선총독부 폭과사건을 주도한 인물, 또한 1922년 오성륜과 함께 상해 황푸탄 다나카 기이치에게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주도했으나 실패함. 그 뒤 체포되어 사형선고 받음.

²⁵ 오성륜(1900-1947), 1922년 김익상, 이종옥 등과 거사에 참여. 탈옥후 구소련에서 교육받고 다시 중국에 와서 항일운동에 투신. 그뒤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정치위원을 역임. 1940년 변절하여 일제에 투항했다고 전한다.

²⁶ 김상옥(1890-1923), 의열단 단원. 1923년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일경 수백명과 홀로 대치하면서 20여 일 싸움. 일경 수십명을 사살하고 마지막 자결함. 김상옥이 사살한 일경가운데는 경찰서장 田中長七와 경장 栗田清을 비롯한 경찰 수십명을 사살하였다.

²⁷ 이봉창(李奉昌), 이봉창 의거는 1932년 1월 8일에 이봉창이 한인 애국단의 임무를 받고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죽이고자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을 가리킨다. 일명 사쿠라다문 사건이라고도 한다.

철한 민족정신과 영웅주의를 소유한 민족영웅들로서 거사를 준비하거나 순국하는 순간까지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일제침략자와의 결사적인 저항, 그리고 일제의 필연적인 멸망을 낙인하고 있다.

민족정신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신념으로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대해 궤멸하는 강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항한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한민족특유의 민족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중근전」에서의 안중근은 이토히로부미를 격사한 후 러시아검사의 심문에 항변하여 “나는 대한국인이다. 이등이란 자는 우리 독립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살육하였다. 나의 이번 행동은 우리 나라 독립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며 철천지원수를 복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사형을 받기 직전에도 안변호사에게 “내가 죽은 후 좋은 소식으로 나의 영혼을 위안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동포들 뿐입니다. 선생님은 진심전력으로 우리 동포들을 권고하기 바랍니다. 국가독립을 회복하였다는 소식이 천국에 전해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오직 교육을 진흥하고 실력을 배양하며 여러 사람들의 뜻을 단합하여 독립을 회복하는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안중근은 전 근대 사회에서의 충군애국 사상을 가진 영웅인물, 더우기는 모종의 이익과 복수를 위한 험객이 아니라 근대 의미에서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사적인 선택을 한 민족주의자인 것이다. 이러한 민족정신은 김익상, 오성륜, 김상옥, 이봉창, 윤봉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들의 민족정신은 「조선혁명일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의 김익상은 총독부폭발에 나선 열혈지사로서 1921년 9월 의열단 회의에서 일제의 중추기관을 분쇄할 결의가 있자 자진하여 맡아 나섰다. 그는 국경을 넘어서 먼저 집으로 찾아와 큰아버지, 형제, 아내를 만나서 자기의 거사의향을 전달한다. 그리고 거사에 나서서 성공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일제와의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며 가정보다 사랑도 버릴 수 있는 인물로 형상되었다. 의사들의 민족정신은 소설 「기괴한 무기」²⁸의 주인공인 오성륜도 마찬가지이다. 작자는 상해탄에서 일본육군 대신 다나카 기이치를 처단하려 나선 오성륜, 김익상, 이종옥 등의 거사에 앞서 그들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의 가정, 부모, 형제와 자매, 친척과 벗들, 연인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천여 년의 역사를 위한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 또한 체포된 후의 그들의 심경을 작자는 “다나카의 죽음은 조국회복의 징조이며 조국을 위한 복수의 첫 번째 성공이다.....이제 사형을 당한다 해도 조국과 동포에게 볼 닳이 있지 않는가. 더구나 장

²⁸ 윤봉길(1908-1932), 윤봉길 의거는 윤봉길이 한인 애국단의 임무를 받고 1932년 4월 29일 천황의 생일 겸 상해 전승기념식이 열리는 상해 홍구공원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百川义则)와 일본 거류민단 단장 가와바타(河端)를 즉사한 사건을 가리킨다.

²⁹ 작가는 작품에서 “상해에 있는 조선인 청년을 다 모아 한국 의열단을 조직했다. 이 단체가 성립되고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조국의 복수를 위한 무기라고 했다”라고 쓰고 있다. 말하자면 의열단의 폭력투쟁은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래에 조국이 다시 서는 날이면 온 나라가 우리를 기념해 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에서의 주인공의 민족정신은 이봉창, 윤봉길 등 형상에서도 잘 구현된다. 김구를 만나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이봉창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육신으로는 인생쾌락을 대강 맛 보았으니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도모하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상해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김구 앞에서 임무수행을 선서하는 윤봉길은 “나는 한인 애국단원임을 선서한다. 중국을 침범한 원수인 군사두목을 처단하여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달갑게 받쳐가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사상은 ‘아’와 ‘비아’의 투쟁에서 ‘아’의 투쟁승리를 이루고 ‘아’에 있어서는 구각적인 ‘소아’를 버리고 정신적인 ‘대아’를 추구했던 근대 민족주의 사상을 체현하고 있다. 의사들의 거사정신과 생사관은 정신적인 ‘대아’를 추구했던 주체적인 한국 근대철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즉 일제와의 혈전에서 “구각적인 소아”는 사멸될 수는 있으나 “정신적인 대아”는 영원하다는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³⁰

다음으로 의사거사폭력투쟁서사는 작품주인공들의 영웅적 기백과 슬기, 영웅적 담량과 지혜 등을 통해 의사들의 영웅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김익상의 형상창조에서 보면 김익상은 국경을 무사히 넘기 위해 두 개 폭탄을 하나는 허벅지 사이에 꽂 붙히고 나머지는 허리 띠 안에 숨겼다. 이에 작자는 “위험하면 쉽게 던질 수 있어 상당한 대가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일념이었다고 한다. 또한 소설 「기괴한 무기」에서의 오성륜은 민족인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로 충만한 인물로 형상되어 있다. 그는 옥중에서 사과 껍을 칼로 족쇄를 풀어내고 가짜 권총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죄인들을 위협해 순종하게 함으로써 슬기롭게 탈옥하게 된다.

「김상옥전」에서의 김상옥은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가 겸비한 영웅인물로 형상되었다. 종로경찰서에 수류탄을 투척한 후 뛰어 나온 그는 일경의 감시를 받았는데 선후 20일동안 일경과 싸웠다. 그는 백발백중의 “쌍총 명사수”(双枪神枪手)로 혈혈단신으로 400여명 일경과 대결,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일제경찰을 쓰러 눕히고 총알이 다 떨어져 한발만 남자 드디어 자결, 순국한다. 김상옥의 사건은 국내외에서 크게 영향력을 일으켰는 바 상해의 한국 지성인들은 조소앙의 「김상옥전」이 탈고되자 천부나 찍어 발행했고 중국인 황개민³¹은 친히 「김상옥전」에 서문을 써 주었고 또한 5천부나 찍어 발행하기도 했다. 일본신문에서조차도 김상옥을 가리켜 “一骑当千之勇士”라고 했고 중국인 董育华는 친히 “万马军中奔虎勇，叱咤一声天地宽”라는 만사를 써서 기념했다.³² 김상

³⁰ 김병민, 「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인식과 근대상상」, 『국어국문학』, 제174호, 2016.3

³¹ 황개민(1883-1956), 신해혁명에 참가한 선구자로 구국일보 편집, 국민당 강서성 감찰위원, 국민혁명군 제14군 참의 등을 역임, 해방전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해방후 강서성 감찰청 부청장 등을 역임

³² 조소앙, 「김상옥전」, 『유방집』, 대동학회, 1932.

옥은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가 겸비한 민족영웅의 화신으로 형상되었는데 전기에서는 그가 자결한 후 일정도 감히 그의 사체부근에 다가오지를 못했다고 한다.

박은식의 「안중근」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을 다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바 어린 시절 말 타고 나는 새 쏘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 15 세에 총 들고 동학당에 따라나섰다는 이야기, 서울거리에 한인이 탄 말을 빼앗으려는 일본놈을 혼빵 낸 이야기, 그리고 의병장이 되어 의병투쟁에 나선 이야기, 거사하기 전야의 그와 우덕순과 시를 주고받는 의기 충천하는 장면 등을 통해 부각되거니와 특히는 할빈역에서 이또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영웅적 기개와 옥중에서 태연자약하게 적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더욱 생동하게 부각되고 있다. 옥중에서 그가 일제의 죄행을 13 조목으로 단죄하고 「안응칠역사」, 수만 자의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여 일본인도 그를 흠모하여 필적을 구했다고 쓰고 있다. 또한 시를 써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했는데 그 한구절을 보면 “남아가 비록 죽어도 마음은 철같고 열사가 죽게 되니 기가 구름 같도다.”라고 했다. 또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다”라는 구절로서 자신을 반성했다고 한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그의 영웅적 거사는 동아시아의 평화, 내지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로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의사들의 영웅적 성격은 역시 근대 진화론적 영웅사관에 기초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영웅적 담량과 지혜, 영웅적 기백과 슬기는 한민족 특유의 영웅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의사들의 영웅주의는 진화론적 영웅사관에 입각함은 물론이지만 한민족의 일제에 대한 불굴의 항일 의식과 필승의 신념을 만방에 알리고 진보적인 모든 진보적 역량을 규합하여 가열차절한 항일혈전으로 쫓아내기 위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의사폭력투쟁서사에서는 의사들의 생사관, 가정관, 의리관 등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바 거사에 출전하기 전 윤봉길과 김구의 마지막 대화는 주인공의 생사관, 의리관의 한 측면을 잘 보여주어 심히 감동적이다.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6 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2 원짜리이지 않습니까. 제계는 한 시간 밖에 소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윤봉길은 거사를 떠나면서 김구와 시계를 바꾸었다. 그리고 차에 오르기 전 남은 돈을 김구에게 쥐어 준다. 김구의 물음에 “아닙니다. 차비 내고도 5-6 원은 남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³³ 이러한 장면은 윤봉길 의사의 인간성의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의사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민족주의 사상이 주도적이면서도 무정부주의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기괴한 무기」에서 보면 작자가 주인공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하고 오직 저 ‘피에 굶주린’ 포악한 민족을 한 사람도 남김

³³ 김구, 「윤봉길의 의거」, 『백범일지』, 나남, 2002, 324-346쪽.

없이 없애 버릴 수만 있다면 이 세계는 평온해진다.” 이러한 표현속에는 역시 “행동주의 선전”을 통해 모든 강권을 소멸하려는 지향세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독교주의적 사상도 혼재되어 있는데 주인공들의 폭력투쟁은 신의 의지를 받아 나선 것으로 묘사하는 등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비록 대중적인 기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 민족국가에 대한 사회지향이 아직 명확하지 못한 한계성이 없지 않으나 특수한 역사시기 한민족의 결사적인 선택—영웅적 거사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한민족의 사들의 영웅적 형상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자의 필연적인 멸망을 낙인했고 한민족의 결사항일의 민족정신과 영웅적 기개를 만방에 알리었다. 중국의 저명한 국민혁명 선구자 이제심은 의열지사들을 높이 평가하여 “열사의 피는 자유의 꽃이다”라고 했고 진정치는 의사들을 가리켜 “동아시아의 선각”이라 했으며 방정여는 의사들은 “철혈영웅”이라고 했으니 당시 한국의 의열지사들의 항일구국을 위한 영웅적 거사는 실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안중근」³⁴의 출판에 102 명의 중한 문인들이 동참했다는 점, 조소앙의 『유방집』 출판에 40 여 명의 중국 진보적 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한국의사들의 폭력투쟁이 당시의 중국과 한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일으켰음을 반증하기도 한다.³⁵

민중혁명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무정부주의 조직의 항일투쟁을 환상적 형식을 빌어 소설화한 작품으로 무정부주의 사상이념인 민중 직접혁명론을 선양하고 민중폭력투쟁과 민중의 승리를 제시하고 민중적 사회이상을 고양한 작품들이다. 의사폭력투쟁서사와의 차이점은 의사폭력투쟁서사가 민족주의 선양이 주도적이라면 후자는 무정부주의 선양이 주도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무정부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로 교차되어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신채호의 정론 「조선혁명선언」, 유고 작품으로 「선언」, 「조선의지사」, 「대흑호 일석담」 등과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을 들 수가 있다. 신채호의 작품들은 일제에 대한 민중적 폭력투쟁, 민중혁명투쟁의 필연적 승리를 고취하고 있다.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은 1920년대 동아시아를 품미한 무정부주의 운동과 투쟁을 형상화한 환상적 소설로서 1928년 초에 창작된 유고 작품이다.³⁶작품은 환상적인 구조속에서 중국 경내에서 벌어진 무정부주의 항일투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된다. 소설은 일제침략자의 원흉의 상징적 형상-천국의 시위대장 미리와 지국의 무산민중의 상징적 형상 드레곤의 치열한 격전을 주요 갈등선으로 하며 천국에서 사는

³⁴ 『안중근』은 1912년 『대동위인총서』에 간행된 바 있고 또한 1914년 상해의 대동편집국에서 출간했는데 「안중근」(滄海老坊室稿)이란 책자에는 「안중근전」과 함께 근대 중국의 저명한 문인들이 장태염의 「안군비」를 비롯하여 「제사」, 「도화」, 「서문」, 「선록」,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에는 중국의 저명한 문인 양계초, 황계강 등과 한국의 김택영, 신규식 등 102명이 「제사」, 「서문」, 「부록」, 「선록」 등의 집필에 참여했다.

³⁵ 조소앙, 「김상옥전」, 『유방집』, 대동학회, 1932

³⁶ 김병민 편, 『신채호 문학유고 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상제와 예수, 황제며, 재산가, 대지주, 기타 순사 등의 철저한 박멸과 드레곤과 민중의 승리를 확인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민중들은 침략자들의 정치적 지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강권을 부정하며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폭력적 수단” 즉 “행동에 의한 선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실천의 승리를 옹호한다. 드레곤의 형상은 “민중의 선봉”, “선각한 민중”으로 민중혁명의 선구자를 지칭한다. 작품에서는 드레곤은 정체 불투명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일단 천국이 박멸된 이후에는 “정체적 진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라고 한다. 여기에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 혁명의 주체로 보고 “행동에 의한 선전”-폭력투쟁을 인정하는 무정부주의 사상이 구현되고 있다. 신채호는 대체로 1920년대 초에 무정부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하여 19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정부주의 활동에 전격 참여했고 1928년에는 동방무정부주의 연맹에 참여했고 결사의 선택으로 직접 폭력투쟁을 위한 자금준비로 나섰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특히 그는 크로보트킨 등의 집산주의에 의한 상부상조사상, “행동에 의한 선전”, (소란, 암살, 폭동)등 사상을 수용했다. 신채호의 상기 작품은 바로 자신의 무정부주의 운동체험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한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작품에서 작자가 지국이 사는 민중사회를 온통 감옥이라고 한 점, 제국담론의 상징기호로 작용하는 상제가 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쥐구멍에 살아졌다고 풍자한 점 등은 탈근대적, 탈식민주의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은 작가의 무정부주의 사상에 의하여 기획되는 미래상상—세계상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더 한층 주목된다. 작품의 저자는 “연시몽인”으로 밝혀져 있는 바 북경의 꿈꾸는 사람으로 해석될 것이다. 작품은 지극히 환상적이어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백일몽” 즉 자아의 무의식의 작동이 보여지는 바 주체의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민이 시대적, 역사적, 민족적 고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상상이 되고 상징이 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자크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라 했고 타자에 의해 주체는 상징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임을 지적했다. 대타자—“상징계”에서 주체는 “오독”과 “변형”, “환유”와 “은유” 등으로 “욕망”을 내재화하고 변형한다. 소설에서는 주체의 “욕망”은 실세계에서 얻어진 상상과 상징을 통하여 무산민중주체의 동아시아 내지는 세계 상상을 예술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은 중국에서의 무정부주의 활동과 반일투쟁, 그리고 사회지향을 환상적 구조속에서 표현한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4. 저항의 주체: 항일무장투쟁서사와 중한연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후 한국의 독립투쟁은 중국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1910년대의 의병투쟁, 1920년대 초반에 있는 독립군의 투쟁 즉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는 그 전형적인 항일무장투쟁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이후 한국 독립군 무장투쟁은 기본상 결속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뒤 1930년대 동북지역에는

한국인 항일유격대가 창설되어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고 나중에 이 항일유격대는 1936 년 항일연군에 편입되어 항일무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1938 년 국민군 소속으로 조선의용대, 1940 년 한국광복군, 1942 년 팔로군 소속으로 조선의용군 등이 창설되어 항일무장투쟁은 국민군, 팔로군, 항일연군과의 연관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열처절한 항일투쟁은 다양한 서사양식에 반영되었다.

항일무장투쟁서사는 독립군항일투쟁서사, 조선의용대 항일투쟁서사, 조선유격대 항일투쟁서사, 민중항일 투쟁서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910 년대 한국의 항일독립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신채호의 중편소설 「꿈하늘」(1916)³⁷과 유작시편³⁸, 그리고 유린석의 시가작품들이 있으며 1920 년대 초기 한국인 중국경내 연변지역 독립군 항일투쟁(청산리투쟁)을 소재로 한 실기문학으로 「한국의 분노」(이범석, 푸나이푸, 1940)가 있다. 1930 년대 중국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조선유격대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연극 「혈해지창」(까마귀, 1938 년), 「밀림은 싸운다」(작가미상, 1937 년) 등이 있으며 1930 년대 중국 관내지역에서 조선의용대의 항일무장투쟁을 보여준 작품으로 실기문학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 1939.9) 등과 다수의 실기, 이두산, 한유한 등의 시와 수필 등 작품들이 있다. 민중의 항일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 조선의용대의 연극 「조선의 딸」(김창만, 1939), 「두만강변」(작가미상, 1939), 가극 「아리랑」(김창만, 1939), 그리고 한국 전지공작대의 가극 「아리랑」(한유한, 1940) 등이 있다.

상기 부동한 항일무장서사 작품들은 물론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중한연대, 민중항쟁 등을 보였다는데 공동점이 있으면서도 의식경향, 형식 등 면에서 일정한 부동점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의용대서사는 사회주의 경향이 없지 않으나 민족주의 경향이 주도적이며 조선 항일유격대서사는 민족주의 경향이 있으나 사회주의적 경향이 주도적이며 민중항일서사는 역시 민족주의 경향이 주도적이지만 사회주의 영향도 없지 않다. 또한 조선항일유격대서사는 역시 민중항일투쟁서사의 성격도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부동한 항일무장투쟁서사의 의식내용과 형식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독립군항일투쟁서사 1910 년대 한국인의 독립운동과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가리킨다. 신채호의 중편소설 「꿈하늘」(1916)과 신채호의 유작시편들, 그리고 유린석의 시가작품들이 있으며 1920 년대 초기 한국인 연변지역 독립군항일투쟁(청산리투쟁)을 소재로 한 실기문학으로 「한국의 분노」(이범석, 푸나이푸, 1940)가 있다. 「한국의 분노」는 일제에 대한 독립군의 불굴의 투쟁과 그 승리를 보여준다. 작품은 독립군

³⁷ 「꿈하늘」은 신채호의 유고작품으로 독립투쟁의 복잡성과 간고성을 보여주면서 주인공 한놈의 형상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정신, 민족의 문화정신, 그리고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소설은 환상소설로 되어 있다. (김병민, 「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 인식과 근대상상」, 『국어국문학』, 제174호, 2016)

³⁸ 유린석의 시작들은 중국 요녕성 관전 부근에서 전개된 항일의병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 문인인 유린석은 항일에 있어서는 견결했으나 근대적 지향에 있어서는 아직 보수적이었다.

의 주요한 지휘자인 홍범도 장군의 업적에 대해 비하하는 점도 없지 않아 역사사실에 어긋나는 허점도 드러내고 있다. 신채호의 환상소설 「꿈하늘」은 독립운동의 복잡성과 극절성을 보여주면서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독립군 항일투쟁서사는 민족주의사상에 기초한 애국주의, 영웅주의 등을 고취하고 있으며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용대 항일서사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주체로서의 한민족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전투적 위훈을 보여주면서 조선의용대의 대적 무장선전, 중한협동작전, 그리고 민중에 대한 교육 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제의 동아시아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중한연대의식이 전 편에 관통되고 있다. 조선의용대 항일서사 작품으로 『조선의용대 제 1 구대 혈전실기』(조선의용대 창작, 유금용 편역, 1939)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 창작, 유금용 편역, 1939.9), 『전장에서 조선의용대』(왕계현 편역, 1940), 「전방에서의 제 1 구대」(박효삼, 1939), 윤세주의 「화평촌 통신」(1939), 양민산의 「접적행군기」(1940), 한지성의 「전호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선의용대」(1939), 이달의 「‘3.1’운동기념 감언」(1939) 등 50 여 편의 실기문학이 있으며 그 외 이두산, 이달, 문명철, 약희, 김유 등의 산문과 시편들이 있다.

장편실기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1939.9)는 조선의용대 각 구대 선전원들이 집필하고 중국인 조선의용대 대원인 유금용이 번역한 실기문학 작품집으로 조선의용대 창립 1 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의용대에서 출간하였다. 한국문으로 된 원본이 있었겠으나 아직 발굴이 안 되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의용대가 국민당 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제 1 전구, 제 5 전구, 제 9 전구에 여러 개 분대로 나뉘어 국민군 및 게릴라부대와 협동하여 항일전쟁의 최전선에서 대적 무장선전, 협동작전, 민중교육 등 면에서 이룩한 영웅적 업적을 서사화 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사료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은 당시 조선의용대에서 꾸렸던 『조선의용대통신』에 「조선의용대 제 1 구대 혈전실기」란 제목으로 연재됨) 작품은 당시 중한독자들과 사회각계에 광범한 반향을 일으키었다. 작품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제 1 구대와 제 2 구대의 항일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첫 부분은 4 장, 두 번째 부분은 5 장으로 구성되었고 각장에서는 「민중이 사랑하는 게릴라부대」, 「진지에서의 연설전」, 「전장은 우리학교」 등의 소제목 붙이고 있다. 문체는 수필, 르포, 편지, 대담, 의론 등 다양하다. 따라서 작품은 대형 실기문학집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뛰어난 문학적 상상력과 수사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의용대의 대적 무장선전은 항일담론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는데 적진뿐만 아니라 적 점령구의 민중생활구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대적 무장선전은 선전빠라와 표어의 산포, 적진에서의 대적 함화, 일본어 강습반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항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적들의 전투사기를 와해시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문인들은 조선의용

대의 대적 선전을 가리켜 “혁명의 씨앗을 적군 내부에 뿌렸다”고 했고 “많은 휘황한 업적을 쌓았다”고 했다.³⁹ 따라서 조선의용대의 항일담론은 혁명성, 저항성, 연대성 등을 키워드로 하여 일제의 제국주의 담론의 반동성, 허위성, 침략성을 폭로하고 배격한 대항 담론이었다. 따라서 그 담론의 취지는 “항일구국, 전민항전” 깃발아래 항일투쟁에 총 쫓기하여 일제를 소멸하고 전면승리를 이룩하여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과 게릴라부대를 협력하여 대적 선전을 하는 한편 국민군을 배합하여 여러 차례 적과의 혈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쌓았다. 작품에서는 통성 공격전투, 철주 항공격전투, 석산 공격전투, 잠산 공격전투 등에 대한 서사를 통하여 국민군과 조선의용대의 영웅적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품에서 보여주는 영웅담론은 민족·민중영웅주의로 임전무퇴의 기개, 침략자와의 결사항전, 민족과 민중을 위한 희생정신 등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석산공격전에 대한 묘사는 아주 감동적이다. 석산 공격전을 위하여 결사대에 나서는 용사들의 영웅적 모습과 공격전에서 국민군과 생사를 함께 한 조선의용대의 숭고한 정신도 보여 준다. 22 명의 결사대원들은 수류탄을 가득 메고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일 것이다. 석산을 수복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했다. 서사화자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중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강철같이 견고해졌다고 토로했고 “이 장면을 보고 이국 사람들인 우리는 흥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몸속의 뜨거운 피가 이미 끓어 올라 22 명의 민족 영웅들과 친절히 악수하였다.”(「결사대」, 74~75 쪽)고 기록하고 있다.

실기에서는 계속하여 결사대 대원들의 영웅적 투쟁모습, 그리고 6 명의 결사대원들이 장렬하게 희생된 사실과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국민군 부상병을 구원한 사연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국민군 88 연대 제 3 대대 제 8 중대 중대장 유운서(柳運瑞)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5 겹이나 되는 적의 철조망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3 겹까지 파괴하고 결국 적의 파편에 다리를 상하게 되었다. 조선의용대 선전대원 3 명은 그를 구원하게 된다. 실기에서는 “우리는 유중대장을 업고 이 자그마한 ‘명예전리품’들을 들고 우리의 주둔지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이 즐거웠다! 유중대장을 업은 G 동무의 옷이 비록 피에 젖고 또한 영광스러운 피가 살결에도 물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안을 받았으며 유쾌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이 전투에 참가했던 게릴라 선전조 제 2 대의 진한중(陳漢中), 관건(關健), 이동호(李東浩) 등은 국민군과 배합하여 석산을 공격했고 적의 군영과 탄약창고를 불살랐으며 아울러 작전 진지에서 중상을 입은 유중대장을 구원한 戰功으로 하여 군단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조선의용대는 상금을 받기도 했다.

작품은 또한 주체의 이중성에 따른 정체성의 중층적 특질을 구현하고 있다. 물론 조선

³⁹ 마의 편, 『조선의용대의 승리적인 4년』, 국제출판사, 1942

의용대의 정체성에서 주도적인 것은 단연 자기 민족국가·민족문화에 대한 정체성이다. 아울러 그들의 중국인식을 분석해 보면 중국 국민군에 소속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내비친다. 이들의 이중주체성과 민족정체성, 군인 정체성은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중한 연대를 이룩할 수 있게 된 전제이기도 하다. 조선의용대의 민족정체성은 주체의 자아인식 즉 민족의 독립과 자유, 조국의 해방과 미래에 대한 강렬한 요구, 민족문화에 대한 집요한 추구 등을 통해서 보아낼 수가 있으며 군인정체성은 중국의 항전에 대한 굳은 신념, 민중에 대한 항전교육, 민중학교의 운영 등에서 잘 체현된다. 이중주체와 그에 따른 정체성의 중층적 특징은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중한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수많은 “정착신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의 출간은 중한 양 민족의 연합항일 역사에서 기념비적 의의가 있는 문화전략이었고 제국주의침략과 문화패권을 전복한 20 세기 동아시아의 정신문화적 유산으로 높이 평가된다.

조선항일유격대 항일서사는 주요하게 항일유격대의 항일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 항일가요⁴⁰와 항일연극을 들 수가 있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 연극 「혈애지창」(1938)과 「밀림은 싸운다」(1938)를 들 수가 있다.⁴¹ 항일유격대 연극은 공산주의사상 이념에 기초한 항일유격대의 투쟁생활과 그 혁명적 영웅주의를 반영하면서 중한연대 특히는 항일유격대에 대한 중한민중들의 지지와 성원, 나아가서 군민이 공동으로 일제와의 혈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두 연극작품은 작자가 까마귀로 되어 있다. 항일유격대에서 창작공연 했던 작품으로 항일유격대의 집체창작으로 볼 수도 있다.⁴² 따라서 작품에는 광복회와 김대장에 대한 대사가 나오는 바 김일성이 거느리는 유격대에서 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작품은 모두 항일유격대의 영웅적 형상과 항일투쟁을 지지하는 민중들의 항전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 공산주의의 혁명사상 영향이 큰 작품이다.

「혈애지창」은 일제에 의하여 피바다가 된 장백산지역의 참혹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항일유격대 정찰원 삿갓새가 민중 속에 들어가 계급교양과 항일교육을 전개하고 민중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투쟁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싸우는 밀림」은 유격대 군수부장 박민 등이 헤샤즈꺼우(黑瞎子) 밀영을 포위하고 동기 대토벌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군과의 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두 작품은 극적 소재와 내용 표현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격대 항일투쟁과 민중들의 각성을 반영하고 일제에 대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항일전쟁의 필연적 승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다고 말할 수

⁴⁰ 항일가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성과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최옥화, 『해방전 중국 조선족 가요연구』, 국학자료원, 2016년

⁴¹ 항일유격대가 창작한 작품으로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쏜다」, 「혈분만국회」, 「꽃파는 처녀」, 「성황당」, 「한 자위단의 운명」, 「경축대회」 등 다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원 텍스트가 확인 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잠시 다루지 않는다.

⁴² 두 작품은 1959년 연변대학교 조문학부 권철 등 선생들에 의하여 길림성 화룡현에서 발굴되었다. 따라서 작품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서 창작 공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유격대 항일서사로서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군인형상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이념과 항일투쟁의 필연적 승리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혈해지창」⁴³에서의 경찰원 뼈꼭새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민중속에 들어가 계급교육과 항일교육을 하는 혁명군인으로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다. 그는 “우리는 칭칭 감긴 이 철쇄를 짓부시고 자유와 행복의 꽃동산을 꾸려야 합니다. 여러 분들도 땅 파던 팽이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북간도의 피바다에 붉은 주권을 세워야 합니다. 잠자는 사자는 깨어났습니다. 승리하는 날까지 싸워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민중을 무장시키고 민중을 투쟁으로 불러 일으키는 항일유격대 투사이다. 특히 그는 유격대를 이끌고 적진에서 일제 헌병 오장을 비롯한 일경과 그 앞잡이들을 일망타진한다. 또한 「싸우는 밀림」⁴⁴에서의 유격대 군수부장 박민은 공산주의 이념과 이상을 지닌 혁명군인으로 해산을 앞둔 아내 계순에게 혁명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며 도깨비굴에 내려가 왕로인 등을 혁명사상으로 각성시키고 일본포로에 대한 교양을 거쳐 정보를 제공하게끔 한다. 박민은 “무산자들에게는 국경이 없소. 우리 무산자의 신앙은 곧 인류 무산혁명을 실현하는데 있소. 공산사회-이것은 절대적 진리요.” “공산주의 정신이란 전 인류의 산 영혼이란 걸 알아야 하오”라고 말하거니와 자신의 모든 투쟁실천을 공산주의 이념과 결합시키고자 한다. 경찰원 뼈꼭새와 군수부장 박민은 공산주의 이념과 이상으로 민중을 교양하여 항일투쟁에 나서게 하며 자신들은 직접 항일투쟁의 최전선에서 적과英勇하게 싸워 승리하는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형상으로 당시 항일유격대의 정신세계와 투쟁실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상미학적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중한 민중의 각성과 중한연대를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예하면 「혈해지창」에서의 왕평의 가정은 항일투쟁에서英勇하게 싸운 중국인 혁명가정이다. 왕평, 왕평의 아버지, 왕평의 어머니 쑹마마는 항일혁명사상의 영향을 받아 날로 각성되었고 끝내는 항일유격대를 보호하기 위하여英勇하게 희생하는 민중영웅의 형상이다. 왕평의 아버지는 유격대를 숨겨둔 죄로 일경 오장에게 무참히 살해 되었고 왕평의 어머니 쑹마마는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진보적 여성으로 유격대 경찰원 뼈꼭새를 자기 집 움에 숨겨두고 보호한다. 그는 적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초지를 지켜 싸우다가 오장의 총에 살해된다. 왕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유격대의 항일투쟁의 영향을 받아 유격대 경찰원 뼈꼭새가 맡긴 임무수행에 나섰다가 체포된다. 그는 혹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역시 오장의 총에 살해된다. 그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중조 두 민족은 다 같은 형제이니 같이 싸워야 합니다. 무산자는 모두가 같은 처지이니 저를 믿으십시오”라고 자신의 이념과 이상을 피력한다. 작품에서는 항일유격투쟁을 지지, 성원하

⁴³ 「혈해지창(血海之唱)」, 즉 일제에 의하여 피바다가 된 땅 위에서도 자유의 노래 소리 들린다는 의미임.

⁴⁴ 항일 유격대가 밀림에서 일제와英勇하게 싸운다는 의미임.

는 쑹마마 일가의 민중적 영웅형상을 통하여 항일투쟁에서 형성된 중한연대의식이 중국 민중속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제시한 동시에 항일투쟁에서의 중국인들의 각성과 영웅적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항일유격대 투쟁서사에서는 민중들의 각성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바 「싸우는 밀림」에서의 계순은 남편 박민이 주는 임무 즉 분산된 민중을 일제와의 싸움에 나서 계급 조직 동원하는 임무수행을 위해 나섰다가 적에게 체포되고 혹형을 받으며 아이를 낳아 더더욱 참혹한 현실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는 적들의 혹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며 갓 난 어린애를 남겨두고 비장하게 희생된다. 그는 항일혁명가의 아내로서 무산계급사상으로 무장된 여성혁명가의 형상이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 나오는 왕로인은 항일유격대의 영향밑에서 각성되어 적과의 싸움에서 몸바쳐 간 민중의 형상이기도 하다.

작품들에서는 당시 항일투쟁에서의 일본군포로에 대한 대적 선전사상도 보여 주어 주목된다. 「싸우는 밀림」에서의 연락병 일본군병사는 박민의 교양하게 전향하게 된다. 연락병은 항일유격대가 가지고 있던 진보적 사상 즉 포로를 학대하지 않고 교육을 선행한다는 이념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일본 연락병 형상을 통해 항일유격대에서의 일본군 포로교육은 조선의용대에서의 대적 선전 특히는 일본군 포로교육이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항일유격대 서사에서는 이중주체로서의 항일유격대의 정체성의 복합적 특질도 잘 보여준다. “싸우는 밀림이여, 네가 낳은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될 때 중화민족에게는 영원히 적수가 없으리라. 우리 천만년 백두산은 중화민족과 함께 살아있다” 이는 「싸우는 밀림」의 결말에 부친 작가-화자의 독백이자 역시 주인공-항일 유격대의 지향이기도 하다. “우리 다시 싸워 이겨 돌아 올 때 온 중국 어머니들께 영원한 웃음을 안겨 줄 것이다.” 이는 「혈해지창」에서 왕평의 죽음을 두고 쑹마마를 위안하는 정찰원 뽀꼭새의 말이다. “우리의 북간도는 이런 피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화민족의 영웅적 노래는 끝없이 중국벌판에 퍼질 것입니다.” 뽀꼭새는 왕평 등의 시체우에 붉은 기를 덮어주며 이같이 말하고 있다. 상기 표현속에는 이중주체로서의 항일유격대의 정체성이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항일연군 소속으로서의 항일유격대의 군인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작품에서는 또한 한국인 이민들의 정체성의 변화양상도 보여주어 주목된다. 『밀림은 싸운다』에서 왕로인, 김로인, 박로인 등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고 받는다. “우리 만주에 와서 손에 피고름이 맺히도록 나무를 찍어다 기둥을 세운 뒤 밭을 옥답으로 만들어 겨우 이뤄 놓은 이 터전을 우리는 목숨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수다” “오늘은 이 땅에서 내 피를 뿌려 씨앗을 가꾸었으니 예가 내 고향이우”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지킵시다” 이와 같이 작품을 통해 중국으로 온 한국인들의 이민과 정착과정, 새로운 고향의식과 이중적 정체성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중국의 항전승리와 한국의 독립을 불가분리의 관계로 인

식하고 중국의 항일투쟁에 참가하게 된 역사적 과정과 항일투사들의 국내진출, 나아가서 한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싸워 나선 한국 민중의 민족적 각성과 헌신적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주로 연극, 가극의 형식을 취했는데 조선의용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항일유격대 등 항일부대에 의해 창작 공연되었으며 중한 민중들에게 “항일구국, 전면항전” 사상과 중한연대 의식을 고취하려는 데 주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때문에 연극, 가극 등은 상당한 선전 선동성과 대중성을 가지었다. 따라서 무장부대 군인들에 의해 창작된 연극, 가극들은 중한 공동배역, 공동공연, 이중언어 대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합작과 공동서사의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주요한 작품으로 조선의용대에서 창작공연한 연극 「도문강변」(1939), 「조선의 딸」(김창만, 1939), 가극 「아리랑」(김창만, 1939)⁴⁵, 한국 전지공작대에서 창작 공연한 가극 「아리랑」(한유한, 1940)⁴⁶, 연극 「국경의 밤」(1939, 한국 전지공작대 집체창작), 「한국의 한 용사」(한유한, 박동운, 1940)⁴⁷, 항일유격대에서 창작공연한 「꽃과는 처녀」, 「성황당」 등이 있다.

우선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한민족의 이민과 정착, 그리고 항일투쟁의 역사를 폭넓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족적 각성을 이룩한 민중들은 직접 항일무장대오에 참가하거나 항일투쟁을 지지, 성원한다. 조선의용대에서 창작 공연한 연극 「도문강변」은 일제와의 진공전에서 부상을 입고 희생된 오빠의 손에서 총을 받아 권 누이동생과 수많은 동지들이 도문강변에 누워있는 투사의 시체를 넘어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민중적 형상을 통해 천백만 민중들의 각성과 투쟁을 보여준다. 또한 김창만이 창작한 가극 「아리랑」에서는 아리랑고개라는 특정된 이미지를 통해 죽음의 고개를 넘어 중국으로 와서 항일투쟁에 참가하는 한민족의 항일혁명 투쟁노정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해 보이고 있다. 일제의 세기말적인 수탈에 못이겨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남부여대하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으로 가야했다. 물론 이러한 민족의 대이동의 앞장에는 항일구국의 뜻을 지닌 항일 애국투사들이 서 있었다. 아리랑 고개는 바로 국경에 자리 잡은 산으로 햇빛을 볼 수 없고 음산한 추운 바람이 부는 지옥같은 곳이다. 이 아리랑고개에는 수많은 민족영웅들과 전사들의 시체가 묻혀야만 했다. 가극에 등장하는 농민과 그의 딸은 유랑의 아픔을 안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바로 이 순간 한 청년이 권총을

⁴⁵ 가극은 일제의 침탈에 항거하여 싸우기 위해 항일유격대 지휘 밑에 아리랑 고개를 넘나들며 적과 싸우고 나중에는 희생되는 비장한 장면을 가극으로 한 작품이다.

⁴⁶ 1940년 1월 서안에서 전지공작대에 의해 총 타이틀을 「아리랑」으로 한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작품으로 가극 「아리랑」과 연극 「국경의 밤」, 「한국의 한 용사」 등이 있었다. 「아리랑」공연은 당시 중국인들 속에서 광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국경의 밤」, 「한국의 한 용사」는 중국어로 공연되었다. 「국경의 밤」은 압록강변에서 중국 의용군과 한국 혁명군이 함께 일본군과 싸우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중조 두 나라 군대가 적의 방어선을 폭파하고 싸우다가 끝내 실패하여 희생하게 된다. 「한국의 한 용사」는 1941년 1월 일본헌병대의 통역관으로 있던 박동운이 포로가 된 중국인 유격대장과 6명의 유격대원을 구출하고 자신도 적군의 말과 무기를 가지고 적진을 탈출하여 전지공작대로 입대해 실제 사실을 소재로 한 연극이다.

⁴⁷ 「국경의 밤」은 1939년 10월 중경에서 공연된 바 있다. 「국경의 밤」과 「한국의 한 용사」는 서안에서 중국어로 공연되었다.

들고 나타나 “당신들은 아리랑 고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넘어간다면 나는 이 충으로 당신들을 죽이겠어요. 지금 아리랑은 조선인 망명의 죽음의 종착점이니 조국에서 죽어야 해요”라고 하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가극에서는 새로운 아리랑 이야기와 아리랑 민요형식을 빌어 남부여대하고 조국을 떠나는 망국노의 처참한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아리랑 산에서 희생된 무수한 혁명자들의 형상을 빌어 일제에 대한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리랑 고개-죽음의 산은 혁명승리를 약속하는 혁명의 산으로 될 수 있음을 암시, 상징하기도 한다. 한유한이 창작한 가극 「아리랑」도 역시 목동과 시골처녀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아리랑 고개를 넘어 혁명군에 참가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는 이야기를 통해 진보적 항일 혁명투사의 성장과정과 그 비극적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작품은 “주인공들의 육신은 죽지만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아리랑 산에 한국 국기가 휘날리며 미래의 승리를 전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러한 점은 아리랑 고개는 “고난과 눈물과 설움의 고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 투쟁의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⁴⁸ 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기 두 작품은 항일투쟁에 궤기하는 한국의 민중들의 시대적 각성, 그리고 항일 혁명 군인들의 성장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징성이 부여된 아리랑 이미지에 새로운 희망을 부여한 점은 예술적 창조이기도 하다. 한국인 혁명가 김산은 미국기자 님 웨일즈와의 취재에 임한 자리에서 “만주벌판 어디에서나 조선인 의용병이건 중국인이건 모두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고 회억했고 또한 “아리랑 고개에서 기다리는 것은 죽음 뿐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아리랑 고개에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수많은 죽음 가운데 승리가 태어 날 수도 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한 바 있다. 아리랑 고개는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찾을 수 있는 “죽음의 고개”인 동시에 “희망의 고개”로서 “탈출의 공간”인 동시에 “귀환의 공간”이다. 상기 두 작품에서의 아리랑의 상징적 의미는 민족의 현실과 정서, 이상과 신념을 민족의식의 심층으로 확장, 육박해 가는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 부의 가극 「아리랑」은 한민족의 항일정신과 민족성을 중국에 선양하고 중한연대를 형성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다음으로 민중투쟁서사 작품들은 역시 중한연대로 특징되는 항일투쟁의 한 측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연극 「국경의 밤」은 중한 열혈청년들로 조직된 동북의용군과 한국혁명군이 눈 내리는 겨울밤, 압록강 국경선에서 공동의 적인 일제와 영웅하게 싸우다가 희생되는 비장한 사실을 통해 중한 군민들의 항일투쟁에서의 연대의식, 그리고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며 「한국의 한 용사」는 1941년 일본헌병대 통역관으로 있던 박동운이 포로가 된 중국인 유격대장과 6명의 유격대원을 구출하고 자신도 적들의 문건과 무기, 말 3필을 가지고 헌병대를 탈출하여 한국청년 전지공작대원이 된 사실을 통해 항일투쟁

⁴⁸ 정우택,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의 가극 ‘아리랑’ 공연과 그 의의」, 『한국민요학』, 제21집, 한국민요학회, 2007.12

에 있어서 중한 두 나라는 운명의 공동체임을 제시해 보였다. 상기 작품들은 1930년대 후반 중국에서는 통일전선이 형성되어 항일구국, 전민항전의 기치 밑에 항일투쟁이 고조되고 따라서 반파시스트 다국 동맹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조선의용대, 항일유격대, 한국 전지공작대 등이 중국의 항전에 투입하여 중국 군민과 협동작전하여 영웅적 위훈을 떨치었던 역사현실에 대한 예술적 재현이기도 한다.

또한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한국의 항일무장대오와 한국 국내 민중의 연합작전과 그 승리를 보여주어 특히 주목된다. 조선의용대의 연극 「조선의 딸」은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는 조선민중의 시대적 각성과 유격대의 국내진출에 따른 항전투쟁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가 있다. 연극 『조선의 딸』은 3.1 운동 20 주년을 기념하여 가극 『아리랑』과 함께 중국 계림에서 공연한 작품으로 중국에서 단막극 『도문강변』을 공연한데 이어 두 번째로 되는 공연된 연극작품이다. 『조선의 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려 한다.

『조선의 딸』은 2막으로 된 연극으로 주제가 선명하고 인물형상이 생동하며 서사성이 강한 것으로 특징된다. 극본이 없어 그 전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작품의 구성을 복원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제의 약탈과 한국인의 봉기. 여주인공 애련의 각성과 카페생활, 애련의 혁명활동과 항일투사의 국내잠입, 애련의 장렬한 죽음과 일본놈 처단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에서의 애련, 애련의 할아버지, 애련이의 오빠 광호, 그리고 순삼이는 긍정적 인물 계열로 부각되었다. 할아버지는 민족적 양심과 항일의식을 소유한 인물로 형상되었고 광호와 순삼이는 중국으로 망명한 항일투사로 형상되었다. 연극의 여주인공 애련이는 할아버지와 광호의 영향으로 각성하여 혁명적인 대열에 들어선 인물로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애련이의 성격은 할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이해, 혁명활동에 나서려하는 오빠 광호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의 용감성과 슬기, 헌신적 정신 등을 통해 생동하게 창조되었다. 애련의 형상은 항일투쟁에서 헌신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조선의 수많은 여성혁명가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극에서의 숙부는 일제의 주구로 타카하시사 단장 및 나까무라 경찰서장과 함께 민중의 적으로 온갖 만행을 감행하지만 결국 혁명세력에 의해 처단되는 것이다.

연극은 주제의식이 선명하고 극적 갈등이 첨예하며 슈제트가 복선적이며 인물형상의 성격창조가 일정한 깊이를 보여준다. 연극은 생동한 인물형상으로 식민지시대 조선민중의 운명과 각성, 항일구국을 위한 자아희생정신, 일제의 약탈과 패배 등 항일투쟁의 제반 역사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상기 작품은 계림에서 연속 세 차례나 공연하여 당시 관중들에게서 절찬을 받았고 조선의용대의 사회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계림에서의 공연이 끝난 뒤 중국 문인들은 조선의용대의 공연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바 연극 『조선의 딸』은 “일본 제국주의

를 반대하여 영웅하게 희생하는 조선 아들딸을 묘사한 역사극”⁴⁹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선의용대 정치조 조장으로 있던 김규광도 「『조선의 딸』을 공연한 혁명의의」⁵⁰란 문장을 발표하여 공연이 가지는 혁명적 의의를 천명했다.⁵¹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연극 『조선의 딸』은 사상내용의 진보성과 예술형식의 참신성 등으로 하여 비단 조선의용대 항일투쟁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전문예운동사 나아가서 중한 문예교류사에서도 중요한 위치가 있다. 여기서 한마디 부언한다면 중국의 무대에서 중국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중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았다는 점은 상기 작품이 조선민족의 불요불굴의 항일정신을 생동한 예술형상을 통하여 깊이 있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연활동을 통해 주류사회로 진출하여 항일담론을 만들어 내려는 조선의용대의 그 집요한 문화정신을 읽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중적인 문화정체성과 문화적인 혼종성이 가지는 특이한 문화적 힘도 가늠하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서사 작품들은 20 세기 전반기 일제침략과 문화패권에 맞서 싸우는 한민족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철한 민족의식, 그리고 중한연대의식, 민중의 각성과 투쟁 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국민군에 소속된 한국 의용대와 항일연군에 소속된 항일유격대의 항일무장투쟁서사 작품들은 비록 이념의 차이를 갖고 있으나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민족독립과 자유를 위한 지향, 그리고 항일전쟁에서 형성된 중한 연대의식 등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5. 존재의 이유: 망향애환서사와 한의 정서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가열처절한 항일투쟁의 나날에 고향과 조국, 그리고 가족과 벗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달래야 했다. 이러한 고뇌와 아픔의 정서를 보여준 작품들을 망향애환서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망향애환서사에서 민족의 망향을 보여준 작품으로 신채호의 시 「너의 것」, 「새벽의 별」, 「무궁화의 노래」, 「고국」⁵² 등과 시 「인제 철아에게 영락정시를 드리노라」, 「이충무공 한산도 기념」, 「나의 신령을 사랑하노라」, 이두산의 시 「어머니의 비석」, 문명철의 시 「금강산에 가고파」 등을 들 수가 있다. 민족의 애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⁴⁹ 전심, 『「조선의 딸」과 「아리랑」』, 『동방전우』, 제4기, 1939.4.1

⁵⁰ 김규광, 「『조선의 딸』을 공연한 혁명적 의의」 (『조선의용대통신』, 제 6기, 1939.3)

⁵¹ 김규광은 연극의 혁명적 의의는 우선 3.1운동을 진실하게 재현한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연극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중봉기는 바로 3.1운동(봉기)을 재현한 것으로 일제의 침략에 의한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했고 또한 일제와 맞서 싸우는 조선 사람들의 혁명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조선민족의 희곡이 처음 중국 계림에서 신기록을 남기었으며 따라서 각계 사회 인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제적 및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했다.(동상)

⁵² 본 논문에서 인용된 신채호의 시문은 박정규 편역 『단재 신채호 시선집』 (기별미디어, 2013)에 준함.

는 신규식의 시 「오랜 동지이며 인제인 조완구에게 전하노라」, 「북경, 천진의 동지들이 체포되었다」, 「라공 홍암 선생을 추도하여」, 「홍암 선생을 위한 추도문」, 「추도사」, 신채호의 「도제 4 언문」⁵³, 조선의용대 김창만의 가극 「아리랑」과 한국 청년전지대의 가극 「아리랑」을 들 수가 있다.

망향애환서사 작품들의 공통한 특징은 망명인 특유의 정체성 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정체성은 민족에 대한 우월감 혹은 귀속감으로 특징된다. 정체성이란 “스스로 새롭게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체성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가장하는 주체 변형의 생산물이다”⁵⁴ 식민지시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정체성문제는 그 무엇보다 첨예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였다. 그것은 일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하여 이른바 “내선일체” “동족동근”을 떠벌리면서 창씨개명 시책을 자행했고 나아가서 민족문화 말살책으로 민족역사교육과 민족언어 문자사용을 제한하였다. 바로 일제의 강권진압과 문화패권으로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었다. 이른 바 일제의 “황민화운동”의 선두자로 나선 문인들의 출현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가령 식민지시대 민족정체성을 두고 이야기 할 때 망명지사들은 가장 확고하게 정체성을 가진 민족 군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체험서사, 특히는 망향애환서사를 통하여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실로 그들은 민족문화, 민족정신의 수호신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신채호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시 「너의 것」은 대표적인 작품으로 주목된다.

너의 눈은 해가 되어/여기저기비치우고 지고/님나라 발가아지게//너의 눈은 꽃아 되어/여기저기 피고지고/님나라 고와지게//너의 숨은 바람되어 /여기적 불고지고/님나라 깨끗하게//너의 말은 불이 되어/여기저기 타고지고 /님나라 더워지게//살은 썩어 흙이 되고/빠는 굴어 돌 되어러/님나라 보태지게//

시에서 시인은 님나라 -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뜨거운 지향을 생동한 비유와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율조에 담아 진지하게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것처럼 귀중한 존재인 눈과 피, 숨과 말을 그대로 님나라—조국으로 하여금 더욱 밝아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더워지게 하는 해와 꽃, 바람과 불이 될 것을 갈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인은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님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과 뼈는 돌과 흙이 되어 님나라에 보태질 것을 희망한다. 시편에는

⁵³ 본 논문에서 인용된 신규식의 시문은 김동훈 외 편역 『신규식 시문집』(민족출판사, 1998)에 준함.

⁵⁴ 호미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이론』, 소명출판, 2002, 424-425쪽

민족 내지 조국에 대한 귀속감이 시적 정서의 울조를 타고 전해진다. 또한 시 「새벽의 별」에서도 시인은 새벽의 별이란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조국의 미래한 대한 지향과 민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새벽을 지켜 나선 별은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일거나 눈이나 비가 오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며 그것은 정녕 조국과 민족의 광명을 에워 오려는 빛이다. 새벽의 지향, 그것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유에 대한 염원이었으며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깨끗한 희망이었다. 신채호의 상기 작품들은 그가 기타 중국체 협서사에서 자주 이야기된 담론 즉 “국가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내라”, “애국자가 나라 밖에 다른 사랑이 있어도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정채성 담론의 시적 승화로서 “노화순정”(炉火纯青)의 심리회귀이고 영혼의 불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신채호는 이외에도 망향시 「1 월 28 일」, 「고국」 등에서 고향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생동하에 표현했었다.

망향애환서사 작품들은 또한 망명지사들의 문화무의식을 잘 보여주어 각별히 주목된다. 매개 민족에게는 집단무의식이 있거니와 이러한 집단무의식은 흔히 문화무의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문화무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는 신규식의 「홍암선생을 위한 추도문」은 주목된다. 작품은 대중교 교주인 나홍암의 죽음을 슬피 여겨 쓴 애환서사로서 시인의 문화무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 작품에서는 나홍암을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예찬하고 있다. 시인에게 있어서 나홍암은 민족정기를 타고난 전설적인 인물로 형상하고 있는 바 시인은 그의 출현을 두고 “태백은 아아하고 신조는 장중한데/ 폭풍뢰를 이끌고 세상에 내렸어라// 서울은 여럿이고 겨레는 수두룩한데/천부를 잡았으니 권위가 당당하도다”라고 한다. 시인은 나홍암을 태초 때부터 내려온 민족역사와 민족영웅과 연결된 인물로 보면서 겨레들은 그의 주위에 뭉쳐 싸운다고 한다. 또한 그의 위용을 두고 “유유한 이 세상에 오는 이는 그 누구뇨/아아한 삼위는 신광에 휩싸였구나//천경은 정초되고 신명은 발불혔으니/기린타고 상조하면 백신이 받든다네”라고 한다. 문화무의식은 한 개 민족의 신화에 대한 당대 담론으로 기억의 복술이며 그러한 복술은 민족적, 심리적 고뇌가 무의식으로 작동될 때만 가능하여 보인다. 상기 시인의 민족의식의 심층에는 문화무의식이 작동함으로서 불굴의 항일정신과 민족적 기백은 용암처럼 솟구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 망명인들의 망명애환서사는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의 미적정서를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항쟁의 울림은 민족의 한의 정서와 유착되어 있다. 한민족의 문학에 있어서의 한의 정서는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원인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동아시아 미학사에 있어서 한국인의 “한”과 중국인의 “원”, 일본인의 “애”는 물론 서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차이점으로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문학에서의 한의 정서는 신라향가, 고려가요, 그리고 이조 가사와 시조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현대에 있서는 본토시인들인 김소월, 박팔양 등 시에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망명지사들의 망향

애환서사에서도 나타났던 바 그것이 항일투쟁정신과 결합되었다는 점은 특히 주목된다. 한의 정서를 반영한 작품으로서는 신규식, 신채호 이두석 등 작품들에서 잘 보여진다. 망명지사들의 민족체험-특히는 망국노로서의 이역체험이 한으로 이어졌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특히 신채호는 자기의 필명을 무애생으로 했고 신규식은 자신의 필명을 청구한인으로 했거니와 필명에서조차도 한의 정서가 한결 두드러져 있다. 주요한 작품으로 신규식의 시 「태루를 돌아보며—검곡, 가인, 일주, 철아와 함께」, 「또다시 인제들과 함께 잔을 기울리며」, 「강서에서 배를 타고 청도로 가다—철아, 소창, 예봉이 나를 바래주다」, 신채호의 시 「1 월 28 일」, 「고향이 그리워」, 「임술년 가을 밤에」 등을 들 수가 있다. 신규식 시의 한의 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 잎은 지고 기러기는 울어대는데
 루각의 뜨내기는 가을 철이 서글프도다
 간밤에는 기러기 생각에 눈물 흘렸거니
 이역 땅에선 망명의 설음 가실 길이 없네
 삼시에 풍운이 일어 세상이 변하는데
 하늘 땅을 휘잡을 자는 그 누구더냐
 늙은 이는 정정하고 현자들은 홀룡한데
 피안의 횡류에 우리 배를 띄워 보자
 --신규식, 「또다시 인제들과 함께 시를 짓노라」

일제의 치하에서 망국노가 된 설음을 토로하면서 그러한 험악한 현실을 돌려 세우지 못하는 민족적 한을 토로하고 있다. 시 「태루를 돌아보면서—검곡, 가인, 일주, 철아와 함께 읊는다」는 시인이 꿈결에도 망명지사인 박은식, 홍명희 등을 그리보며 애환을 달랜 시이다. “때로는 행로에 놓인 잔도가 근심인데, 그대 그리며 꿈결에 어양을 찾았어라”라고 하면서 뜻을 같이 한 망명동인들의 어려움을 근심한다. “원수를 죽이지 못함은 나의 한이여니, 교만한 자의 간섭과 광분이 오래 못가리. 누각은 아늑하고 실바람이 불어오는데, 한가로이 글재주를 부림이 부끄럽도다”라고 하면서 일제를 철저히 제거하지 못한 한스러움을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신채호의 망향애환시들도 한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외로운 등잔불 바둑거리며 내수심을 돋우네
 안타까운 일편단심 다 태워 버리고저
 외로운 창을 들어 나라 운명 못 돌리고
 모지라진 붓을 가져 역사를 끄적이네

이역방랑 무릇 십 년에 서리발 수염에 흘날고
병석 신음 밤은 삼경에 달빛이 루에 드네
고향의 룡어회맛 하도 좋다 말을 말아
지금은 땅 없거니 어선을 어따매리
- 「임술년 가을 밤에」

시에서는 나라 잃은 망명인의 수심과 단심이 한의 정서속에서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상에서 망향애환서사의 특징을 정체성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정체성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등은 고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교차는 망명인들의 민족의식과 정감 표현의 시대적, 민족적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6. 경계의 넘기: 서사의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중국체험서사는 서사양식에 있어서도 문화혼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제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중, 다중언어 창작으로 중국, 한국 독자들의 요구에 따랐고 특히 주류사회 진출과 중국 진보적 인사들과의 공동담론과 상호 인지를 보여주었다. 창작에 있어서의 근대 한문과 국문의 병행, 현대 한문과 국문의 병행, 그리고 일본어 영어, 에스페란토어 등 언어의 창작 등이 다양하다. 이를테면 신채호는 고한문 창작과 국어의 창작을 병행시켰는데 중한 연대형성과 중국인들속의 영향을 고려하여 근대 한문으로 정론과 시문을 발표했고 국내독자를 고려해서 국문으로 수필과 시문을 창작했다. 또한 류자명의 경우에도 광주기행문 같은 것은 국문으로 써서 국내에 발표했는데 목적은 국내 독자들에게 급변하는 중국시국을 알리려는 데 있었고 소설 「조선혁명일사」, 그리고 다수의 정론은 중국독자를 고려하여 현대한어로 창작 발표했던 것이다. 특히 이두산⁵⁵의 경우는 국문, 현대한어, 일어, 영어, 에스페란토어 등 다중 언어로 창작했던 바 사회영향과 독자층을 면밀하게 고려한 것 같다. 예를 들면 가사는 한국인에게 불리워져야 하는 만큼 국문으로 창작했고 기타 시가, 수필, 정론 등은 현대 한문으로 창작했던 바 중국인들속의 영향을 고려했으며 일부 단평은 영어, 일어, 에스페란토어로 발표했는데 세계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 같다. 부동한 언어는 부동한 세계를 해석, 획득한다고 할 때 한국 망명문인들의 이중 언어, 내지는 다중 언어 창작은 이중 주체신분으로 중국의 혁명에 뛰여 들었던 문화적 신분과 관련되며 특히는 근대, 현대 한문창작은 중국의 주류사회에 뛰어들어 중국 지성인들과의

⁵⁵ 이두산은 한국어로 가사를 창작했고 중국어로 정론, 수필, 사론을 발표했으며 영어로 단평을 발표했고, 일본어로 반일선전 방송연설했으며 그것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동방전우』, 『조선의용대통신』 등을 참조)

교류를 가지고 주류담론을 형성해 가며 그 사회적 영향을 획득하려는 망명인들 특유의 선택이라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문학창작과 번역, 출간에 있어서 공동합작, 공동공연 등 새로운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범석과 푸나이푸의 공동서사 「한국의 분노(청산리 혈전실기)」는 독립운동가와 중국 작가와의 합작이고, 김산과 미국 님웨일즈의 공동서사 「아리랑」은 한국 독립운동가와 미국기자와의 합작이다. 상기 합작서사는 물론 이야기의 구술자와 문인의 합작이지만 특수한 전쟁의 년대의 투사와 진보적 문인사이의 공동지향과 상호 인지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 망명지사들의 삶, 그 자체가 문학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번역합작이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중국의 진보적 문인들을 크게 감동시켰고 번역 출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조선의용대의 항일서사의 중요한 작품인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 작품 외 다수 작품들은 조선의용대의 중국인 대원들의 번역을 통해 출간되었다. 그 주요한 번역자로 중국인 유금용, 왕계현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중한 연대로 이어진 중한 항일투쟁은 문학적 서사영역에까지 연대성을 체현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중국인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출판되었는 바 박은식의 「안중근전」의 출간을 위해 중국의 100 여명 문인들이 동참하여 서문, 비문, 독후감 등을 써 주었고 『유방집』에는 중국인 40 여명이 서문과 제사를 써 주었다. 이는 전대미문의 문단거사로서 근대 중국문단의 “일대 사변”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이와 함께 한국망명자들의 가극 연극 등을 무대화 시킴에 있어서 중국 예술기관과 예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협조를 받았는 바 조선의용대의 가극 「아리랑」, 연극 「조선의 딸」, 그리고 전지공작대가 서안에서 공연한 「아리랑」도 중국 예술인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무대화 시켰다. 따라서 중한 예술인들의 공동배역, 공동무대 설계, 공동음악 반주 등이 있었기에 그 공연이 크게 성공하였고 따라서 사회 각계 인사들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크게 확장할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서사주체의 다양성과 중국체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국체험서사의 경우 서사주체는 전문적인 문인군체가 아니라 다양한 서사사건과 내용의 직접적인 체험자들이다. 예하면 신규식은 신해혁명에 참가했고 류자명은 의열단 폭력투쟁의 조직자이며 신채호는 무정부주의 활동의 참가자이다. 이외 의용대 항일서사의 주체들인 의용대 선전원, 그리고 주요 작자들인 김창만, 이두산은 의용대의 골간인물이며 아리랑 창작의 한유한 역시 한국 청년공작대의 중견 예술인이며 조선유격대 항일서사의 주체는 역시 항일유격대 대원들이다. 타국 문인들과의 공동저자로 된 이범석 등도 독립투쟁, 항일투쟁의 체험자이며, 김산도 조선의열단 등 단체에 참가했고 중국공산당 지하활동의 인물이다. 이러한 서사주체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중국체험은 인물형상창조와 사상, 정서의 전달에 진실성, 생동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보면 무정부

주의에 대한 투철한 이해, 그라고 형상창조를 통한 무의식의 표현 등 작자의 사상과 영혼 및 심리의 문학적 승화를 잘 보여준다. 김산, 이두산의 관련 작품도 시대와 혁명에 대한 이해 등에서도 투철성과 심각성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서사양식의 변천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또한 서사양식에 있어서 인물전기로부터 시가, 소설, 산문, 희곡(가극, 연극) 등 장르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예하면 가령 망국 전후의 의사투쟁은 전기로 되었다면 의사폭력서사와 무정부주의 투쟁사사는 소설형식으로 되었다. 이러한 점은 문학적 상상력이 상당히 제고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항일투쟁서사에서의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를 보면 주로는 전선에서 보낸 르포(보고문학)의 형식을 보여주지만 그 외에도 수필, 일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한 면으로는 전시문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다른 한 면으로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선의 상황을 알릴 것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극, 연극의 새로운 형식이 성숙되었는데 항전문예를 통해 중국 국민에 대한 선전, 선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서방의 무대예술의 영향과도 관련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언어의 다중성, 공동서사와 번역협작 등 혼종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상기한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전제로서의 서사주체, 서사양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혼종성의 특징은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이상을 위한 문학적 실천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식민지 망명인들의 문학이 문화적인 혼종을 거쳐 주류담론에로의 진출과 새로운 민족문화창출을 동시에 완성한 좋은 예증이기도 하다.

7. 나오는 말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망명문학의 성격과 특징 등을 잘 보여준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제국주의 침략과 문화패권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반제 반식민지 저항문학이라는 데 그 성격적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담론을 통한 근대성, 항일담론을 통한 저항성, 민족담론을 통한 정체성, 평화담론을 통한 연대성, 탈경계 서사를 통한 문화혼종성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혁명서사는 중국인식을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상상을 보여주며 의사투쟁서사는 중국 경내에서 벌어졌던 한국 망명지사들의 항일구국투쟁의 역사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 특유의 민족정신을 중국에 전파시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안중근전」의 영향은 문학텍스트의 역할을 넘어선 전대미문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 등 항일투쟁서사 작품은 중국 국민군과 조선 의용대의 영웅적 항전 모습을 보여준 귀중한 텍스트이며 「혈애지창」 등 작품들은 사회주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한국인 항일무장대오의 성장과정과 항일투쟁정신을 보여 준다. 따라서 비록 부동한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을 구현하고는 있지만 조선의용대서사와 항일유격대서사가 보여주는 중한 연대의식은 근대 동아시아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평가된다. 망명애환서사는 정체성 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표출로 민족성을 잘 보여 준다. 이와 함께 탈경계 체험과 서사적 책략을 통해 얻어진 문화혼종성은 다중언어 서사, 공동서사(공동합작 창작, 공동합작 번역, 공동합작 공연) 등으로 특징된다. 서사의 문화혼종성은 망명지사들의 문학으로 하여금 주류사회와 문단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중국체험 서사는 한국의 항일문학사 내지는 근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을 뿐더러 중한 근현대 문학교류사 특히는 상호 탈경계서사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문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발굴과 비교문학적 연구가 깊이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훈 이선했 편, 『신규식 시문집』, 민족출판사, 1998
2. 『류자명자료집』, 독립운동편, 충주시 충주 mbc, 2006
3. 조소앙, 『유방집』, 대동학회, 1932
4. 김구, 『백범일지』, 나남, 2002
5. 『우등불』, 철기 이범석 장군 기념사업회, 백산서당, 1940
6. 염광(장지락), 「기괴한 무기」
7. 님웨일즈, 김산, 『아리랑』, 동녘, 1984
8.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9. 최봉춘 편역, 『朝鮮義勇隊血戰實記』, 밀양문화원, 2006
10. 『혈애지창』, 까마귀, 1938
11. 『밀림은 싸운다』, 까마귀, 1938
12. 김병민, 이춘광 주필, 『중국현대문학과 ‘한국’자료지총서』, 연변대학출판사, 2013
13. 『진단』, 진단보사, 1920
14. 최광식 역주, 『단재 신채호의 ‘천고’』, 아연출판부, 2004
15. 『조선의용대 통신』, 조선의용대 간행, 1939.1.21-1942.5 『조선의용대통신』은 제 34 기부터 『조선의용대』로 이름 고치였다.
16. 『조선민족전선』, 제 1 기-제 6 기, 조선민족 전선동맹 기관지, 류자명, 김규광 주필, 1938.4-1938.
17. 『동방전우』, 동방전우사, 이두산 주필, 제 1 기-42 기, 1939.1-1942.4
18. 『한국청년』, 제 1 기- 5 기, 한국 전지공작대, 1940
19. 김병민, 「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인식과 근대상상」, 『국어국문학』, 제 174 호, 2016.3.
20. 김병민, 「저항과 상상: 망명공간과 중국체험서사—류자명의 산문의 경우」, 『한국문학과 예술』 제 21 집, 2017.3
21. 김병민, 「조선의용대 관련 항일서사에 대한 문화적 고찰」, 『통일인문학』, 제 72 집, 2017.12
22. 김병민, 「중국 망명시기 예관 신규식의 의식세계와 문학상상」, 『호서문화』, 제 5 집, 2017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송 철 의
(서울대 명예교수)

1. 머리말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언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는 대체로 매우 점진적이어서 일반 사람들은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한편 어문규범이란¹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해 놓은 규정”인데, 이 어문규범은 어문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저절로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실 언어에 비해서는 고정적이다. 그래서 흔히 어문규범은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현실 언어는 변하는데, 어문규범은 보수적이므로, 어문규정이 제정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현실 언어와 어문규범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현실 언어의 변화를 어문규범에 어느 정도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이 어문정책 담당자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실 언어와 어문규범의 괴리는 한국어 교육자들에게도 고민스러운 일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불규칙 활용의 변화와 체언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현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2. 현행 한글 맞춤법과 역사적 표기

현행 한글 맞춤법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소소한 수정이 있었고, 1988년에 재정비 되면서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표기법의 근간은 여전히 그 대로 유지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것 중의 하나는 현실 언어와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표기(다른 말로는 ‘관습적 표기’)는 배제하고 언어 현실에 부합하는 표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즉 역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발음이 바뀐 것은 바

¹ 한국어 어문규범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편 발음대로 표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긔차’로 표기하던 것을 ‘기차’로, ‘셔울’로 표기하던 것을 ‘서울’로, ‘녀름’으로 표기하던 것을 ‘여름’으로, ‘도션’으로 표기하던 것을 ‘조선’으로 표기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도 역사적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않았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표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역사적 표기의 예로서는 [ㄷ]로 소리나는 것을 ‘ㅅ’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²(덧저고리, 무릇, 얼핏)과 소위 ‘ㅅ’불규칙 용언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짓고, 굿고)을 들 수 있다. ‘덧저고리’의 ‘덧’이나 ‘무릇, 얼핏’에서의 ‘ㅅ’ 받침은 늘 [ㄷ]로만 발음되기 때문에 ‘ㅅ’으로 적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들을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은 [ㄷ]로 발음되는 받침을 ‘ㅅ’으로 표기해 온 표기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현을 빌리자면 ‘在來의 버릇을 따라’³ 그렇게 표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18, 19세기의 한글 표기법에서는 받침 ‘ㄷ’을 ‘ㅅ’으로 적는 강한 경향이 있었다. ‘받고, 듣고, 믿고’를 ‘밧고, 뎡고, 밧고’로 표기했던 것이다.

ㅅ-불규칙 활용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될 당시에 ‘짓다’는 [진고, 진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발음되었다. 이러한 발음 현실을 바탕으로 표기를 하였다면 ‘짓다’의 활용형 표기는 ‘진고, 진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짓고, 짓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은 표기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문법서들에서는 ‘짓다’류를 ㅅ-불규칙이라고 명명하였다. ㅅ-불규칙 용언들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여기서도 표기의 전통, 혹은 표기의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용언의 어간말음은 현대한국어에서 어떤 경우에도 [ㅅ]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도 이들 용언어간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한 것은 이들 용언어간 말음의 받침을 늘 ‘ㅅ’으로 표기해 온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들 용언어간 말음을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ㄷ’으로 표기하게 되면 한국어에 ㄷ-불규칙 활용이 두 가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 용언어간 말음을 ‘ㅅ’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 발음대로 ‘짓다’를 ‘진다’로 표기하게 된다면 ‘진다’도 ㄷ-불규칙이 되는데, ‘듣다’와 같은 기왕의 ㄷ-불규칙과는 불규칙 활용의 양상이 다르므로 이 둘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 (1) 듣다 : 듣고 듣는 들으니 들어 들었다 (ㄷ-불규칙 1)
- 진다 : 진고 진는 지으니 지어 지었다 (ㄷ-불규칙 2)
- 믿다 : 믿고 믿는 믿으니 믿어 믿었다 (규칙 활용)

²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1장 제4절, 한글 맞춤법 제7항

³ 한글맞춤법통일안 제6항 참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전통적인 표기법과는 달리 현실 발음을 대폭 반영한 표기법이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말 표기를 현실 발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표기법의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라고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개화기부터 있었던 것인데,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마련한 주시경은 우리말을 현실 발음대로 표기하되, 문법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표기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혹은 표기법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물론 매우 타당한 생각이였다. 그렇지만 실제 맞춤법 규정을 만들 때에는 부분적으로 현실 발음을 따르지 않고 역사적 표기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3. 불규칙 활용의 변화와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불규칙 활용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논란거리의 하나였다.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마련한 주시경은 불규칙 활용의 경우 조차도 본음을 밝혀 어간을 고정시켜 표기하려 하였다. ‘추워, 지어, 우는, 흘러’를 ‘츄어, 짓어, 울는, 흐러’로 표기하려 하였던 것이다.

(2) 추워→츄어, 지어→짓어, 우는→울는, 흘러→흐러어

그리고서는 ‘츄-’의 ‘ㅄ’, ‘짓-’의 ‘ㅅ’, ‘울-’의 ‘ㄹ’은 실제로는 발음되지 않으니 까 그 ‘ㅄ, ㅅ, ㄹ’에 사선을 그어 이 ‘ㅄ, ㅅ, ㄹ’이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려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맞춤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규칙 활용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최현배도 최현배(1930)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현배(1934)에서 한국어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고서 불규칙 활용을 11가 지로⁴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8가지 만 언급하였다.

(3) 제3장 제4절 변칙 용언

- ① 어간의 끝 ㄹ이 ㄴ ㅂ 과 ‘오’ 우에서 주는 말 (‘ㄹ’불규칙)⁵
- ②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줄어질 적 (‘ㅅ’불규칙)
- ③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ㅎ’불규칙)
- ④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우에서 ㄹ로 변할 적 (‘ㄷ’불규칙)

⁴ 이때까지는 우-불규칙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⁵ 불규칙 명칭은 필자가 써 넣은 것임.

- ⑤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우에서 ‘우’나 ‘오’로 변할 적(‘ㅂ’불규칙)
- ⑥ 어미 ‘아’나 어간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 적(‘여’불규칙)
- ⑦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러’나 ‘렀’으로 날 적(‘러’불규칙)
- ⑧ 어간의 끝 음절 ‘르’의 다음에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올 적에 ㄴ가 줄고 르이 르르로 날 적(‘르’불규칙)

소위 으-불규칙 활용은 제5장 ‘略語’⁶ 부분에서 다루었다. ‘크--+어→커, 크--+었다→켰다’를 준말 형성으로 본 것이다. 거라-불규칙 활용과 너라-불규칙 활용은 하나의 활용형(해라체 명령형)에서만 문제가 되는 아주 특수한 것들이어서 맞춤법 규정 속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우-불규칙 활용을 처음 언급한 것은 박창해(1946)이었다(고영근 1983:69). ‘푸다’ 한 단어에 해당되는 불규칙 활용이라서 불규칙 활용 논의에서 간과되어 오다가 박창해(1946)에 이르러 발견이 된 듯하다. 최현배(1934)에서 11가지로 정리되었던 한국어 불규칙 활용에 우-불규칙이 추가됨으로써 불규칙 활용이 12가지로 늘어났다. 우-불규칙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한글 맞춤법’으로 명칭도 개정하면 서 그 내용도 수정 보완한 1988년에 이르러서야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었다. 맞춤법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가 아닌가 한다. ‘한글 맞춤법’에선 종래 ‘준말’항에서 다루었던 으-불규칙 활용도 불규칙을 다루는 조항으로 가져 왔다. 그리고 으-불규칙과 우-불규칙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다루었다.

(4)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4’ 어간의 끝 ‘ㄷ, ㅂ’가 줄어질 적

푸다 : 퍼 뒀다, 꼬다 : 꺼 졌다, 크다 : 커 졌다

한글 맞춤법과 현실 언어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그리다’류 동사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서들에서 불규칙의 종류는 대개 12가지라고 기술되어 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현배(1934)에서 제시된 11가지에 박창해(1946)에서 새로이 제시한 우-불규칙이 추가된 숫자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한국어에 또 하나의 불규칙 활용이 발생하였다. ‘그리다’류 동사들의 활용이 이에 해당한다. 규칙 동사인 ‘서다, 건너다’와 ‘그리다’의 활용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 서다 : 서고 서는 서니 서면 서 서서 섰다
- 건너다 : 건너고 건너는 건너니 건너면 건너 건너서 건넜다

⁶ 略語(약어) = 준말

그러다 : 그러고 그러는 그러니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랬다

‘서다, 건너다, 그러다’는 모두 어간이 모음 ‘ㄴ’로 끝나는 동사들인데, 위의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동사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될 때 ‘서다, 건너다’는 규칙 활용을 하지만, ‘그러다’는 규칙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라면, 그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의 활용형은 ‘그리, 그리 서, 그렸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다’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그러다’류를 무슨 불규칙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어간말음 ‘ㄴ’가 ‘ㄹ’로 바뀐다고 보고서 송철의(2004)에서 이들을 어-불규칙이라고 명명 하였다.⁷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다’류는 ‘그렇다’류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독자적인 단어들이다. ‘그렇다’류가 ‘그러하다’류로부터의 발달형이라면, ‘그러다’류는 ‘그리 하다’류로부터의 발달형이다. 다만, ‘그렇다’류의 발달과정은 어렵지 않게 규명되는데, ‘그러다’류의 발달과정은 그렇게 투명하지는 못하다는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한국어에서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그러다’류는 분명 독자적인 단어들이고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글 맞춤법’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법서들에서도 이 어-불규칙에 대한 언급은 최근까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는 아마도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러다’류를 독자적인 동사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도수희(1965)이다. 도수희(1965)에서는 ‘그렇다’류를 대형용사(代形容詞)로, ‘그러다’류를 대동사(代動詞)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동사로서의 활용을 보여 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이후 한국어의 대용언(代用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러다’류를 독자적인 용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배주채(1995)에서 ‘그러다’류의 활용 양상 및 사전적 처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에 이르러서는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항목으로 등재되고 이들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사실이 발음 항목에서 제시되었다⁸. 그러니까 ‘그러다’류는 1990년대에 와서야 그 독자성이 인정되고, 새로운 종류의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것이 인정된 셈이다. 사정 이 이러했으니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나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어-불규칙이 반영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어-불규칙도 ‘한글 맞춤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불규칙을 맞춤법 규정에 반영한다면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⁷ ‘그러다’류가 ‘어’불규칙이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것은 일본에서 1993년에 간행된 《朝鮮語辭典》(油谷幸利 外 編)이었다. 배주채(2003)에서도 ‘그러다’류를 ‘어’불규칙으로 설명하였다.

⁸ ‘그러다’ 항목의 발음정보 난에 ‘[그래, 그러니]’와 같은 활용형이 제시되었다.

(6) 어간의 끝 ‘ㄴ’가 ‘ㄹ’로 바뀔 적

그러다 : 그래, 그랬다

이러다 : 이래, 이랬다

저러다 : 저래, 저랬다

4.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와 표준 발음법

현재 한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이 단순화되는 변화의 큰 흐름이 있다. 즉, 어간말의 자음군(子音群)은 단자음(單子音)으로, 격음(거센소리)은 평음(예사소리)으로 단순화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단어에 따라서는 변화가 완료된 듯한 경우도 있다.

먼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경우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7) ㄹ : 닭, 흙, 칩

ㄹ : 여덟

ㄹ : 값

이들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에 모음조사가 결합되면 어간말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고, 자음조사가 결합되면 두 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8) 흙 : 흙이[흘기], 흙을[흘글] / 흙과[흑파], 흙도[흑또]

닭 : 닭이[달기], 닭을[달글] / 닭과[닥파], 닭도[닥또]

여덟 : 여덟이[여덜비], 여덟을[여덜블] / 여덟과[여덜과], 여덟도[여덜도]

값 : 값이[갑씨], 값을[갑쓸] / 값과[갑파], 값도[갑또]

서울말에서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에 자음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발음상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음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발음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모음조사가 올 때에도 두 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흙이’를 [흘기]로 발음해야 하는데 [히기]로 발음한다든가, ‘닭을’을 [달글]로 발음해야 하는데 [다글]로 발음하는 예들이 많은 것이다. 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속의 발음).

(9) 흙 : 흙이[히기], 흙을[히글]

닭 : 닭이[다기], 닭을[다글]

여덟 : 여덟이[여더리], 여덟을[여더를]

넋 : 넋이[너기], 넋을[너글]

값 : 값이[가비], 값을[가블]

위의 (9)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어간들이 단자음을 가지는 어간으로 변화(재구조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0) 닭>닥, 흙>흑, 여덟>여덜, 넋>넉, 값>갑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는 어간말음이 격음인 경우에도 일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ㄷ’은 ‘ㄱ’으로, ‘ㄲ’은 ‘ㄴ’으로, ‘ㅌ’은 ‘ㄷ’으로 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간말음이 격음인 체언의 예들을 몇 개씩 들어 보면 다음 과 같다.

(11) ㄷ : 부엌

ㅌ : 걸, 밀, 발, 술, 팔

ㄲ : 무릎, 숲, 앞, 옆, 오지랖, 잎, 형겅

ㅌ : 꽃, 낮, 돛, 뗏, 빗, 솟, 옷

이들 체언어간에 모음조사가 결합되면 어간말음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12) 부엌 : 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클]

술 : 술이[소치], 술을[소틀]

무릎 :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꽃 : 꽃이[꼬치], 꽃을[꼬출]

어간말음이 격음인 체언의 경우에도 자음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발음상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음조사와 결합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모음조사와 결합할 때 (12)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인데,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 부엌 : 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술 : 술이[소시], 술을[소슬]

무릎 :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꽃 : 꽃이[꼬시], 꽃을[꼬슬]

위의 (13)과 같이 발음하는 것은 ‘부엌, 솥, 무릎, 꽃’이 각각 ‘부엌, 솥, 무릎, 꽃’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4) 부엌>부엌, 솥>솥, 무릎>무릎, 꽃>꽃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들의 변화와 같은 성격의 변화이다. 두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줄어드는 것이나 격음이 평음으로 변하는 것은 다 같이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변하는 변화(단순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들이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어간말음을 가진 단어들이라도 단어에 따라 변화의 정도는 다르다. 예컨대 어간말음이 ‘교’인 ‘무릎, 오지랴, 앞, 옆’의 경우 ‘무릎’과 ‘오지랴’는 ‘무릅’, ‘오지랍’으로의 변화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만, ‘앞, 옆’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2004년도의 조사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무릎	: 무릎이[무르비] 58.4%,	무릎에[무르베] 63.1%
오지랴	: 오지랴이[오지리비] 74.7%,	오지랴에[오지라베] 65.25%
앞	: 앞이[아비] 5.6%	앞에서[아베서] 5.4%
옆	: 옆이[여비] 7.15%	옆에서[여베서] 5.35%

‘앞, 옆’에 대한 최근의 조사결과 보고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서울말에서는 ‘앞이’를 [아비]로 발음하거나 ‘옆이’를 [여비]로 발음하는 경우가 아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과 ‘옆’은 거의 변화를 입지 않은 것이다.

한국어의 체언어간은 근대한국어 시기(17세기-19세기)에 이미 어간말 ‘ㄷ’이 모두 ‘ㅅ’으로 변하는(‘ㄷ’말음 어간이 ‘ㅅ’말음 어간으로 변화되는) 큰 변화를 겪은 바 있다.

(16) 못(釘)>못, 붓(筆)>붓, 벗(友)>벗, 곳(處)>곳

이러한 변화는 ‘ㄷ’ 받침을 갖는 체언의 모든 단어에서 예외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어에는 체언으로서 어간말음이 ‘ㄷ’인 단어가 없다. 그래서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에도 어간말음이 ‘d, t’인 단어를 음차(音借)하여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d, t’를 ‘ㄷ’이나 ‘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robot’을 ‘로봇’이나 ‘로봣’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봣’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로봇이[로보시], 로봇을[로보슬]

근대한국어 시기에 어간말 ‘ㄷ>ㅅ’ 변화를 겪은 한국어 체언은 현대한국어 시기에 와서는 어간말 자음의 단순화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체언어간

에서만 나타나고⁹ 용언어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자립형식인 체언어간과 비자립형식인 용언어간은 역사적인 변화에서도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5.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정책

앞에서 한국어 불규칙 활용의 변화 몇 가지와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한국어가 현대에 들어 와서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한국의 어문규범이 제정된 뒤에 나타난 변화들이어서 어문규범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이들 변화 중에 어떤 것은(예컨대 어-불규칙이 새로 생겨난 것) 어문규범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그 변화가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같은 경우,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이므로, 이 동사가 모음계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아직은 맞춤법 규정 속에 그런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이 동사의 모음계어미 활용형을 ‘그래, 그래라, 그랬다’와 같이 표기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규범에 따른 표기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언젠가 어문규범(한글 맞춤법)에 반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어문생활에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어문규범에는 해당 규정이 없지만, 언중들이 암묵적으로 현실 언어 상태를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체언어간 발음이 단순화되어 가는 변화는 어문규범에 받아 들이기가 어려워서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표준발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언중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 변화까지를 어문규범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언어현실을 받아들여 ‘닭, 흙’을 ‘닥, 흑’으로 표기하기로 하고 ‘부엌, 무릎, 솥, 꽃’을 ‘부익, 무릅, 솟, 꽃’으로 표기로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어문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¹⁰.

현실 언어의 변화를 어문규범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어문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늘 고민일 수밖에 없다.

⁹ ‘ㄷ>ㅌ’ 변화는 부사 ‘몰’에서도 일어났다. 몰>몰

¹⁰ 예외적으로 이러한 변화(체언어간말 자음의 단순화)를 발음상으로는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 ‘츠, 크, 트, 프’의 자모 이름에 모음 조사가 결합될 때 다음과 같이 발음하도록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치읓이[치으시], 키읓이[키으기], 티읓이[티으시], 피읓이[피으비]

6. 언어 변화와 한국어 교육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언어를 외국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표준어를 가르친다. 표준어는 온 국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면서, 인위적으로 잘 다듬어진 언어이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역시 그 외국어의 표준어를 배우려고 한다. 그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는 언어는 표준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준어란 규범에 맞는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도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한국어의 표준어를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고,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도록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어 교육에서 표준 발음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흔히 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다음의 (17ㄱ)이나 (18ㄱ)과 같이 발음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17ㄴ)이나 (18ㄴ)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육 현장에서도 자신은 표준발음법대로 발음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입에 익은 평소의 발음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듯하다. 필자가 스스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17ㄱ) 흙이[홀기], 흙을[홀글] (17ㄴ) 흙이[흐기], 흙을[흐글]
 닭이[달기], 닭을[달글] 닭이[다기], 닭을[다글]

(18ㄱ)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클] (18ㄴ)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꽃이[꼬치], 꽃을[꼬출] 꽃이[꼬시], 꽃을[꼬슬]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발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말과 발음도 스스로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어 교육에서 현실 한국어(자연스러운 일상의 한국어)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할 것인지, 주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런 정보를 준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주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어떤 분의 회고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닭이, 닭을’, ‘무릎이, 무릎을’, ‘꽃이, 꽃을’의 발음을 열심히 ‘[달기], [달글]’, ‘[무르피], [무르플]’, ‘[꼬치], [꼬출]’로 가르쳤는데, 서울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더니 ‘[다기], [다글]’, ‘[무르비], [무르블]’, ‘[꼬시], [꼬슬]’로 발음하면서 서울에 갔더니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게 발음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04), 《2004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 국립국어원(2016),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 도수희(1965), {그러나,그리고.../그러니,그러면...} 等 語辭攷, 《한국언어문학》 3, 한국언어 문학 회.
- 박창해(1946), 《쉬운조선말본》, 계문사. (역대한국문법대계 1-65)
- 배주채(1995), ‘그러다’류의 활용과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 (남학 이종철 선생 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송철의(1995),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진단학회.
- 송철의(1996), 우리말 발음의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한글사랑》 창간호, 한글.
- 송철의(2004), ‘ㅎ’불규칙과 ‘어’불규칙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조선어연구》 2, 조선어 연구회 (일본).
-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유플채(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희승(1959), 《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수정판), 신구문화사.
- 정경재(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선어학회(1933), 한글맞춤법통일안, 한성도서주식회사. (한국역대문법대계 3-20)
- 최명옥(1988), 불규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 li-, lo-, ɛ(jə)-, h- 불규칙동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4-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조선어문연구》 (연희전문학교 문과연구집 제 1 집), 연희 전문학교출판부. (한국역대문법대계 1-44)
- 최현배(1934), 《중등조선말본》, 동광당서점.(한국역대문법대계 1-43)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초판), 연희전문학교출판부.
- 최현배(1955), 《우리말본》 (김고 고친 판), 정음사.
- 한수정(2014), 불규칙용언의 활용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油谷行利 外 編(1993), 《朝鮮語辭典》, 小學館.

유럽 (대학 전공)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미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연재훈 (Yeon, Jaehoon) ([jy1@soas.ac.uk](mailto: jy1@soas.ac.uk))
런던대학교 소아스
(SOAS, University of London)

1. 들어가기

- 언어를 배우는 목적 (Cook 2008: 209ff)
 - 외국 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foreign cultures)
 - 언어 자체의 이해 (Understanding language itself)
 - 인지적 훈련 (Cognitive training)
 - 일반 교육적 가치 (General education values)
 - 학문으로서의 외국어 학습 (Learning the foreign language as an academic subject)
- 교사는 언어 교수와 학습 목적 숙지해야.
- 교수방법과 교과과정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 언어교육에 대한 기본적 가정 (Cook 2008: 4ff)

- (1) 전제 1: 교육의 기본은 글말이 아니라 **입말**이다.
- (2) 전제 2: 교사와 학생은 교실에서 제1언어(모어)가 아닌 **목표어**를 사용해야 한다.
- (3) 전제 3: 교사는 **명시적인 문법 설명은 피해야** 한다.
- (4) 전제 4: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를 **원어민화자**처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전제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 의사소통교육 vs. 문법교육

- 명시적 문법 교육도 1970-80년대 '의사소통 교육'의 위세에 눌려 변방으로 밀려 났다가 1990년대 '**형태중심교육**' (focus on form)이란 이름으로 부활.
- '문법'이란 용어는 아직도 **금기어**처럼 취급받고 있고 문법을 가르치더라도 문맥 속에서 가르치든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암묵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명시적 문법** 교육도 대학의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 또 외국인 학습자가 **원어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며 또한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 국어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차이

(a) 한국어문법은 단일한 문법 형태소뿐만 아니라 특정한 **유형, 문형, 덩어리**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어/아)서 : -는 바람에, -기 때문에, -는 통에; -려고 하다, -(으)ㄴ 수 있다, 등등)

(b) 한국어 문법은 형태 중심의 문법이 아니라 **의미/기능 중심**의 문법이 될 수 있다.

(기능중심의 한국어문법 체계 (한송화 2006))

(c) 한국어 문법은 분석적인 문법이 아니라 **종합적인 문법**이 될 수 있다.

(예: 관형형 어미 -ㄴ, -ㄹ : -는, -(으)ㄴ, -(으)ㄹ, -던;

보조동사: -을까 보다; 연어: -을 위해, -에 대해(서))

(d) 한국어 문법은 세부적인 면에서 **단순화된 문법**이 될 수 있다.

(예; 1. '-게 하다' 구성: 보조동사 or 복합문 동사

2. 종속절이냐 부사절이냐의 구별,

3. 내포문의 종류와 구분 등 중요하지 않다!)

2. (유럽) 대학 한국어 교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 유럽의 한국어 교육은 전통적으로 대학의 **전공과정**으로서 개설되어 왔고 그 역사도 아주 길다.

- **학문 목적**으로 개설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는 **실용적 한국어 교육 과정과는 다른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1) 언어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언어 교육의 목적.
- 한국학 전공 연구를 위한 도구 기능이나 통/번역 등이 학과의 특성상 중요시된다면 이에 따라 교육 방법과 중점이 달라질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언어는 **체계, 행위, 문화**의 3가지 측면이 어우러져 이루어지고 교육되어야 한다.

(2) 언어 교육의 요소: 구조적 지식 (문법)도 필요한가?

- 의사소통 교수법에서는 구조적 지식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지만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구조적 지식 필요**.
- **정확성과 숙달도** 달성을 위해 문법 교육 필요. 다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중요하다. 외국어로서의 문법은 간결하고 학습자의 교육 배경과 학습 능력을 고려해야.
- 문법 설명은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
- 문법 교육은 연역적 방법보다는 **귀납적 방법**이 효과적이다.

(3) 교실 학습에서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칠 것인가?

(주어/목적어, 자동사/타동사, copula, 관계절 등등)

대상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가 성인일수록, 또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국어 학습에서 문법용어를 사용한 문법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문법용어를 사용한 교육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학습자일수록 문법용어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org 1999: 99).

(4) 교실에서 학습자의 모어 사용 문제

외국어 교실에서는 목표어만을 사용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문법이나 개념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학습자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5) 유형 연습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가?

유형연습은 구두-청각식 교육방법의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여겨지지만, 교실 언어 수업에서 여전히 유용하고 필수적인 연습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연습 방법들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6) 번역 연습은 필요한가?

번역 연습도 의사소통 방법론에서는 보통 기피하는 연습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인지 능력이 발달한 성인 학습자에게 번역 연습은 축지법적인 효과.

(7) 암기는 언어 학습에 효과가 있는가?

- "주입식이나 공식적으로 '배워진' 지식은 '습득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사용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암기는 모든 언어 학습의 기초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최승자 2016 등).

(8) 학습자의 실수와 오류는 바로 고쳐 주어야 하는가?

- 여기에도 정답은 없다. 오류 수정의 방법이나 빈도는 학습자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9) 교과과정(syllabus)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 문법 위주의 교과 과정에서는 단계별 지식 축적식의 방법이 이용되고, 행위나 과제 중심 교과 과정에서는 문법 소개의 단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교수법에 따라서 교재의 특성이 차이를 보인다.

(10) 한국어 **표준발음**을 얼마나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혹은 바람직한가? (Cf. English RP)

- 미세한 발음의 차이나 음운의 변별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문맥에서 예측 가능하다. 특별히 어려운 발음의 음운 변별쌍을 가지고 모어 화자 같은 발음 연습을 강요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적이지 않다.
(예; 불:풀:뿔 등의 최소변별쌍)

- 학생들에게 개별적 음소에 대해서 발음을 가르치고 교정해 주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쿡(2008:81)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11) **어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네이션 Nation 2001: 16)

- 직접 학습법(설명, 정의, 사전 찾기 등)과 간접학습법(문맥, 활동을 통한 습득) 등 다양한 방법.

=====

*어휘학습과 관련된 근거없는 믿음 (myth) (Folse 2004)

신화 1: **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신화 2: **의미장**(semantic sets)으로 단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

신화 3: **단어 번역** 학습은 지양해야 한다.

신화 4: **문맥 추론** 방식이 효과적이다.

신화 5: **단일어사전** (monolingual) 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실험 결과는 이러한 믿음들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cf. Iwasaki (in press))

(12) 언어 교실에서 **문화 교육**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강현주 2014, 배재원 2011, 박정미 2015, 최준식 2012 등 참고)

- 문화교육은 언어 교육을 통해서 **암묵적/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

- 문화 내용 전달에 치중하여 언어 교육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언어교육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점에 주의.

- **객관적이고 문화 보편적** 자세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문화 민족주의나 근거 없는 문화 우월주의, 혹은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전통 한국 문화를 과도하게 많이 소개하는 것은 거부감 유발.

- 문화교육을 위해 **문화 교수요목을 초급-중급-고급으로 분류** 기술하는 방법도 얼마나 논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깊이 있는 문화 수업은 언어 수업과는 별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2.1. 효과적인 언어교육 (Littlewood 2013)

1. **절충적** 방식
2. 의사소통적 방식과 기술을 전통적 방식에 **통합**
3. **목표어**를 많이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의미/기능**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시
5. 학습자의 **자연적** 학습기회 중시
6. 학습자의 **무의식적/자동적** 학습뿐만 아니라 **의식적** 지식도 중시
7. 학습자의 **개인적** 차이도 중시
8. 규칙뿐만 아니라 **숙어 표현** 등도 중시
9. 학습자의 **모어**를 교실에서 학습의 자원으로 사용

- 결론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한국어 교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학습 방법으로는 문법 설명과 번역, 묻고 답하기를 통한 유형 연습, 유형 연습을 통한 언어습관 형성, 행위나 과제 수행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 습득 등 다양한 방법을 **절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보통 대학 전공 과정의 일환으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학문 목적으로 배우는 대학생 학습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절충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교수법과 교재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적절한 교재 선택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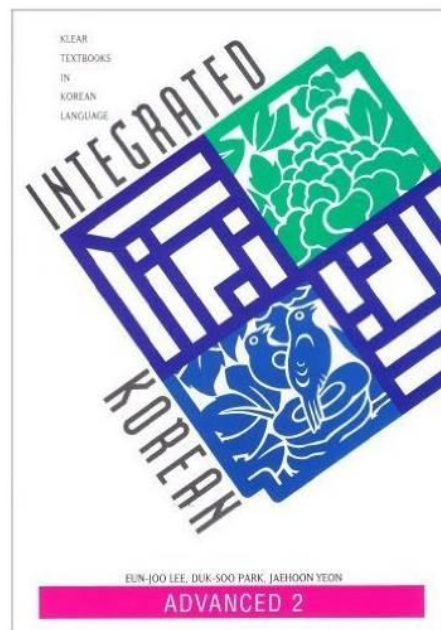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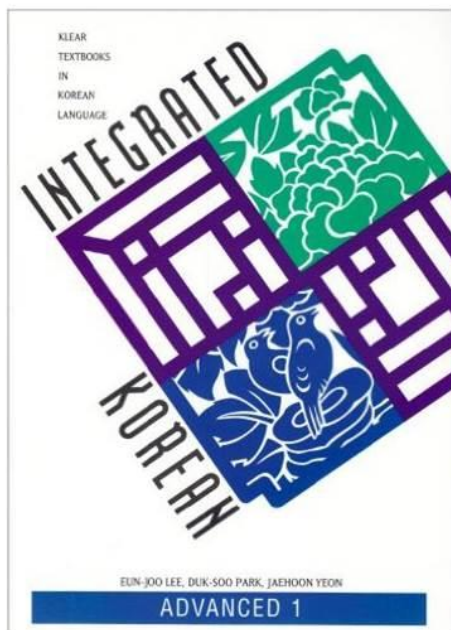
1. 충분한 문법 구조 설명 부족
2. 현지어 교재 부족
3. 다양한 목적을 위한 교재 개발 필요

- 완벽한 교재는 없다.
- 학생의 수용와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고 보충하는 것이 교사의 능력

3.1. 필자가 집필한 영어권 한국어 교재

- **Integrated Korean** (Advanced 1, 2) (Lee, Park and Yeon) 2005. (UHP)
- **Elementary Korean, Continuing Korean, Advanced Korean** (King & Yeon et. al) 2000/2002/2015. (Tuttle)
- **Complete Korean** (Vincent & Yeon). 1997/2014. (TY series)
- **Get Started in Korean** (Yeon, J). 2014. (TY series)
-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Yeon & Brown) 2011. (Routledge)
- **Routledge Intermediate Korean Reader** (Yeon, Kiaer, & Brown). 2013. (Routledge)
- **Speed up your Korean: Strategies to avoid common errors** (Brown & Yeon). 2016. (Rout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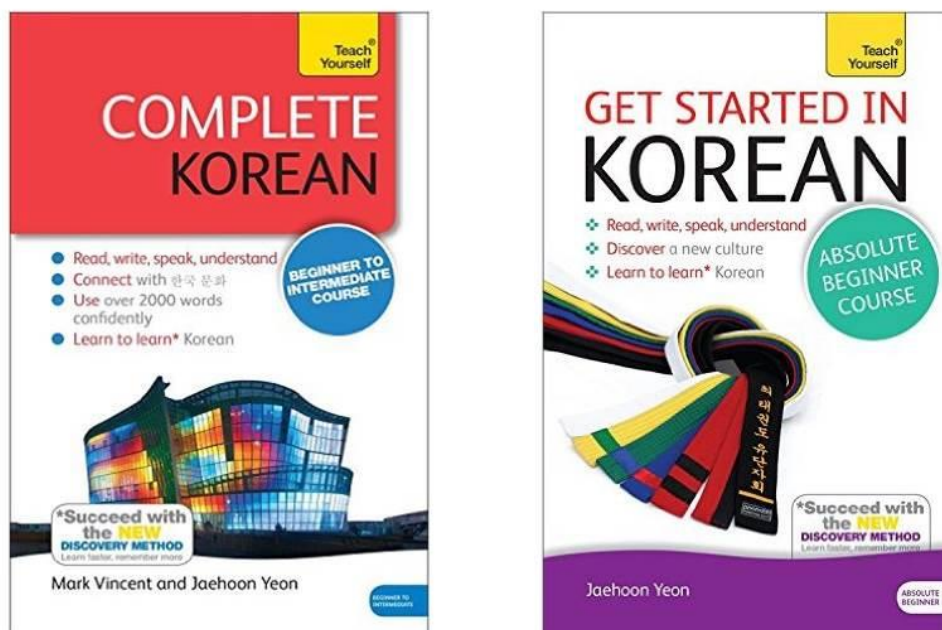
Integrated Korean (Advanced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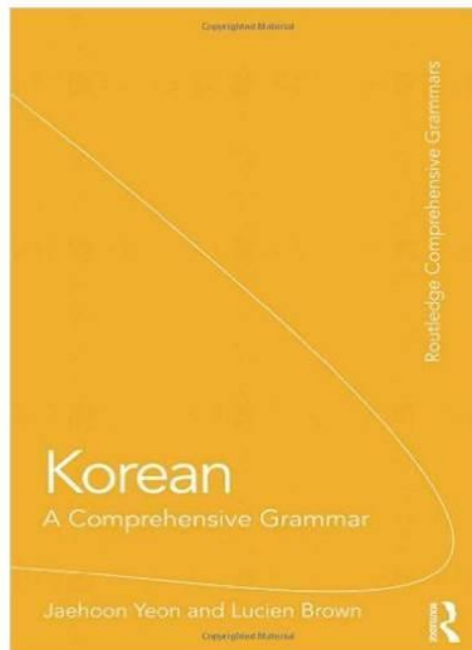
Elementary/Continuing/Advanced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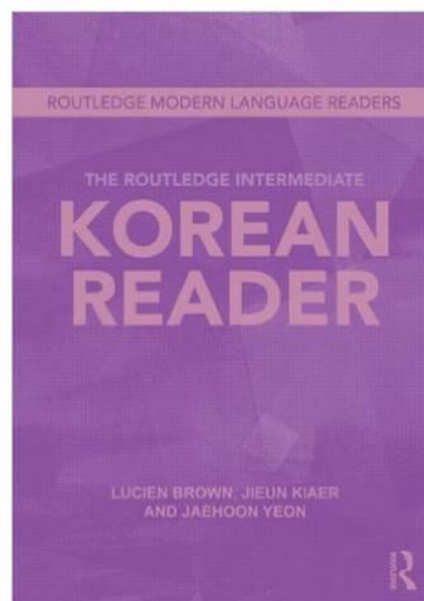
Complete Korean/ Get Started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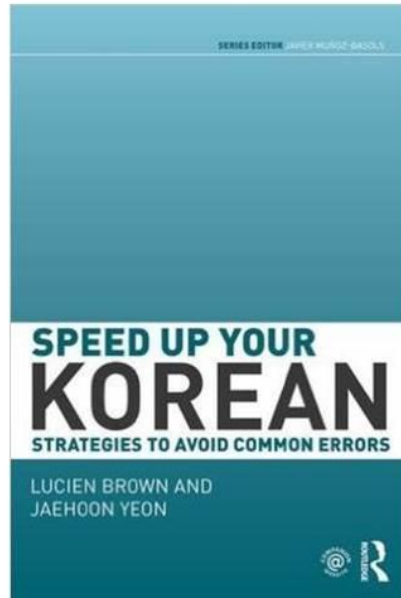
Korean: A Comprehensive Korean



The Routledge Intermediate Korean Reader



Speed Up Your Korean: Strategies to avoid Common Errors



3.2. 교재를 만들면서 고려할 사항들

1.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지역**에서 사용할 교재인가?
2. 언어 교육이 목적인가, **문화 교육**도 포함시킬 것인가?
3.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4. 대화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인가, 체계적인 **구조 문법** 중심인가? 혹은 **과제 중심**인가?
5.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칠 것인가?
6. 처음부터 **한글**을 가르칠 것인가?

7. **단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8. **순서** 및 **배열**의 문제:
 - 8.1 빈도수
 - 8.2. 축약형(입말)과 원형(글말)
 - 8.3. 격식(합니다)체와 비격식(해요)체
 - 8.4. 반말의 도입
 - 8.5. '이다' 동사와 일반 동사
9. 동사의 소개와 **불규칙 동사**의 접근 방법
10.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문제
11. **여러 가지 형태가 비슷한 의미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서", "-니까",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

***한국어 교재에서 존대말/반말 사용의 문제 (Brown 2010)**

1. 제한된 사회적 문맥만 제시: 대화의 60%
이상이 친구 사이의 대화. 다양한 상하관계의
대화 환경 부족.
2. 교재 대화는 대부분 존대말 (87.6%): 해요체
(59.3%), 합니다체 (28.4%) → 실제상황과 괴리
3. 반말체 부족: 대부분 중급 단계에서 도입, 한
두과에서 소개.

4.1. 유럽 대학의 한국어 교육 개관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유럽 대학교> (2016년 현재): 약 25개국, 60여개 대학

독일(9), 프랑스(8), 영국(5), 이태리(3), 스페인(3), 폴란드(3), 터키(3), 체코(2), 헝가리(2), 핀란드(2), 오스트리아(2), 루마니아(2), 아르메니아(1), 아제르바이잔(1), 벨기에(1), 불가리아(1), 덴마크(1), 조지아(1), 아일랜드(1), 리투아니아(1), 마케도니아(1), 네델란드(1), 슬로베니아(1), 스웨덴(1), 우크라이나(1),

4.2. 영국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에 대한 전반적 검토

- 영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북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비해서 개설 대학의 숫자나 수강 학생의 숫자에 있어서는 적지만, 한국학이 단독 **학위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런던대학 **소아스**, **세필드** 대학에서는 한국학 학사, 석/박사 학위가 주어지고, **센트럴 랑카셔** 대학에서는 학사 학위,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한국학 석/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4개 대학 중, 런던, 세필드, 센트럴 랑카셔 대학 등 3개 대학이 학위 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1년 동안 한국 대학에서의 언어 실습 과정을 요구.

- 영국은 한국 이민의 역사가 북미 대륙만큼 오래지 않은 관계로, 영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북미에서와 같이 학생의 다양성이나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계승어 학습자와 비계승어 학습자 사이의 수준 차이 문제는 없다**. 영국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80% 이상이 영국 및 유럽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성에서 오는 문제는 없다.

1. 영국 내 **표준 교육과정**이 있는가?

- 영국이나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 국가의 관여나 **국가주도의 표준 교육과정 제정에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
-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재, 교육 방법 등은 학생과 교육 현장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현장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2. 교수학습 원리

- 구조주의 언어학에 근거한 구두 청각 교수법과 다양한 교수법을 통합한 '**절충적 통합 교수법**'
- 필자가 아는 한 온전한 의사소통중심/과제 중심 교수요목에 근거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나 교재 개발은 아직 없다.
- 런던대학의 한국어 교과과정은 문법 교육 없이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

4.3. 유럽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정리

- 유럽 지역 대학들의 한국어/학 교육의 **역사**는 매우 길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2000년 개설)이나, 이태리, 스페인 등을 제외하면 유럽 주요국가들의 한국학 역사는 1960년대 길게는 1940년대까지.
-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대학에 **전공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어 깊이 있는 교육.
- 한국 대학과의 **교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많다. 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한국학 전공을 위한 문법-독해 중심의 과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대학의 교환과정이나 한국인 파견 교수의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식 교육 방법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법 구조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초급 과정의 **교재**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교재와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재를 병용하는 대학들이 많고, 중급 이상의 과정에서는 각 대학 별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재로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의 교과서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한국어 **교수진**은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한국인이 많지만, 독일과 동유럽 등 그 외 유럽 지역은 현지인 교수의 책임 아래 한국인 시간 강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강사진의 전공은, 언어학이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역사나 문학, 정치 등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5.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

- 1990년대 이후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라는 슬로건 등장
- 한국어 사용인구: 12-13위,
-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의 순위??
- 지난 10년 사이 TOPIK 응시인원 증가: 비자 취득의 필수 조건. 서양의 응시 인구는 아직도 소수.
- 서양 대학에서 한국어: 아직도 **one of less widely taught languages**

The ten most used internet languages today

(C. Kim 2015:66):

- 1) English: 55.7%
- 2) Russian: 6%
- 3) German: 6%
- 4) Japanese: 5%
- 5) Spanish: 4.6%
- 6) French: 4%
- 7) Chinese: 3.3%
- 8) Portuguese: 2.3%
- 9) Italian: 1.8%
- 10) Polish: 1.7%

.....

18) Korean (Hangul): 0.4%

5.1. 한글의 세계화?

- 찌아찌아 사람들(인도네시아 부탄섬)의 한글 사용?
- 왜 로마자가 아니라 한글인가?
- 한글은 외국어를 표기하기에 완벽한 글자인가?
- 한글로 표시할 수 없는 영어의 소리:
 - /p/ : /f/ : /v/ -- pan : fan : van
 - /s/ : /z/ -- seal : zeal
 - /θ/ : /th/ -- thank : this
 - /l/ : /r/ -- light : right etc.
- 한글세계화의 윤리적 문제 (김진우 2015)

한국어는 국제어나 세계어는 아니지만 외국어로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The top languages studied in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2013

	Language	Enrollments	Change since 2009
1)	Spanish	790,756	-8.2%
2)	French	197,757	-8.1%
3)	American Sign Language	109,577	+19.0%
4)	German	86,700	-9.3%
5)	Italian	71,285	-11.3%
6)	Japanese	66,740	-7.8%
7)	Chinese	61,055	+2.0%
8)	Arabic	32,286	-7.5%
9)	Latin	27,192	-16.2%
10)	Russian	21,962	-17.9%
11)	Greek, Ancient	12,170	-35.5%
12)	Hebrew, Biblical	12,551	-8.7%
13)	Portuguese	12,450	+10.1%
14)	Korean	12,229	+44.7%
15)	Hebrew, Modern	6,698	-19.4%
16)	Other languages	40,059	-2.6%
=====			
	Total	1,562,179	-6.7%

5.2.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한 요인들

- 1) 한국문화의 인기 (한류, 케이팝 등)
- 2) 동북아시아와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
- 3) 한국정부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지원
- 4)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 장려 정책
- 5) 한국인의 역동성

5.3. 문제점과 제안

- (1) 한국 정부의 지원은 증가했지만 아직도 부족
- (2) 세종학당 예산 부족
- (3) 한류, 케이팝 보급 등 문화 교육/전파는 중립적이고
젊잖게: 국가홍보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
- (4) 애국주의를 넘어서야: 대학의 한국학과는 한국 홍보
단체가 아니다.
- (5) '한국어 세계화' 등 비현실적 구호보다는 꾸준한 연구와
교육, 지원 필요.
- (6) 의사소통방식, 과제중심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지만 정확성을 위한 문법교육에 오면 내실있는
교육이 부족한 듯: 문법구조 교육도 필요.

6. 당면 과제

(1) 한국어 연구와 교육의 차세대 양성 문제

-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차세대 유럽 현지인 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 (응용) 언어학 분야의 박사
연구생들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어학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전임교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 교수직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한국어학 교수직 설치:

- 현재 한국어학 교수 자리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고
언어교육은 강의 전담 교수들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세대 유럽
현지인 연구자를 위한 조교수직 설치와 현지 대학의 지원을 당분간
확대해야 한다. 한국어학 교수직이 개설되었을 때 그 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이나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연구
업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자가 있어야 한다.

(3) 한국학 내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치 문제 및 언어교육자의 지위 문제

- 한국학 안에서 한국어학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학 전임 교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강의 전담 교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은 석/박사 과정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언어 교육자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독자적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 증가

- 한국학 연구의 기반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어 학습만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대학 내에서 한국어 디플로마 코스 등 개설, 세종학당이나 한국문화원에서 집중 한국어 프로그램 개설.

(5) 한국어 교재 문제: 현지어로 된 한국어 교재의 부족

-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현지 한국어 교재는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되었지만, 독일어, 프랑스어, 폴란드어를 제외한 다른 유럽 학습자들을 위한 현지어 교재들은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현지어로 된 한국학 및 한국어 교재를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한국학 분야별 연구자의 질적-양적 성장의 문제

- 연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적정인원’ (critical mass) 확보 문제를 고민할 단계. 물론 과거에 비해 한국학 연구자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지만, 중국학, 일본학과 더불어 동아시아학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한국학의 양적 질적 수준은 아직도 현격한 차이. 중국학, 일본학에 견줄 수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의 질적-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7) 한국학 분야별 균형의 문제:

사회과학 및 인문학, 인문학 내에서 역사 및 문학 및 어학, 전근대 및 근대 역사/문학/언어, 고전문학 대 현대문학의 균형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국학의 분야별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북미 한국학과 유럽 한국학의 전통이나 현황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유럽은 북미에 비해서 사회과학 전문가들의 수요가 부족하고, 반면 전근대 역사 전문 연구자들이 북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8)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이론과의 갈등

유럽 대학에서 한국학은 보통 지역학으로 개설되어 있고, 가끔 사회과학, 언어학 등 이론 학문과 방법론 등에서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학과 이론 학문의 긴장 관계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유지하면서 한국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9) 학부 과정 전공 학생 수의 문제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 전공 학생들의 숫자가 충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학문적인 접근과 노력뿐만 아니라 한류나 케이팝 등 대중문화의 인기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국학의 관심을 유지하고 선도해 나갈 필요.

(10) 한국 문화 교육과 전파의 문제: 점잖고 문화 중립적 태도 유지. 한국학과는 한국 문화 홍보 학과가 아니다.

References

- Brown, Lucien. 2010. Questions of appropriateness and authenticity in the representation of Korean honorifics in textbooks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Culture & Curriculum* 23/1: 35-50.
- Choi, Seungja. 2016. A New Paradigm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2, No.1.
- Cook, Vivian 2008.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Fourth Edition). London: Hodder.
- Folse, Keith S. 2004. Vocabulary myths: Applying second language research to classroom teaching.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Iwasaki, Noriko. In press. L2 Vocabulary Teaching: Debunking Pervasive Myths.
- Kim, Chin W. 2015. Three notes on globalisation of hangul. Proceedings of 12th ISKS Conference.
- Kim, Minju. 2000. What you did not learn in the classroom but what you will hear frequently in real conversations.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5: 317-329.
- Kim, Suhee. 2005. Korean language textbooks in America [in Korean]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1. Seoul: Hankwuk Munhwasa.
- King, Ross. 2005. Korean grammar education for Anglophone learners.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2. Seoul: Hankwuk Munhwasa.
- . 2007.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language: Preliminary thoughts. ms.
- Littlewood, W. 2013. Communication-oriented language teaching: Which way ahead? http://www.eltschina.org/wzw/kindeditor/attached/file/20130725/20130725112633_3073.pdf
- Nation, I.S.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UP.
- Sohn, Homin. 2005. Tasks and development direction in Worldw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n]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1. Seoul: Hankwuk Munhwasa
- Wang, Hye-sook. 1999. Speech Act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Representation and Authenticity.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0/1: 195-220

- Yeon, Jaehoon. 2008. Issu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European universities [in Korean] EAKLE website: <http://www.eurokorean.org>
- Yeon, Jaehoon and Lucien Brow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Routledge.
- 강현주(2014). “해외 거주 한국어 초급 학습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7: 1-24
- 박정미(2015). 다문화 소통 맥락 중심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연재훈 (2015). “유럽 한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 제1권 2호: 1-32.
- 최준식 (2012)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What Is Teaching Culture? “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1호: 271-285
- 한송화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 형식 문법에서 기능문법으로”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번역과목의 교수 내용에 대한 소견

-한국어전공 4,8 급 시험을 중심으로

김영수
(연변대학교)

1. 머리글

중한 수교 후 한국어교육이 중국에서 인기를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무려 200 여 개 국립과 사립 대학들에서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고 수많은 한국어 인재들을 양성하였으며 교수진영이 탄탄한 명문대학들에서는 석박사과정까지 마련하고 한국어고급인재 양성에 진력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하여 중국에서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양성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자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어인재양성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다방면의 지식을 소유한 복합형 인재들에 대한 요구가 그 표식의 하나로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기성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제자리에서 담보한다면 시대의 발전에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을뿐더러 전반 한국어교육이 퇴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시로 한국어학과와 현유의 교과목 설정, 또는 교과목을 구성하는 내용과 방법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법론들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체이자 종합성을 띠고 있는 번역과의 내용들을 검토의 대상으로 잡고 한국어전공 4,8 급 시험의 번역부분을 고찰, 분석하여 번역과목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전공 4 급, 8 급 시험에서 본 응시자 번역 수준과 존재하는 문제점

중국어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에서는 외국어전공교육지도위원회 비통용어종분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2012 년부터 중국경내에서 한국어전공 4 급, 8 급 시험을 주관하고 실시하여 왔다. 지금까지 4 급 시험은 여섯 번, 8 급 시험은 다섯 번 치렀는데 이 열한 차례의 번역부분의 성적 통계 수치는 다음과 같다.

시험시간	항목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낮은 점수	평균 점수
2012. 6	4 급	18.5	1.25	13.6
2013. 6	4 급	17.25	0.5	10.9
2014. 6	4 급	18.25	0.5	13.7
2015. 6	4 급	19	0	13.5
2016.6	4 급	20	5	14.5
2017.6	4 급	20	0	13
2014. 5	8 급	15.5	1	10.9
2014. 12	8 급	18.5	1	15.4
2015.12	8 급	18.3	0	14.4
2016.12	8 급	19.5	4	14.2
2017.12	8 급	19.8	0	14.8

이 통계표를 보면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의 차이가 심하고 평균 점수가 급격 요구에 도달 못한 경우가 두 번 된다. 필자가 이 4 급, 8 급 시험을 포함하여 열한 차례의 번역시험을 분류, 분석해 보았는데 오류가 대체적으로 한중 번역에서는 번역의 기본상식을 모르는 데서와 원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된 데서 인기 된 것들이 많고 중한 번역에서는 한국어의 어휘, 문법, 표현수법들의 용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데서 인기된 오류가 많았다.

아래에 오류 유형에 따라 원문과 비교하면서 분석하기로 한다.

1) 번역 상식과 관련된 오류

① 독서란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기 위하여 책을 읽는 일을 말한다.

读书可以提高自己的素养和教养。

② 그분은 심장 수술의 일인자로 꼽히는 전문가이다.

那位是以心脏手术第一人著称的数一数二的专家。

③나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남의 자유도 똑같이 존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如同我的自由般一样重要同样的尊重他人的自由, 这种人是很善良的人。

이 세 역문은 다 번역 상식과 관련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예문 ①은 원문의 형식을 무시하고 그 의미만 대체적으로 옮긴 데서 번역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번역이고 예문 ②는 원문의 표현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데서 역문의 표현습관에 맞지 않는 어색한 번역이

며 예문 ③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원문의 구조와 문자 의미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데서 비문이 된 것이다. 모어가 중국어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예문 ②와 ③처럼 지나치게 원문구조에 매인 데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번역 상식을 잘 모르거나 또는 번역 상식을 홀시한 데서 인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번역은 원문 구조의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목적어로 되는 역문이 반드시 목적어의 표현수법에 맞아야 하며 특히 번역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정보 전달의 내용이 원문과 역문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번역의 기본 상식을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2) 원문 이해에서 생긴 오류

원문에 대한 이해가 똑똑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는 주로 한중번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④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a.他好像很忙，没有经常联系。

b.没有经常联络，看来过得很忙。

c.你看起来这么忙，不能经常联系你了。

⑤ 이번 시험 문제는 여간 어렵지 않다.

这个考试的题目果然不难。

⑥한국 사람들은 일찍부터 집을 나가서는 천하의 뜻 있는 벗들과 사귀고, 집에 들어와서는 옛 성현 들의 책을 읽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韩国人认为一大早出门和外面的人交朋友，回家后和长辈们一起读书分享是一种美德。

예문 ④의 a,b,c 역문은 다 무주어문으로 된 원문의 주체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빚어진 오역이고 예문 ⑤는 원문의 "여간"이 뒤에 부정형태와 결합될 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역이 된 것이고 예문 ⑥은 원문의 "일찍부터"가 어느 단어와 맞물리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오역이다.

3) 역문 언어의 활용에서 생긴 오류

이 유형의 오류는 한국어를 다루는 능력과 관련되는데 어휘 선택, 조사와 어미 사용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 어휘 선택에서 나타난 오류

⑦ 一个人的性格形成与他的家庭有密切关系。

한 사람의 성격은 그의 가정과 지나친 관계가 있다.

⑧ 在和谐的家庭中长大的人，他的性格通常也是温的。

사랑하는 가족에서 자란 사람은 성격이 보통 온화적인 편이다.

⑨ 好像要夏雨，带着雨伞去吧。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데리고 가세요.

⑩ 这几年韩国的夏天似乎越来越热了。

며칠 년부터 한국의 여름이 갈수록 더워지는 것 같다.

역문들에서 밑줄을 친 “지나친”, “사랑하는”, “데리고”, “며칠” 등 고유어, 한자어는 한국어에서 사용률이 높은 어휘들로서 학생들이 초급단계에 익혀야 할 어휘들이나 예문에서처럼 그 뜻은 이해하였지만 문맥에 맞게 쓰지 못하여 역문이 비문이거나 어색한 문장으로 되고 있다.

b. 조사, 어미 사용에서 나타난 오류

⑪ 即使她误解了你说的话，你也不必生那么大的气。

그녀가 너의 말을 오해하지만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어.

⑫ 人类对自然的破坏已达到了相当严重的程度

인류가 자연에 대한 파괴가 심각한 정도를 이른다.

인류가 자연에 대한 파괴가 심각한 정도가 도달하다.

⑬ 如何与自然和谐相处已经成为我们必须面对的问题。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여기서 밑줄을 친 조사와 어미들이 잘 못 쓰이어 역문들이 비문으로 되었다. 기실 “-지만”, “를”, “는”, “가” 등 조사와 어미들은 사용빈도가 높은 문법형태들로서 초급단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지만 학생들이 그 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예문과 같은 비문을 만들게 되었다.

한국어 전공 4 급, 8 급 시험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오류들은 한국어학과 학생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학생들이 번역의 성격, 표준, 임무 등 상식적인 번역 이론을 잘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문법, 표현형식에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대응법칙을 무시하고 있다. 셋째, 원문 이해 능력과 역문 표현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중번역에서는 원문인 한국어에 대한 투철한 이해가 따라가지 못하고 중한번역에서는 역문인 한국어를 다루는 기능이 차한데 철자를 포함하여 어휘 사용과 문법 용법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술한 원인들에는 객관적인 요소도 있고 주관적인 요소도 있

다. 우선 객관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접한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번역 교과목과 같은 실천성적인 과목은 보통 6 학기거나 7 학기에 배정되어 그전에 정독, 회화, 문법과 같은 과목들을 통하여 한국어의 어휘, 문법 등을 어느 정도 익히기는 하였지만 모어처럼 능란하게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대학교의 과목 설정과 시간 배정에서 전반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을 골고루 고려하여야 하기에 단순히 번역과목에만 많은 시간을 배정할 수 없는 것도 객관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소 외에 인위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들도 더러 있다. 예를 들어 학부생 단계의 번역과목의 목적 설정, 번역이론과 실천의 조합, 훈련방식 등에서 미흡한 점들이 더러 있는데 번역 교과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면 학생들의 한국어를 다루는 기능을 어느 정도 높여 4 급, 8 급 시험에서와 같은 오류를 적게 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3. 한국어학과의 실정과 번역과의 목표

앞에서 논의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려면 우선 번역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어 학과의 학생들의 실정에 따라 번역 교과목의 목적을 설정하여야 한다.

번역은 한 언어로 표현된 내용을 다른 한 언어로 옮겨놓는 언어활동으로서 그 목적은 서로 다른 언어사용자들이 번역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의사소통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역자는 두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고 서로 전환하는 두 언어의 표현 방식과 표현 기제에 능숙하여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한국어학과의 번역은 한중번역과 중한번역으로 나뉜다. 한중번역의 경우 학생 자체가 모어가 중국어이기 때문에 일정한 번역이론을 장악하고 원문인 한국어만 정확히 이해하면 중국어로서의 전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한번역의 경우는 다르다. 중국어의 이해 수준이 높아야 하는 동시에 한국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이 중국어로 된 의사표현의 심층까지 그대로 한국어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어학과의 학생들의 실정을 보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근근히 이해단계에 그치고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는 기능은 그다지 높지 못하다.

4,8 급 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반영되고 있는데 2017 년의 중한번역과 한중번역의 성적 통계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시험시간	항목	총점수	평균 점수
2017.6	4 급 중한번역	10 점	5.9 점
2017.6	4 급 한중번역	10 점	7.2 점
2017.12	8 급 중한번역	10 점	7.0 점
2017.12	8 급 한중번역	10 점	7.9 점

이 통계표를 보면 한중번역과 중한번역의 평균 점수가 보편적으로 10 점을 기준으로 1 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어학과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다루는 기능이 차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본고에서는 중점적으로 중한번역을 논의하는데 일반적인 번역 이론과 방법을 전수하는 전제하에 학생들이 이미 배운 한국어지식을 공고히 하고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휘, 문법, 표현수법 등 면에서의 차이를 똑똑히 인식하게 하며 한국어의 어휘, 조사, 어미 등을 정확하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주는 것을 중한번역과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번역의 기본 원리를 숙지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국어 구사 능력에 비해 부족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정확성과 유창성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번역 학과목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첫째, 번역의 실질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상식적인 번역이론들을 자기화하여 번역실천을 지도하게끔 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어와 한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 특히 그 차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번역의 기본 임무는 문화적 차이를 포함한 두 언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원문의 의미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역문 언어의 우세를 발휘하여 역문의 표현력이 될수록 원문의 표현력 수준에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번역의 순서와 방법론들을 알아야 한다. 쉬운 데로부터 어려운 데로 점진적으로 훈련시켜야 하며 특히 이해와 표현을 유기적으로 조합시키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번역 학과목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내용물과 순서를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실용적인 번역이론과 교수의 내용

번역이론은 하나의 체계로서 그 이론에는 기초이론, 방법론, 번역프로그램, 번역풍격, 번역교수법 등 다양한 내용들이 망라된다. 전문 번역이론을 연구하는 기관도 아니고 연구차원의 성격을 띤 대학원생도 아닌 학부생 교육 단계에서는 번역의 기초이론과 기능훈련이 주요한 목표로 되므로 모든 번역이론을 다 전수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번역실천과 밀접히 연관되는 상식적인 번역이론들은 꼭 전수하여 학생들의 뼈와 살이 되게끔 하여야 한다.

필자는 번역학의 성격, 번역의 특징, 번역의 대상, 번역 원칙, 그리고 번역에서 밟아야 할 순서들은 번역 학과목에서 반드시 전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1) 번역학의 성격

번역은 한 언어로 표현된 내용을 다른 한 언어로 옮겨 놓는 언어적 행위로서 그 목적은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 교류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되는 번역이 개방성과 종합성을 띤 학문이라는 것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번역을 전통적 시각에서는 일종 잔 재간으로 보면서 하나의 학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어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마저도 자기가 하는 일을 일종 하나의 업종으로 보았지 과학 다시 말하여 “학과”로는 보지 않았다. 원인은 번역이 교제수단으로 존재한 역사는 오래지만 대규모의 사회적 생산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번역의 연구대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연구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주로 언어예술의 측면과 번역표준과 역문의 단어, 문장짜임새에 국한되었다.

번역연구가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은 20 세기 50,60 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때로부터 전통적인 과학이 돌파성적인 성과를 이룩하여 원유의 연구 틀에서 벗어났고 신흥과학기술들의 산생과 더불어 서로 다른 과학연구 분야가 교차, 침투되고 서로 안받침하는 국면이 형성되어 번역에 대한 과학연구를 추동하였다. 예를 들어 역사학, 지리학, 비교언어학, 대비언어학, 정보학, 통제론, 심리언어학, 신경언어학 부호학 등 이론의 확립과 성과는 번역에 논증수단을 제공하여 번역학이 개방성, 종합성적인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 번역의 특징

번역은 한 언어에 담긴 내용과 형식을 다른 한 언어로 재현하는 활동으로서 원어의 내용과 형식을 정확히 포착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역문언어의 어휘, 문법, 표현수법을 숙달하여 역문언어의 규칙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문언어와 역문언어를 다 잘 알아야 하며 번역의 기본 특징을 투철히 파악하여야 한다.

번역의 기본 특징은 번역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번역이 가능한 것은 비록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언어에 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는 사유법칙은 기본상 일치하거나 비슷하기에 부동한 언어로 표현한 사상내용이나 객관사물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我吃飯、我上學了와 한국어의 我는 밥을 먹는다. 我는 학교에 갔다.는 언어의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다 공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통한 내용이 곧바로 번역의 가능성을 안받침하고 있다.

동시에 번역은 일정한 한계도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 사이에는 언어부호, 역사, 전통, 풍속, 습관 등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특정된 환경에서 발전하는 언어의 표현방식이거나 문법, 관습적 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 인사말로 되는 “吃了嗎?”와 한국어에서의 “안녕하십니까?”는 부동한 역사 배경에서 산생된 인사말로써 문자 대 문자식의 번역을 하여서는 교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

고 중국어의 “王八”과 같은 어휘는 문화적으로 부정의 뜻을 담고 있지만 한국어의 “자라”에는 이런 문화적 뜻이 내포되지 않기에 어휘 대 어휘 번역으로서는 의미전달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이외 율동력을 갖고 있는 중국어의 율시거나 해음(諧音)적으로 풀이되는 헨후어(歇后語)와 같은 형태와 형식들은 한국어에 없는 표현형태로서 번역이 그 형식과 의미를 다 살릴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你敢跟他挑战，真是旗杆顶上绑鸡毛-好大的掸(胆)子。

감히그사람과 겨루다니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네.

△世上没有过不去的河，只要不灰心，继续努力，定能成功。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신심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만 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

△外边形势是紧，但不要怕，没有过不去的河。

바깥 형편이 긴장하기는 하지만 하늘이 무너진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두려워 마시오.

예문들에서 “旗杆顶上绑鸡毛-好大的掸(胆)子”는 해음적으로 표현된 중국어의 헨후어 형식으로서 한국어에는 이런 표현형식이 없다. 따라서 원문과 같은 형식으로 처리하여서는 원문의 정보를 담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没有过不去的河의 문자적 의미는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인데 이 문자적 의미로만 대역시키면 역문이 원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선후문맥에서의 의미에 비추어 각기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번역하여야만 원문과 비슷한 언어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번역이 한계를 보이는 부분들을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창작과 비슷한 노력이 소요된다. 그러나 번역에서의 창작은 원문의 내용, 형식의 제한을 받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창작으로서 노신선생의 말씀처럼 “재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번역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원문의 내용과 형식의 속박을 받으면서 역문언어의 우세를 발휘하여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최대한으로 역문에 체현시키는 언어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번역의 대상

번역의 대상을 논의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번역 자체가 두 가지 언어를 전환하는 작업으로서 두말 할 것 없이 원문이 곧 바로 번역의 대상으로 되는데 무슨 논의할 가치가 있는가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의 초보자로 되는 한국어학과의 학생들 경우에는 반드시 해명하여야 할 문제로 제기된다.

초보자들은 일단 번역물을 접하고 보면 대부분 문자 대 문자 번역, 또는 어휘 대 어휘 번역에 그치어 원문의 정보를 역문에 제대로 옮기지 못한다. 이는 결국에는 번역에서 번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인기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우선 언어의 세 개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언어에는 보통 문법적 의미, 어휘적 의미, 화용적 의미 층이 있는데 번역이 구경 어느 측면의 번역을 하는가가 한 언어로 표현되는 내용을 다른 한 언어로 정확히 전달하는 번역목적을 실현하는 관건으로 된다.

중국어와 한국어일 경우 문법형태거나 구조가 서로 다르다. 중국어는 주로 어순과 허사에 의해 문법관계를 표시하고 한국어는 주로 조사와 어미로 문법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문장의 구성과 표현형식이 서로 다른 이 두 언어 전환에서 그 표현형식에 매이어서는 원문의 내용을 역문에 그대로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법의미층은 번역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다음, 어휘의미층이 번역의 대상으로 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어휘의미층이 문장의 내용 구성에서 중요한 의미 분담은 하고 있지만 문맥에 대한 고려가 없이 어휘의 의미에만 따라 번역하면 번역의 목적을 실현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打人는 어휘적 의미가 한국어에서 “치다”로서 打人과 같은 경우에는 그 어휘적 의미와 문맥에서의 뜻이 같아서 “사람을 치다”로 내용 전달이 번역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지만 打水, “打电话와 같은 경우에는 어휘적 의미에 따라 “물을 치다”, “전화를 치다”로 번역하여서는 내용 전달이 번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는 어휘적 의미가 번역에 가능성은 제공하지만 단순한 표층구조의 어휘거나 어휘집합체의 의미만의 번역으로는 번역의 기능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화용적 의미층은 언어의 부호계통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문맥에 따르는 의미로서 결국은 언어환경에 의한 구체적인 의미로 된다. 번역의 대상은 곧바로 이 문맥에 따르는 의미층인데 똑 같은 어휘거나 단어결합(구)이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담게 된다.

예를 들어

a. 门一开, 就喷出了香味。

문이 열리자 향기로운 내가 풍겨나왔다.

b. 他睡得正香的时候, 忽然响起了敲门声。

그가 한창 달게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노크하는 소리가 울리었다.

c. 他吃得好香呀。

그는 참 맛스레 먹는군요.

d. 这货现在在农村很吃香。

이 상품이 지금 농촌에서 대단히 환영을 받고 있다.

e. 他们俩的关系有时香, 有时臭。

그들 둘의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한다.

위의 예문들에는 다 형용사 "香"이 쓰이지만 서로 다른 문맥에서 "香"이 담고 있는 의미는 서로 다르다. 번역의 대상은 바로 구체적인 문맥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정확히 옮기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번역하여야만 번역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번역의 대상은 문장이 담고 있는 문맥적 의미 즉 화용적 의미라는 것을 말한다.

4) 번역 표준과 원칙

번역표준은 역문의 질을 검증하는 척도이자 역자가 지켜야 할 준칙과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된다. 문자번역이 산생하면서부터 번역표준에 대한 쟁론이 있었는데 주로 직역인가 의역인가에서 논의되었다.

소위 직역이란 원문의 어순만 역문에서 적당히 조절하고 언어형식, 구조, 색채 등을 다 원문과 일치하게 하는 번역이고 의역이란 원문의 형식은 따르지 않지만 내용은 원문과 일치하게 하는 역법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冬去春來, 夏走秋至”와 같은 원문을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로 하면 직역으로 되고 “철이 바뀌며 세월이 흐른다.”로 하면 의역이 된다. 기실 직역과 의역은 다 번역에서 상용하는 수법으로서 환경에 따라 직역할 수도 있고 의역할 수도 있으며 수요에 따라서는 이 두 역법을 겸용할 수도 있다. 관건은 원문의 내용을 역문에서 정확하게 전달하였는가가 표준으로 되는데 이 표준에 도달하려면 원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여야 하고 표현이 역문의 문법과 표현 습관에 맞게 함으로써 역문 독자의 감수가 원문 독자의 감수와 일치하거나 비슷하게 하여야 한다.

상술한 번역표준을 실현하려면 원문의 내용을 정확히 역문에 담아야 하며 원문의 언어 형식을 순통하게 역문언어의 형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5) 번역의 순서

번역은 두 가지 언어를 서로 전환하는 종합적 공정으로서 일정한 선후 순서가 있는데 보통 선택, 준비, 이해, 표현, 수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가운데서 이해와 표현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이해와 표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이해단계와 표현단계에서 해결하여야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한다.

① 이해 단계

"이해"는 원문의 내용, 형식, 풍격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정확한 번역의 전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원문을 읽으면서 원문의 단어, 단어결합(구), 문장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 단어의 개념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단어의 개념적 의미는 기본 의미로서 사전적 의미이기도 하다. 사전적 의미가 구체적인 문장에서 같은 의미로 나타날 때에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이해하여도 되지만 문장에서의 문맥적 의미가 다를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을 내포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형용사 "老"는 기본 의미가 "늙다"인데 "人老了"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의미와 문맥의 의미가 일치하기에 "늙다"로 인식하여도 된다. 하지만 "老房子"와 같은 경우에는 문맥의 의미가 달라지기에 "늙다"로 이해하여서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없다. 원문의 어휘 이해에서 이런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 기본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똑똑히 밝혀야 한다.

둘째, 원문의 문법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원문의 문법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도 원문 이해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된다. 왜냐하면 문법관계가 다르므로 하여 똑같은 단어결합(구)이 부동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他來, 我去는 문맥에 따라 선택관계, 조건관계 또는 가정의 관계로도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법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의연히 오역이 될 수도 있다.

셋째,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원문에 대한 이해는 어휘와 문법 관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논리적 분석도 하여야 한다. 논리적 분석이 따라가지 않으면 상하 문맥의 연결에서 논리적으로 통하지 못할 수 있고 한 문장 안에서도 오역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를테면 兩個中國之命運과 같은 문장을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다만 원문의 어순에 따라 "두개 중국의 운명"으로 번역해 놓으면 논리적으로 통할 수 없다.

이해 단계에서 단어의 의미, 문법구조와 논리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하여야만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대할 수 있다.

②표현 단계

"표현"은 목표어로 원문을 번역하는 단계로서 표현의 질은 역자의 역문언어의 사용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해 부분에서 이해의 중요성을 이미 논의하였지만 번역으로 놓고 보면 이해가 목적이 아니다. 이해의 목적은 목표어로 원문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전반 번역과정에서 표현이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해력과 표현력을 높여야 하는데 한-중 번역일 경우에는 중국어의 구사능력이 더 높아야 하고 중-한 번역일 경우에는 한국어의 구사능력이 더 높아야 한다.

표현단계에서는 어휘 선택이 문맥에 어울려야 하며 조사와 어미를 문법의미에 따라 적재적소에 써야 하며 목표어의 표현습관에 맞게끔 문장을 짜야 한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전반 번역이론을 다 포괄하거나 또한 심오한 이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번역이론의 기초이론 또는 상식적인 지식이므로 학부생단계의 번역과에서는 반드시 번역실천과 결부하여 학습자들을 숙지시켜야 할 내용이다.

5. 원문 이해와 역문 표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훈련

번역은 필경 실천성을 띤 과목으로서 번역이론만 가지고서는 번역기능을 제고할 수 없다. 반드시 이론의 지배 아래 번역훈련을 통하여 언어를 다루는 기능과 원문 이해와 역문 표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같은 번역훈련은 학생들의 실정에 비추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국어학과의 학생들의 한국어실력을 보면 일정한 이해력은 구비되었지만 사용능력이 차한 것이 주요한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번역과의 훈련배정에서 번역표준에 맞게끔 번역하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를 다루는 기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언어기능은 어휘 선택, 문법과 관습에 맞는 문장짜기 등 종합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서술상의 편이를 위해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원문 이해에 따라 자유자재로 어휘를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어전공 4 급, 8 급시험에서 나타난 어휘오류들을 보면 외래어사용에서도 가끔 오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하게는 한자어휘와 고유어휘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자어휘에서는 "강하다", "적당하다", "신체", "상하다", "불편하다", "평화롭다", "년", "우호"와 같은 단어들의 부적절한 사용과 역지로 한자어휘를 만들어 낸 "우(雨)", "자심(自信)", "허도(虛度)", "도발(突破)", "평형(平衡)", "유려(忧虑)와 같은 현상들이 있으며 고유어휘에서는 문맥에 맞지 않게 "지나치다", "며칠", "받다", "열다", "크다", "만들다", "늙다", "적다", "이루다" 등의 부적절한 사용 오류들이 많다.

이러한 오류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보면 번역상식을 모르는 외의 원인들이 있는데 우선 한자어휘 경우에는 한국어의 한자어휘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적지 않은 한자어휘가 중국어의 한어어휘와 의미, 사용 등 면에서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의 한자어는 한국화된 한자어휘로서 의미, 단어조성, 감정색채 등 면에서 한어어휘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정한 한국어 기초지식은 있어도 의연히 한어어휘를 한국어의 한자음으로 옮겨만 놓으면 한국어의 어휘로 된다는 착각을 갖고 번역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한자음으로 옮기는데 습관되어 한자 어휘를 남용하거나 역지로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고유어휘 경우에는 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용법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리고 비록 2,3 년간의 학습을 거쳐 한국어의 많은 고유어휘들을 접촉은 하였지만 실제적

인 언어사용에서 동사, 형용사에 속하는 많은 고유어휘들의 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과도 연관되는데 그 원인은 한국어의 적잖은 고유어휘들이 중국어에 딱 맞게 대응되는 어휘들이 없는 것과도 연관된다.

총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어의 어휘가 사용 어휘가 아니라 이해 어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어휘 사용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 하나만을 놓고 볼 때 그 뜻과 쓰임새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용 상황에서는 용례에 맞게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휘선택에서 나타내는 오류현상들의 원인에 비추어 번역 학과목에서 아래와 같은 교육 내용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번역이론과 번역실천을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번역은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종합적인 과목이므로 단순한 이론 강의에 그치거나 이론을 무시하고 실천만 하여서는 상술한 번역에서의 폐단들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번역 학과목에서 번역의 성격, 번역의 의무 등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번역의 기본 의무와 목적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끔 해야 한다. 그리하여 단순한 어휘번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하여 중국어 표현이 한국어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이런 인식을 제고하는 훈련이 교육 내용에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학생들이 번역시에 매 단어를 선택할 때마다 역문의 표현에 알맞게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다음 한자어휘에 대해서는 한자어휘의 종류와 특성, 한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한국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 기능 분담 관계에 대해 숙지하고, 한어어휘와 비교 분석하여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자어휘와 한어어휘는 동질성도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계통의 어휘로서 의미, 단어구성, 용법 등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절감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번역에서 한자어휘를 심중하게 적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고유어휘 경우에는 어휘 해석에만 그치지 말고 사용어휘가 어떤 언어환경에서 쓰인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상응한 훈련을 배정하여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애매모호한 어휘일 경우에 사전을 찾아보고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게끔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조분석을 통해 한국어 통사 규칙에 익숙하게 하여 이에 준해 중국어 표현을 한국식 표현으로 올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통사 규칙에 대한 기초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어 통사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한국어 적격문 생산에 필요한 각종 문법 기제에 대해 익숙하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중국어식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어식으로 사유하고 한국어의 문법과 표현에 맞게 단어를 선택하고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어에서는 동사, 형용사가 직접 주어로 쓰일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용언류가 문법적 가공을 하지 않고서는 주어 자리에 올수 없는 사

실 등을 대조 분석 등의 실례로 제공함으로써 통사 규칙에 적합한 한국어 문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원문 이해에 따라 조사와 어미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어전공 4.8 급 시험에서의 문법오류들을 보면 주로 "가/이, 은/는, 을/를, 로/으로, 도" 등 조사와 시칭어미, 종결어미의 사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일부만 제시하면 아래와 같은 유형들이 있다.

① 与绿茶和咖啡相比，我更喜欢红茶。

제가 녹차와 커피보다 홍차를 더 좋아해요.

② 你再次确认你的地址。

당신의 주소가 다시 확인해 보세요.

③ 总是充满活力。

항상 에너지를 넘친다.

④ 我听到韩国语能力考试通过的消息，别提有多高兴了。

한국어시험을 통과하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

⑤ 他是一个既好静又好动的青年。

그 사람은 조용하고 활발하는 청년이다.

⑥ 我一接到他的电话就马上联系你。

그의 전화를 받자마자 너에게 연락할게요.

이상의 오류들을 보면 예문 ①은 보조사 "은/는"을 써야 할 자리에 주격조사 "가/이"를 잘못 쓴 오류이고 예문 ②와 ③은 목적격조사 "을/를"과 주격조사 "가/이"를 잘못 쓴 오류이며 예문 ④와 ⑤는 시칭어미를 잘 못 쓴 오류이고 예문 ⑥은 인칭대명사와 종결어미가 어울리지 못한 오류이다.

조사, 어미 사용에서 나타나는 이런 오류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원문의 문법적 의미를 표시하는 방식과 역문언어의 문법적 의미를 표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하고 중국어의 문장 구조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대조, 분석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 실제로 옮겨보게 하는 교육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이기 때문에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초 단계에서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에 대해 거의 배웠기 때문에 실제 문장을 사례로 보여 주면서 일일이 대조분석해보는 방법을 통해 번역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즉, 실제로

대조분석과 문장 번역의 활동을 통해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위의 예문을 다시 들어 보면, 예문 ①의 원문 “与绿茶和咖啡相比, 我更喜欢红茶”에서 역점은 주어인 “我”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인 “红茶”에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또한 이런 구조가 한국어로 될 때 문장의 역점이 역시 서술어에 떨어지는데 그 역점이 주어에 떨어 질 때에는 “가/이”, 서술어에 떨어 질 때에는 “은/는”을 쓰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상응한 번역훈련으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문 ②와 ③은 한국어에서 타동사와 자동사의 명사 물림구조가 서로 다른 것을 잘 모르거나 망각한 데서 빚어진 오류인데 이런 경우에는 전환법칙과 자동사, 타동사의 구조적 맞물림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문 ④와 ⑤는 다 시칭과 관련되는 오류들인데 관형어에 시칭문법표식이 없는 중국어가 모어인 학생들이 늘 범하는 오류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문에서 어떤 시칭의미를 갖는가를 파악하고 그 전제 하에 시칭을 나타내는 관형어에서 어떤 시칭어미들을 쓴다는 것을 제시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예문 ⑥과 같은 경우에는 종결어미 사용에 주의하도록 제시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한국어의 통사론 연구와 중국어와의 문법 대조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번역과에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보면 번역 학과목에서는 흔히 실천성만 강조하고 대조거나 통사론 연구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필자는 근 몇 년간의 번역 강의에서 본체론 연구에서 이룬 “가/이”와 “은/는”, “고”와 “며”, “에”와 “에서”, “에”와 “로”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연구결과와 중국어와의 일반적인 대응법칙을 의식적으로 도입하였는데 번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다루는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가/이”와 “은/는”은 학생들이 번역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사용에서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거나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번역 강의에서 문장의 역점이 주어로 될 때, 이중주어일 때의 소주어, 복합문에서의 가정문의 주어, 의문문에서의 주어 등에는 “가/이”가 쓰이며 문장의 역점이 술어에 떨어질 때, 이중주어에서 대주어일 때, 복합문에서 대조문의 주어 등에는 “은/는”이 쓰인다는 분석적인 설명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을 때 현저하게 오류가 줄어들 수 있었다.

3) 한국어의 표현 관습에 맞게끔 문장을 짜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계통의 언어로서 문장구성, 표현방식 등 면에서 일련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어가 중국어인 학생들은 번역에서 흔히 중국어와 한국어의 서로 다른 특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원문의 구조대로 역문을 짜는 경향이 짙다.

지금까지 치른 한국어전공 4 급, 8 급 시험을 보면 번역부분에서 주로 어휘 선택과 문법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표현방식에서의 전형적인 오류는 별반 없었다. 하지만 이왕의 번역에서 보면 문장구성과 표현방식에서의 오류들이 적잖다.

⑦今天开始放假。

오늘은 방학하기 시작해요.

⑧文学创作取得了辉煌的成就。

문학창작은 휘황한 성과를 거두었다.

⑨愤怒谴责了英法联军的暴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폭행에 대해 분하게 규탄했다.

⑩学校有权利开除违纪学生。

학교는 권리가 있어 법을 위반한 학생을 제명한다.

⑪我们要实事求是，自然地而不是勉强地达到目的。

우리는 실사구시해야 하며 자연적으로 억지가 아니게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예문들은 다 중국어식으로 된 문장들로서 한국어로 보기에 어색한 문장이거나 비문으로 된 유형들이다. 예문 ⑦은 “今天开始放假”라는 중국어의 어투를 그대로 따온 역문이고 예문 ⑧은 원문의 문장구성을 그대로 한국어로 옮겨놓은 데서 한국어의 표현습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역문이며 예문 ⑨는 중국어에서 “愤怒地谴责” 즉 “状中结构”를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문장을 짜서 된 비문이고 예문 ⑩과 ⑪은 중국어식 어순으로 한국어의 어순을 배열한 데서 어색한 문장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오류들이 산생하는 원인은 바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장구조가 서로 다르며 표현수법도 같지 않다는 것을 무시한 데 있다.

문장구성에서의 상술한 오류현상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째,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장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관념을 염두에 두어 역문의 문장을 짤 때 될수록 중국어 문장 구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어는 어순의 위치에 따라 문장성분이 확정되지만 한국어는 조사, 어미에 따라 문장성분이 확정되기에 중국어의 문장성분이 한국어에서 그대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실례로 설명함과 동시에 같은 유형의 번역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장구조, 단어결합에서 어떤 제약적인 요소와 필수적인 조건들이 따르는가를 제시해주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문 ⑦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의 보조사의 의미와 용법을 제시하여 "부터"와 같은 보조사에는 문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어휘적 의미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원문과 역문을 어휘 대 어휘식으로 번역하여서는 역문의 표현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비슷한 유형의 번역훈

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문 ⑧은 원문의 주어를 역문에서도 주어로 대응시키었는데 비록 원문에서는 주어이지만 역문에서는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내포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범위를 한정하는 부사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밝혀 주고 원문과 역문에서 문장성분을 전환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문 ⑨는 원문의 수식어와 피수식의 구조를 역문에서도 그대로 옮긴 데서 비문이 된 것인데 이런 경우 중국어에서는 보통 수식어, 피수식어 구조로 되지만 한국어의 표현습관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된다는 것을 밝혀 주고 문장구조가 서로 달리 되는 번역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의 차이를 잘 알게 하고 번역에서 한국어의 어순배열 습관에 맞게 문장을 짜는 훈련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짜야 한다.

학생들의 실정을 보면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차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번역에서는 알게 모르게 원문에 매여 한국어식 어순으로 문장을 짜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식 어순으로 문장을 짜는데, 이와 같은 오류들을 피하려면 우선 어순상의 차이를 잘 알게 하고 동시에 중국어의 특유한 구조들이 한국어에서 어떤 어순으로 나열된다는 법칙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예문 ⑩에서처럼 원문이 술어를 두 개 이상 가졌을 경우 첫 술어가 “有”로 될 때에 한국어에서는 뒤의 서술어 구조가 관형어로 되어 앞에 놓이는 것이 거의 법칙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법칙성적인 것들을 미리 제시해 주면 학생들은 위의 예문을 “학교는 법을 위반한 학생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와 같은 적격문을 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어와 한국어의 표현 수법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 한국어의 표현수법에 맞게 문장을 짜는 습관을 양성하게 해야 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표현수법 면에서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중국어는 문장짜임에서 흔히 긍정적인 부분을 앞에 나열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뒤에 나열하지만 한국어는 상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을 앞에 놓고 긍정적인 부분을 뒤에 배열한다. 이와 같은 수사학적인 차이를 제때에 제시해주면 예문 ⑪과 같은 역문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와 같은 한국어의 표현습관에 맞는 문장을 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 배열을 보면 상술한 긍정과 부정 외에도 결과와 원인, 요점과 보충설명의 어순 배열이 상반대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수법상의 법칙적인 차이를 제때에 제시하고 어순 배열과 관련되는 번역훈련을 시키면 한국어의 표현습관에 맞는 문장을 짜는 능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6. 결론

이상 한국어전공 4 급, 8 급 시험의 번역부분에 대한 오류분석을 통하여 존재하는 문제점들과 번역 학과목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존재하는 문제의 주된 원인은 상식적인

번역이론을 잘 모르거나 망각하는 외에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휘, 문법, 표현수법상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국어식으로 사유하며 동시에 한국어로 구사하는 능력이 높지 못한 데 있다. 이에 비추어 필자는 번역 학과목에서 상식적인 번역이론을 숙지하게 하며 대조분석을 통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절실히 느끼게 하며 대조 분석 성과와 한국어 문법론 연구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교수에 많이 도입하는 동시에 오류 유형과 비슷한 번역 훈련을 강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의 표현 습관에 맞게 문장을 짜는 습관을 양성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白林 崔健 《汉朝语对比和常见偏误分析》 1991 教育科学出版社
2. 刘宓庆 《当代翻译理论》 1999 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
3. 谢天振 《翻译理论建构与文化透视》 2000 上海外语教育出版社
4. 金永寿 全华民 《汉朝、朝汉翻译基础》 2003 延边大学出版社
5. 金永寿 《汉朝翻译中常见的病句及解决对策》 2004,7 韩国太学社
6.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한국(조선)어교육연구 8, 2013, 태학사
7. 강은국 《조선어 전공 4·8 급(TKM4·8) 시험 실행 현황에 대한 고찰》 2016.5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교육의 이론

Theory of Korean Culture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윤여탁
(서울대학교)

I. 머리말

이 글은 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위상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이야기할 것이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목표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지향을 상호문화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그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대 글로벌(global) 사회에서는 외국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외국어교육의 준범들이 공표되고 있다. 1996 년 미국의 ‘외국어교육 국가 표준 프로젝트(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에서 제출한 ‘21 세기 외국어 학습 표준(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21st Century)’의 5C(Communication, Cultures, Connections, Comparisons, Communities)와 2001 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제출한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이 그 예이다.

이 글에서는 ‘21 세기 외국어 학습 표준’ 한국어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려고 한다. 이 기준은 처음 제출되었던 1996 년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2001 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이익이나 안보의 맥락에서 외국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외국어교육협의회(ACTFL, 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와 다른 외국어교육학회가 협업해서 외국어 학습 표준들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미국의 국가 수준 외국어교육 표준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았다.

먼저 미국의 외국어교육 국가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의 목표(goal)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목표 1, 의사소통(communication): 한국어로 의사소통한다.(Communicate in Korean)

Standard 1.1: 학습자는 대화에 참여하며, 정보를 얻어 제공하고, 감정과 정서를 표

현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Standard 1.2: 학습자는 화제(topics)의 다양성에 대한 구어와 문어 한국어를 이해하고 번역(interpret)한다.

Standard 1.3: 학습자는 화제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 개념과 생각을 청자나 독자에게 표현한다.”(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12: 522)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의 첫 번째 목표를 보면, 외국어교육 대부분이 그렇듯이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제 2 언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12: 40)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일상적인 대화와 같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한국어 구어나 문어로 된 화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번역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의 외국어교육 국가 표준에 맞추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첫 번째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언어학자나 언어교육 연구자들은 이러한 외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의 문화를 학습하고 습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언어와 문화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보고, 외국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화,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며, 또한 문화는 언어의 일부분이다. 즉 이 둘은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언어든 문화든 그 중요성을 잃지 않으면서 둘을 떼어낼 수는 없다. 특수한 도구적 학습(말하자면, 학문적인 원문을 연구하기 위해 한 언어의 독해력만을 습득하는 경우처럼)을 제외하면, 제 2 언어 습득은 또한 제 2 문화의 습득이기도 하다.”(H. D. Brown, 2005: 207)

이 글에서 영어교육학자인 브라운은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분리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어 학습이나 습득은 목표 언어의 문화 학습이자 습득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언어문화’, ‘언어문화 교육’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외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전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어교육은 의사소통교육을 넘어 문화교육이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으로 상호문화교육이라는 시각을 도입하고, 한국문화 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이 부분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와 문화교육의 위상을 논의하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 위해서 먼저 미국의 한국어교육 국가 표준을 살펴보면, 문화를 외국어 학습의 두 번째 목표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준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 2, 문화(cultures):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한다.(Gai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s)

Standard 2.1: 학습자는 한국 문화의 관습(practices)과 관점(perspectives)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demonstrate).

Standard 2.2: 학습자는 한국 문화의 산물(products)과 관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12: 522)

이 표준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두 번째 목표인 문화를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에서는 관습이나 산물과 같은 문화적 실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보다는 이들 실체와 그 문화의 관점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즉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보다는 문화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자의 문화와 목표 언어의 문화의 관계, 문화적 산물과 그 문화의 관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여 보여주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외국어교육 국가 표준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문서의 외국어교육 표준의 철학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Statement of Philosophy’)에서는 언어와 의사소통은 인간 경험의 핵심(heart)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학습자들은 12 학년까지 영어 외에 적어도 1 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영어 외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은 더 높은 단계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언어와 문화, 언어와 문화 학습자, 언어와 문화교육이라는 세 측면에서 구체적인 가정(assumption)을 제시하고 있다.(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12: 7)

이처럼 미국의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국가 표준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융합이나 통합을 추구했던 기존의 다문화적 지향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교육적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시작되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모자이크 다문화 정책이나 상호문화주의는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의 다문화주의는 통합과 통일을, 유럽식의 상호문화주의는 차이와 상호 작용을 주목한다는 오해나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호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상호문화교육은 캐나다와 유럽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이는 현대 다문화·다문화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식이나 방법이라기보다

는 자신과 다른 타자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대안적인 교육의 관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교육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상호문화에서 ‘상호’라는 접두사는 사람들이 타인을 보는 방법과 자신을 보는 방법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식은 타인이나 자신의 특성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다.(중략) 관계의 파악이 문화 인식에서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를 지식을 통해 이해하려는 학문적 접근은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 문화에 속한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대표한다거나 그 ‘원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은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자 그 문화가 아니다.”(M. Abdallah-Pretceille, 2010: 75-76)

“상호문화교육의 목적도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배우는 데 있다. 이런 만남은 타인의 자유 요구, 복잡성, 불투명성, 모순 등을 존중해 주고, 타인을 그의 문화나 소속으로서가 아니라 타인 그 자체로 보고, 타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행동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장한업, 2014: 121)

위에서 인용한 두 책은 공통적으로 상호문화교육에 대하여 현대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대안이라는 부제로 그 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상호문화교육은 다른 문화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다른 문화를 가진 타인에 주목하며, 자신과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속한 타인과 타인의 문화가 맺고 있는 관계를 주목한다. 아울러 이들은 외국어 학습자가 타인과 타인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 타인과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역시 문화의 산물이나 실체보다는 관계에 주목하는 관점에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통일이나 융합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로서의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어교육은 이미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언어문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의 이론적 전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인지)를 넘어 실천으로서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는 실천을 강조하는 비판적 교육관이나 해방적 교육관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다른 문화와의 통합이나 동일시(同一視)라는 시각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프레이리(P. Freire)의 다음의 언급은 이러한 교육적 관점을 잘 보여주며,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문화교육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 사회 건설을 위해서 교육자 및 정치 지도자들은 새로운 교육 실천(praxis)에 근거한 학교를 재창조해야 한다. 또한 전체 사회 개혁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 철학을 천명해야 한다.(중략) 문해(文解, literacy: 필자 주)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문화자본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문해는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를 회복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며 살기 위한 방법이 되었다.”(P. Freire & D. Macedo, 2014: 158-160)

다음으로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은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간 차이에 주목했던 경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최근의 한국어교육은 문화 간 차이 이해에서 나아가 이를 실천하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변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문화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문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를 더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배경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집단을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화 지식 자체를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을 무조건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분명 재고해야 한다. 학생들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식보다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시 말해 문화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교육적 행위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줄 필요가 있다.”(M. Abdallah-Pretceille, 2010: 96-97)

이처럼 문화 간의 차이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정태적(情態的)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론적이고 역동적(力動的)인 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상호’라는 관계가 문화교육의 핵심이 된다. 이는 ‘대상을 아는 것’, ‘방법을 아는 것’, ‘이유를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문화 지식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형성된 문화 경험을 학습자들이 실천하게 하는 것(P. R. Moran, 2004: 21-25)이라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은 학습자들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넘어 상황을 분석하고 변이시켜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의 관점과 닿아 있다.

III.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내용

이 부분에서는 한국문학 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실재를 상호문화교육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가볍게 취급할 수 없

는 시인인 한용운(韓龍雲)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를 교수·학습 제재로 해서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秋收)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는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거한 뒤에, 남에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변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 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 시는 일제 강점기 승려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한용운의 궁핍한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시인의 처지뿐만 아니라 사상과 감정이 비교적 쉬운 언어로 진솔하게 서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이 시는 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문학적 수사(修辭)로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궁핍한 생활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다른 시에 비해 쉽게 읽힌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시가 비유, 생략, 함축적인 언어의 비문법적인 표현 등으로 형상화한 단시(短詩)가 아니라 서술적인 산문(散文)의 언어를 구사한 시라는 점은, 외국어로서 문화교육이나 한국문학 교육, 그 중에서 시를 제재로 선택하는 문학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이다.

이 시를 제재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화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구안할 수 있다. 먼저 이 시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 민적이 없었기에 가난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었던 한용운이라는 시인을 이해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한용운이라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교육 일반의 목표이자 언어교육, 인문 교육, 문화 교육, 문학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

는 인지적(認知的)인 측면보다는 정의적(情意的)인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를 통한 교육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한용운이라는 독립 운동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국가에서 이러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인이나 사상가의 활동과 비교하면서 목표 언어의 역사, 문화와 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활동을 구안할 수 있다. 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은 목표 언어의 문화와 모어(母語)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넘어 서로 다른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한국과 중국은 유교와 불교라는 종교라는 사상적 전통과 봉건적 신분제 사회, 한자(漢字)라는 표기 수단을 공유했지만, 근대 이후 중국에는 공산당의 정강 정책이 근본으로부터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유교와 불교,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과 자본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 문화교육은 이러한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을 설계하고, 이를 비교하는 활동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自)문화뿐만 아니라 목표 문화의 관계에도 주목하는 상호문화적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문학 연구와 문학교육의 한 방법인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안할 수 있다. 즉 한용운의 시와 비교될 수 있는 중국의 시 작품을 선정하여 그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확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 각자가 생각하는 시 작품을 선정해서 비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문학)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의 체험이나 정서와 관계시켜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문학 작품을 비교하는 활동 외에도 비교 대상이 되는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른 학습자들의 번역시와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서 한국어 사용 능력 함양이라는 한국어교육의 기초적인 목표도 실현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학에 대한 이해는 양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인간에 대한 이해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고전문학 연구는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그 영향과 수용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한국과 중국 문학의 단순한 비교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특히 동아시아의 공생공존을 추구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문학을 활용하는 한국어교육은 이러한 문학주의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 목표 언어의 사회, 문화, 역사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동반자 국가로서 공통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한국어 문학교육, 문화교육의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처럼 비교적 어렵지 않은 한용운의 시를 활용해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내용

과 방법을 개발하여 교수-학습에 적용하고, 이를 다시 문화교육이나 문화교육 연구로 송환(送還, feedback)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특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시대라는 미래 사회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교육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교육, 인간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교육의 실천 노력은 한국어 교육자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IV. 중국의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하여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교육은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전통 문화의 측면에서, 근대 이전에 유교나 불교 등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신념을 존중했던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은 한국어 문화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의 전통 문화의 실체는 일정 부분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교육의 관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실 문화의 측면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화, 경제,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증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문화를 활용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는 한국의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등 한류(韓流, Korean Wave)를 한국어교육을 위한 동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는 문화 외적인 영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한류(寒流)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수-학습의 자료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 문화 제재는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촉매(觸媒)로 활용해야 하며,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은 고급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교육은 상호문화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많은 한국과 중국의 종교, 문화, 역사,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데에서부터 문화교육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의 비교와 대비를 통해서 서로 다른 차이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교육적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상호문화교육의 맥락에서 정의적, 사회적, 문화적 실천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김학동(1984), 『증보판 비교문학론』, 새문사.
- 윤여탁(2013),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국어 문화교육의 벼리[綱]』, 태학사.
- 윤여탁(2015),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2-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22.
- 윤여탁(2016), 「한국 근대문학과 타고르, 그리고 비교문학의 전망」,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663-687.
- 윤여탁(2017), 「시 교육에서 학습 독자의 경험과 정의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61-287.
- 윤여탁(2018), 「국어교육의 융복합적 특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 53-1, 국어교육학회, 37-57.
-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교육과학사.
- 한계전 편저(1996), 『한용운의 님의 침묵: 기타 자유시 및 시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Abdallah-Preteceille, M., L'éduca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옮김(2010),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한울.
- Banks, J. A.,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모경환 외 옮김(2008),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이흥수 외 역(2005),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207-214.
- Council of Europe(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ire, P. & Macedo, D.,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허준 옮김(2014),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 학이시습.
- Moran, P. R.,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정동빈 외 옮김(2004), 『문화교육』, 경문사.
-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2012),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21st Century(3rd Ed.), Allen Press, Inc.

문법이론과 문법교육의 실제

이관규
(고려대 국어교육과)

-목차-

1. 들어가기: 명칭과 범위
2. 문법이론: 전통문법, 구조문법, 변형문법, 인지문법
3. 문법교육의 실제
 - 3.1. 단어: 3.1.1.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3.1.2. 품사의 특성, 3.1.3. 단어의 짜임과 의미
 - 3.2. 문장: 3.2.1. 문장의 짜임과 활용, 3.2.2. 문법요소의 효과와 활용
4. 나아가기

1. 들어가기

1.1. 명칭: 문법과 말본

근대적 의미로 볼 때 한반도에서 문법이 교수 학습된 것은 19세기말 한성사범학교 시절부터라고 대개 알려져 있다. 1895년부터 시작되는 1기 발아기부터 시작하여 2016년 현행 8기 통합 검정기까지 학교 문법 교육은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문법 교재로서 특별히 공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았던 1기~3기까지와 통제를 받은 4기~8기로 양분할 수 있으며, 6기~7기의 국정 시기와 그 이후 시기로 나눌 수도 있다.

(1) 시기별 문법 교과서들의 명칭

1기 발아기 (1895~1910)	2기 자성기 (1910~1945)	3기 부흥기 (1945~1949)	4기 점진정기 (1949~1966)	5기 통일문법 점진 정기 (1966~1985)	6기 국정1기 (1985~ 1996)	7기 국정 2기 (1996~2012)	8기 통합 점진 정기 (2012~ 현재)
국문정리(97 리봉운)	조선어전(11김희상)	한글의 문법과 실제(46박종우)	재미나고 쉬운 새조선말본(49 이인모)	새 국어문법(66 이명권 외)	고등 학교 문법(85문 교부)	고등학교 문 법(96교육 부)	독서와 문법 I, II(12비 상교육)
조선문전(97 유길준)	조선어문법(11주시 경)	국어문법(46이 상춘)	표준말본 2권 (49장하일)	새 중등국어문법 (66양주동 외)	고등 학교 문법(91문 교부)	고등 학교 문법(02교 육인적자원 부)	독서와 문법 I, II(12전 재교육)
국문문법(필 사)(05주시 경)	조선문법(12김규식)	신편고등국어 문법(46정렬모)	중등조선말본(초 급)(49최현배)	새 중등문법(66 이희승)			독서와 문법 I, II(12미 래엔)
대한국어문법 (유인)(06주 시경)	조선문법(필사)(13남 궁역)	쉬운 조선말본 (46박창해)	고등말본(49최 현배)	표준문법(66허 웅)			독서와 문법 I, II(12지 학사)
대한문전(07 유길준)	말의 소리(14주시경)	표해식 국어문 법 국어 풀이책 가름(47유재현)	표준중등말본 (49정인승)	표준 중등문법 (66이원구 외)			독서와 문법 (14비상교 육)
대한문전(08 최광옥)	조선말본(16김두봉)	한글 소리본(47 정인승 외)	초급국어문법 (49이희승)	모범 중등문법 (66전학진)			독서와 문법 (14천재교 육)
대한문전(유 인)(08김규 식)	수정 조선문법(17안 자산)	중학 국문법책 (47김근수)	중등말본 3권 (56최현배)	중학문법(66남 광우 외)			독서와 문법 (14미래엔)
국어문전음화 (08주시경)	현금 조선어전(20이 규영)	실험도해 조선 어음성학(47이 극로)	고등말본(56최 현배)	중학교 국어문법 (67이용주 외)			독서와 문법 (14지학사)
말(08주시경)	조선어문법제요 (상)(21강매)	중등 새말본(47 장하일)	표준말본(56장 하일)	중학문법(67문 덕수 외)			독서와 문법 (14창비)
대한문전(09 유길준)	조선정음문전(22김 원우)	중등국어문법 (48이영철)	중등국어문법 (56이승녕)	새로운 중학문법 (67김형규)			독서와 문법 (14교학사)
초등국어어전 3권(09김희 상)	鮮文通解(22이필수)	말의 소리(48주 왕산)	고등국어문법 (56이승녕)	중학말본(67최 현배)			
고등국어문전 (유인)(09주 시경)	신찬 조선어법(22이 규병)	중등조선말본 (초급)(48최현 배)	표준중등말본 (56정인승)	표준 중학문법 (67김민수 외)			
국어문법(10)	김더 조선말본(22김	나라말본(고급	표준고등말본	중학국어문법			

주시경)	두봉)	용)(48김윤경)	(56정인승)	(67이승녕)			
	정음문전(23리필수)	나라말본(초급용)(48김윤경)	중등문법(56이희승)	표준 중학말본(67정인승)			
	잘뽑은조선말과글의본(25강매·김진호)	중등국어문법(초급용)(48박태운)	고등문법(56이희승)	중학 표준문법(67이은정 외)			
	조선말본(유인25한결)	초급국어문법독본(48정렬모)	중학 말본 3권(57최태호)	표준문법(67이을환 외)			
	조선어문법(25이상춘)	고급국어문법독본(48정렬모)	중등나라말본(57김윤경)	문법(이명권 외)			
	올이글틀(27김희상)	고어의 음운과문법(49이승녕)	고등나라말본(57김윤경)	새 문법(양주동 외)			
	중등학교 조선어문전(29이원웅)		새중학문법(60김민수 외)	새 문법(이희승)			
	우리말본(첫째매)(29최현배)		새고교문법(60김민수 외)	표준 문법(허웅)			
	조선어학강의요지(31박승빈)			새로운 말본(최현배)			
	정선조선어문법(32강매)			표준 문법(김민수 외)			
	개정철자준거 조선어법(32박상준)			고등국어문법(이승녕)			
	조선어문법(33신명균)			표준 문법(정인승)			
	중등조선말본(34최현배)			우리 문법(이은정)			
	조선어(油印抄本)(34장지영)			최신 문법(이을환)			
	조선어학(35박승빈)			정수 문법(강윤희)			
	중등학교 조선어문법(35심의린)			문법(강복수 외)			
	우리말본(37최현배)			새 문법(이인모)			
	간이조선어문법(37박승빈)			문법(79김완진 외)			
	조선어전(유인)(37장지영)			문법(79김민수)			
	조선어문정체(41權(幸田)寧達)			문법(79허웅)			

				문법(79이길록 외)			
				문법(79이응백 외)			

각 시기별로 학교에서 사용되었던 문법 관련 교과서들을 제시하면 (1)과 같다. (1)의 문법 교과서 명칭을 문법계와 비문법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6기부터 지금 8기에는 문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1기~4기에는 문법, 문전, 말본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5기에는 ‘문법’이 절대 다수를 이루었으나 ‘말본’ 명칭도 일부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엄밀히 보면 1979년에 ‘고등학교 문법’이 검정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문법’이란 명칭만이 사용된 것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

(2) 문법 교과서 명칭(약칭)

1기 발아기 (1895~1910)	2기 자성기 (1910~1945)	3기 부흥기 (1945~1949)	4기 검인정기 (1949~1966)	5기 통일 문법 검인 정기 (1966~1985)	6기 국정1기 (1985~1996)	7기 국정2기 (1996~2012)	8기 통합 검인 정기 (2012~현재)	비고	
								수	%
문법 4	문법 10	문법 10	문법 7	문법 31	문법 2	문법 2	문법 10	76	55.9
	말본 6	말본 5	말본 18	말본 3				32	23.5
文典 6	문전 5							11	8.0
語典 3	어전 2							3	2.2
	조선어학 2							2	1.5
	어법 2							2	1.5
	소리 1	소리 1						2	1.5
	조선어 1	조선어 1						2	1.5
말 1/ 國文	鮮文通解	소리본 1						6	4.4

正理 1	1/글틀 1/ 어문 1								
13	32	18	25	34	2	2	10	13 6	100. 0

(2)는 (1)의 문법 교과서 이름을 약칭으로 구분해 본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2)를 통해서 볼 때 문법 교과서로 사용된 책들은 그 명칭이 대개 ‘문법’, ‘말본’, ‘문전’, ‘어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명칭들도 사용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검인정 여부 상관없이 사용되었던 것이어서 그리 주목할 필요는 없다.

둘째, ‘문법’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은 55.9%나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1979년 이래로 ‘문법’이라는 명칭으로만 문법 교과서가 나왔다.

셋째, 문법 교과서에서 사용된 ‘문법’이라는 명칭이 단어와 문장의 규칙이나 법칙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말본’이라는 명칭이 23.5%나 사용되어 왔고, 특히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나온 4기 검인정기 교과서에서는 ‘말본’(18개)이라는 명칭이 ‘문법’(7개)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문법’은 ‘말본’(말本)으로, 말의 법칙, 곧 언어의 법칙을 뜻한다는 것이다.¹

넷째, 1기 때 가장 많이 사용된 ‘文典’과 1기와 2기에 사용된 ‘語典’을 통해서도 학교 문법 교과서로 제시된 (1)의 저서들은 단어와 문장이 아닌 우리말 전체의 법칙을 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말본’이라는 명칭이 대개 일제 강점기 때나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회원들의 문법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문법이라는 한자어 명칭보다 ‘말본’이라는 고유어를 사용한 명칭이 당대 많이 사용된 것도 언어 의식적인 측면에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 범위: ‘단어, 문장’ 대 ‘음운, 단어, 문장, 담화’

앞에서 문법 교과서들이 어떤 명칭을 갖고 있었는지 통시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문법, 말본, 문전, 어전 등 다양한 이름을 지니고 있었으나 크게 문법과 말본이 주목되어 왔고, 1979년부터는 ‘문법’이라는 명칭으로 그것도 고등학교용으로만 있어 왔다. 이때의 문법은 단어와 문장만이 아닌 국어 전체에 대한 규칙을 담은 것이었고, 1996년 이후 어문 규정 내용 등까지 문법 교과서에 담고 있다. 이제 앞에서 살핀 문법 교과서들이 구체

¹ 최근 들어 문법을 언어 구성과 언어 운용의 법칙으로 이해하곤 하는데(구본관·신명선 2011), 이는 문법을 국어생활 차원에서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3) 주요 문법 교과서의 내용²

*0는 온전히, △는 조금, ▽는 부록으로 설정

단계	시기	문법 교과서	총론	음운	단어	문장	담화	규범	의미	어휘	옛말
제1단계 혼성 단계	제1기	리봉운(1897)		0							
		유길준(1904)	0		0	0					
		김희상(1909)		0	0	0					
		주시경(1910)		△	0	0					
	제2기	주시경(1911)		△	0	0					
		이완웅(1929)	0		0	△					
		심의린(1929)	0		0	0					
		최현배(1934)		0	0	0					
		박승빈(1937)		0	0	0					
	제3기	최현배(1948)		0	0	0					
		정렬모(1948)			0	0					
		김윤경(1948)		0	0	0					
		제2단계 검인정 단계									
	제4기 1차	최현배(1949)		0	0	0					
		이인모(1949)		0	0	0					
		정인승(1949)			0	0					
		장하일(1949)		△	0	0		△			

² 여기에 제시된 문법 교과서들의 목차 내용은 이관규(2004, 2013)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옛말’ 항목은 여기에 새로 제시한 것이며, 또한 ▽로 표시된 부록 부분도 여기에서 새로이 제시한 것이다. 비록 부록이지만 교수 학습에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여기에 추가한 것이다. 참고로, ‘담화’는 거기에서는 ‘단락’으로 제시되었던 것인데, 2011, 2015 문법 교육과정에서 표기한 것에 따라서 ‘담화’로 바꾸어서 표기하였다.

		이희승(1949)			0	0					
	제4기 2차	최현배(1957)		0	0	0					
		김윤경(1957)		0	0	0					
		이승녕(1956)	0	0	0	0					
		정인승(1956)	0		0	0					
		이희승(1956)	0		0	0					
		김민수 외 (1960)	0		△	0					
	제5기 1차	허웅(1967)	0	0	0	0					
		최현배(1968)		0	0	0					
		정인승(1968)	0		0	0					
		강복수 외 (1967)	0		0	△	0				
		양주동 외 (1967)		△	0	0					
		이명권 외 (1967)	0		0	0	0				
		이승녕(1967)	0	0	0	0		▽			
		이은정(1967)		0	0	0					
		이을환(1967)	0	0	0	0	0				
		강윤희(1968)		0	0	0	△	△			
		김민수 외 (1968)	0	△	△	0		△			
		이인모(1968)	0	0	0	0					
		이희승(1968)	0		0	0		▽			
	제5기	이응백 외	0	0	0	0					

	2차	(1979)									
		김완진 외 (1979)	0	0	0	0		▽			
		허웅(1979)	0	0	0	0					
		이길록 외 (1979)	0	0	0	0	0	▽			
		김민수(1979)	0	△	△	0	△	▽			
제3단계 국정 단계	제6기	문교부(1985)	0	0	0	0		▽			
		교육부(1991)	0	0	0	0			0		▽
	제7기	교육부(1996)	0	0	0	0	0	0	0		▽
		교육인적자원 부(2002)	0	0	0	0	0	0	0	0	▽
제4단계 검정 단계	제8기	이남호 외 (2012)	0	0	0	0	0	0	0	0	0
		박영목 외 (2012)	0	0	0	0	0	0	0	0	0
		윤여탁 외 (2012)	0	0	0	0	0	0	0	0	0
		이삼형 외 (2012)	0	0	0	0	0	0	0	0	0
		이관규 외 (2014)	0	0	0	0	0	△	△	△	0
		박영목 외 (2014)	0	0	0	0	0	△	△	△	0
		윤여탁 외 (2014)	0	0	0	0	0	△	△	△	0
		이삼형 외 (2014)	0	0	0	0	0	△	△	△	0
		이도영 외	0	0	0	0	0	△	△	△	0

		(2014)									
		한철우 외 (2014)	0	0	0	0	0	△	△	△	0

(3)은 (1)의 문법 교재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중반까지는 문법 교재의 내용은 말소리(음운), 단어, 문장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단어와 문장은 초창기부터 문법 교육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둘째, 문장 이상의 단위인 담화는 1996년에 나온 제7기 문법 교과서에서부터 등장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실제성 있는 문법 교육에서 필수적인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맞춤법 등 어문 규범 내용이 이전에는 간간히 등장하다가 1996년 교과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³ 담화 단위와 어문 규범 내용은 실제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동태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넷째, 2002년 교과서에서부터 어휘를 강조하는 것도 주목된다. 특히 2012년에 나온 검정 교과서에서는 문법 교과서 각 단원마다 어휘 내용을 따로 다루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기도 하였다. 2014년 교과서에서는 필수 지침은 아니긴 하였지만 여전히 어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 의미 내용을 1991년 교과서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다루고 있다. 실제성을 강조하여 형식보다는 의미 혹은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국어 교육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담화, 의미, 어휘, 어문 규범 등이 1990년대부터 문법 교과서에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형식보다는 실재를 문법 교육이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004년에 창설된 한국문법교육학회에서는 “생각하는 문법, 생활 속의 문법”을 누리집에다가 게시하고 있다. 이는 문법 교육이 단순한 국어학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음운, 단어, 문장 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실제 국어생활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법 교육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 교육은 법칙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언어의 규칙, 혹은 언어 운용의 규칙을 탐구해 나가는 교육이어야 함을 반영하고 있다. 어휘는 본래 단어 영역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따로 독립해 둔 것은 어휘가 갖는 국어생활에서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자 한 것이다.

³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혹은 문장 부호 같은 내용들이 드문드문 제시되곤 했었다. 많은 경우 부록으로 제시되어 정규 교육의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역삼각형(▽)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 준다.

형식보다는 의미 혹은 기능에다가 더욱 가치 부여를 하는 입장에서 국어생활에 실제 긍정적 역할을 하는 문법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곤 한다. ‘음운-단어-문장-담화’라고 하는 일련의 언어 단위를 갖고 교수 학습해야 하는 문법 교육에서, 이들 각각을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사실 이것들은 독서, 작문, 화법 교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실제 국어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운, 단어, 문장, 담화를 무시한 독서, 작문, 화법 교육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문 규범도 그렇다.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은 물론이고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도 실제 국어생활과 유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문법 과목의 내용으로 논란이 많은 것은 옛말을 다루기 시작한 2012년 교과서에서부터이다. 15세기 옛말의 문법을 처음으로 문법 교과서에 등장시킨 것은 1991년 교과서이다. 1996년과 2002년 교과서에서는 이것에다가 국어사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문법 교과서들에서는 옛말의 문법과 국어사를 부록으로 다루었다. 다시 말하면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말이다. 15세기 옛말 문법과 국어사 내용을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2. 문법이론

언어학은 본래 철학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즉 언어 연구는 그 바탕에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언어 연구 흐름은 대개 서양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전통 문법, 구조 문법, 변형 문법, 인지 문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어 연구 및 문법 교육에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전통 문법은 고대 희랍·라틴 문법에서부터 시작한다. 서기전 5세기에 이미 플라톤(Plato)은 단어와 사물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중시하였고, 단어를 명사(onoma)와 동사(rhema)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서기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명사와 동사에다가 접속사(syndesmosis)를 하나 더 설정하였다. 한편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서기전 5세기에 문장 유형을 진술, 기원, 의문, 명령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트락스(Thrax)는 서기전 2세기에 서양 최초의 문법서라는 『문법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문법을 ‘운문과 산문을 쓰는 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실용적이고 규범적인 전통 문법의 틀을 완성했다. 트락스가 문법 단위를 문장과 단어로 크게 나눈 것이나, 특히 명사, 동사, 접속사, 분사, 관사, 대명사, 전치사, 부사의 여덟 개 품사를 설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로마의 라틴 문법은 BC 1세기에 나온 바로(Varro)의 25권짜리 『라틴어학』에서 완

성된다. 라틴 문법은 삼학(三學), 즉 문법, 논리학, 웅변술의 하나로 학교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부과되었다. 문법에서 다룬 내용은 정서법, 어원론, 통사론, 운율론, 구두법 다섯으로 나뉘는데, 현대의 학교 문법 내용들과 큰 차이가 없다.

(4) 전통 문법의 특징

- ㄱ. 서기전 5세기 이후, 고대 희랍 및 라틴 문법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 ㄴ. 직관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한다.
- ㄷ. 언어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띤다.
- ㄹ. 언어는 변화할 수 없다고 보며, 언어의 변화는 곧 타락이라고 본다.
- ㅁ. 문법은 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칙이라고 본다.

둘째, 구조 문법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한다. 언어학사 차원에서 볼 때 구조 문법은 세 갈래가 있었다. 스위스의 소쉬르, 동구 유럽의 트루베츠크, 미국의 블룸필드의 문법이다. 트루베츠크는 음운론 차원에서 언어 연구를 했으므로 여기선 생략을 하고, 소쉬르와 블룸필드의 언어 연구를 살펴보자. 소쉬르는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언어(language)를 개념(signifie)과 음성 기호(signifiant)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로 보았다. 개별 사람들이 실현하는 언어 형태를 파롤(parole)이라고 했고, 이를 통해서 집단 전체의 추상적, 일반적 언어 형태라고 하는 랑그(langue)를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시적 연구와 구분하여 공시적 언어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현실 언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사후(死後)에 나온 『일반언어학 강의』(1915)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구조 문법은 미국으로 건너가 사피어와 블룸필드를 통해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 블룸필드는 1933년에 나온 방대한 저서 『언어』를 통하여 구조 문법 차원의 언어 연구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이게 된다. 언어 체계에 대한 기술은 공시적 상태의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나, 언어 체계의 기술은 개별 언어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나, 직접 관찰이 가능한 사항을 중시한다는 것이나,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언어 기술의 단계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구조 문법의 특징을 (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5) 구조 문법의 특징

- ㄱ. 20세기 초, 경험주의, 행동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 ㄴ. 객관적이고 기계적이며 언어 자료에 의해 직접 관찰과 증명이 가능한 것을 기술한다.

- ㄷ. 언어의 계층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올라가며 기술한다.
- ㄹ.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보고, 개별 항목의 상호 관계 및 위계 관계를 중시한다.
- ㅁ. 개별 언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체계에 따라 기술한다.

셋째, 변형 문법은 20세기 중반 미국의 언어학자 촘스키가 주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촘스키는 언어학을 철학과 연결시키면서 합리적 사고의 방법으로 언어를 바라보았다. 1965년에 소위 표준 문법이라 하여 변형 문법이 완성된 모습으로 정립되었으며, 문장의 의미 해석을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차례 견해의 변화가 있었다.⁴ 이것은 인간이 사고를 어디서 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이성주의, 합리주의 사조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6)은 변형 문법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변형 문법은 생성 문법이라고도 하고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도 한다. 변형 문법은 심층 구조를 표면 구조로 변하게 하는 변형 규칙을 주목한 용어이며, 생성 문법은 다른 문법 모형과 달리 심층 구조를 설정하여 거기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데에 주목한 용어이다. 그리고 변형 생성 문법은 이 둘을 모두 주목한 용어라 할 수 있다. 흔히 변형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Transformation)을 주목한 것이다.

(6) 변형 문법의 특징

- ㄱ. 20세기 중·후반, 이성주의, 합리주의 철학 사조를 배경으로 한다.
- ㄴ. 심층 구조와 표면 구조를 인정하고, 변형 규칙을 설정한다.
- ㄷ. 언어 보편적인 성격 규명을 목표로 한다.
- ㄹ. 선천적 언어 능력을 중시하며, 언어의 창조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 ㅁ. 한정된 규칙으로 무한한 문장을 생성한다고 본다.

넷째, 인지 문법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랭가커(1987, 1990)를 기점으로 하여 등장하게 된다. 구조 문법이나 변형 문법이 형태론이나 통사론과 같은 소위 객관주의적 언어관 입장을 띠에 비해서 인지 문법은 언어를 마음의 반영이라고 보면서 인간의 인지에 주목하는 문법 모형이다. 인지 문법은 흔히 인지언어학(혹은 인지과학)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언어, 마음, 사회문화적인 경험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

⁴ 변형 문법은 1965년 『통사 이론의 재 양상』이라는 저서로 대표되는 소위 표준 이론(ST) 이후로, 1970년대 중반 의미 해석을 심층 구조와 표면 구조, 그리고 변형 과정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소위 확대 표준 이론(해석론, EST), 1980년대 초반 변형 규칙을 극소화하고 8개 원리로 언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소위 수정 확대 표준 이론(GB), 1990년대 중반 이후 문법적 용어를 사용한 설명을 극소화하여 언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최소주의(Minimalist)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화를 겪게 된다.

다. 몇 가지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 문법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중시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화자와 청자의 마음이 어떠한 맥락에서 언어 표현이 나오게 된 건지를 파악하는 데 주목하였다.

(7) 인지 문법의 특징(이관규 외 옮김 2015:336-373 참조)

- ㄱ. 1980년대에 등장하였으며, 형식주의가 아닌 인지주의를 기본 이론으로 한다.
- ㄴ. 인간의 마음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언어학을 지향한다.
- ㄷ. 언어 표현을 둘러싼 화자, 청자, 맥락의 가치를 중시한다.
- ㄹ. 경험에 바탕을 둔 언어, 사회적 행위로서의 언어를 중시한다.
- ㅁ. 은유와 상징 등을 주목하며, 근본적으로 의미와 의미론에 초점을 둔다.

3. 문법지식교육: 사고력 신장과 실제적 효용

3.1. 단어

3.1.1.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1)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들을 제시된 항목에 따라 분류해 보자.

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 형태가 변하는 단어: _____
-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_____

(2)

다음 글의 밑줄 친 단어들을 '기능'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나는 홀로 쓸쓸히 길을 걸었다. 주위가 너무 적막해서 바람 소리가 한층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아, 고요해라.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3.1.2. 품사의 특성

(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들을 제시된 항목에 따라 분류해 보자.

나는 민아에게 가지고 있던 책 하나를 건넸다.

-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_____
- 어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 _____
-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_____

(4)

다음 밑줄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보자.

- 언니____ 집____ 동생____ 숙제____ 도와주었다.
- 너____ 내____ 힘____ 모아 이 문제____ 해결하자.
- 이 방____ 깨끗한데 저 방____ 깨끗하지 않다.

(5)

다음 문장의 ㉠~㉤을 바탕으로 제시된 표의 빈칸을 채워 보자.

친구 은채가 ㉠아픈데 빨리 ㉡나아서 함께 ㉢놀고 ㉣싶어.

	㉠	㉡	㉢	㉣
품사	형용사			
기본형	아프다			
어말 어미의 종류	연결 어미			

(6)

다음 글에서 관형사와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종류별로 분류해 보자.

가슴 설레며 맞이했던 새 학기도 끝났다. 그리고 방학이 찾아왔다. 우리는 곧 정든 이 학교를 떠나 사회에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관형사	부사
• 지시 관형사: 이	• 성분 부사: _____
• 성상 관형사: _____	• 문장 부사: _____
• 수 관형사: _____	

(7)

다음 글에서 감탄사를 모두 찾아 표시해 보자.

이들의 다름을 가소롭게 지켜보던 골부 할머니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에헴, 나도 말잡건 좀 해 볼까나! 중한 거로 따지자면 나만 한 이 또 없지. 아씨 손부리 다칠세라 밤낮 시중드는 건 내 몫이 아닌감? 세상천지에 손부리 아프고도 되
는 바느질이 어디 있나! 내가 빠져선 안 되지. 암, 그렇지.”
- 이영경, 『아씨랑 일곱 동무』

3.1.3. 단어의 짜임과 의미

(8)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 보자.

그 사람 옆에는 어린아이가 많이 있었다.	
단어	
형태소	

(9)

다음 세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지우개	물	꽃길

(10)

다음 단어들을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로 분류하고, 각 접사의 의미를 써 보자.

들끓다 선생님 일꾼 참기름 새파랗다 멧쟁이	
접두 파생어 • 들끓다 • •	→ 각 접두사의 의미 • 들-: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함. • •
접미 파생어 • 선생님 • •	→ 각 접미사의 의미 • -님: '높임'의 뜻을 더함. • •

(11)

다음 단어들을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해 보자.

뛰놀다 젊은이 잡아먹다 굳세다 오르내리다 작은아버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12)

다음 매체에 쓰인 새말을 찾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단어인지 살펴보자.



(13)

「보기」에서 '기쁨'의 유의어, 반의어, 상의어를 찾아 써 보자.

「보기」	즐거움, 슬픔, 감정, 쾌락, 희열, 환희, 괴로움		
기쁨	유의어		
	반의어		
	상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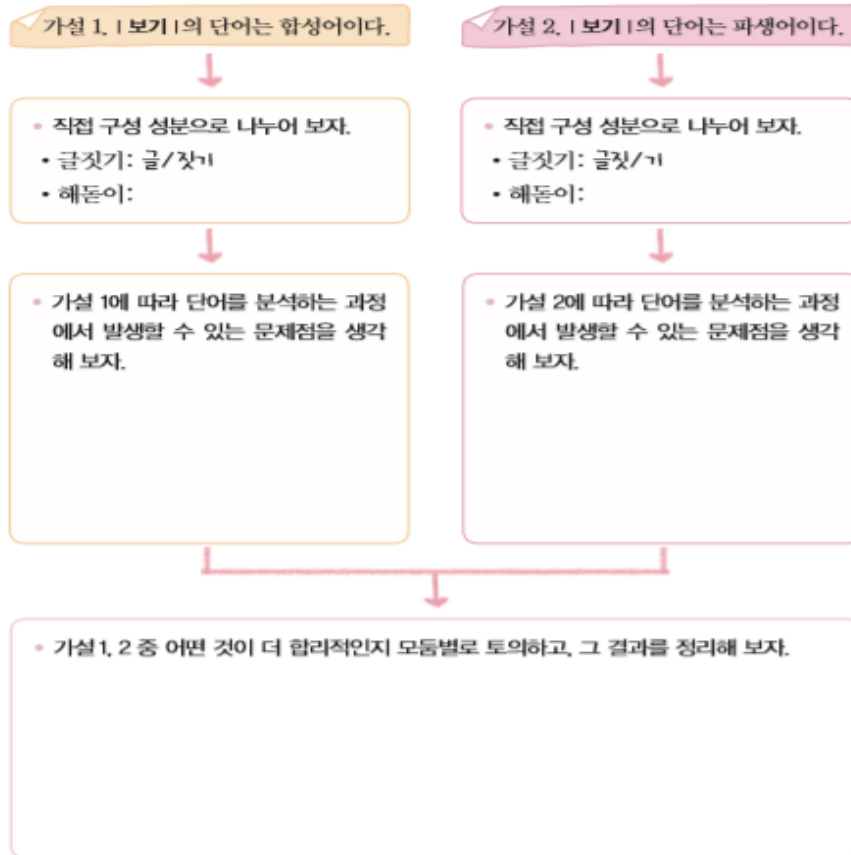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형성 과정을 모듈별로 탐구해 보자.



「보기」

글짓기 해돋이

(1) 「보기」의 단어들에 대한 두 가설을 보고, 다음 과정에 따라 탐구해 보자.



(2) 「보기」의 단어들처럼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단어의 예를 더 찾아보자.

구두담이, 책꽂이,

(14)

3.2. 문장

3.2.1. 문장의 짜임과 활용

(15)

다음 문장에서 어절별로 문장 성분을 말해 보고, 각 문장이 홑문장인지 겹문장인지 말해 보자.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
- 공기가 맑으면 물도 맑다.
-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16)

다음 겹문장을 홑문장으로 나누어 보자.

(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인생은 짧다 + 예술은 길다.

(나) 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 않다.

→ _____ + _____

(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

→ _____ + _____

(라) 비가 와서, 길이 질다.

→ _____ + _____

(17)

다음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바꾸어 보자.

• (그 일을 하다)가 어렵다.

→ _____

• (향기가 좋다) 꽃이 예쁘다.

→ _____

• 주희는 (머리카락이 휘날리다) 달렸다.

→ _____

(18)

㉠~㉤에 해당하는 절의 종류와 표지를 빈칸에 적어 보자.

지난주에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아버와 약속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부엌에 있는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둘이야!"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네 강아지인 둘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둘이는 ㉢꼬리가 매우 길니다. 나는 ㉣밭이 깊도록 둘이와 놀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둘이가 나를 무척 기다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의 종류	절의 표지
㉠	명사절	명사형 어미 '-기'
㉡		
㉢		
㉣		
㉤		

3.2.2. 문법요소의 효과와 활용

(19)

'가다'를 활용하여 다음 대화의 밑줄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자, 이제 교실로 갈까?

조금만 더 놀다 _____.

이제 곧 점심시간이야. 빨리 _____.

(20)

다음 문장의 형식과 기능을 말해 보자.

- 내가 너한테 밥 한번 못 사 주겠냐?
- 창문 좀 열어 줄래요?

(21)

다음 상황에서 고객이 당황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22)

1. 다음 문장에서 '윤채'를 '할머니'로 바꿈에 따라 달라지는 종결 표현을 써 보자.

- 윤채야, 이것 좀 봐. → 할머니, 이것 좀 _____.

2. 다음 문장에서 높임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 선생님, 지금 시간이 계세요?
-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마당에 있으십니다.
-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 자유야, 선생님께서 너 빨리 교무실로 오시라고 해.

(23)

1.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며 시간 표현의 실현 방법을 정리해 보자.

과거 시제	• 선어말 어미 ‘-았-/었-’, ‘-았었-/었었-’, ‘-더-’ • 동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 ’,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서 는 ‘ ’ • ‘어제, 옛날, 지난’ 등의 시간 부사어
현재 시제	• 동사에서는 선어말 어미 ‘ ’, 관형사형 어미 ‘ ’ •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선어말 어미 없이 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 ‘지금, 현재’ 등의 시간 부사어
미래 시제	• 선어말 어미 ‘ ’ • 관형사형 어미 ‘-(으)ㄹ’ •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의 결합형인 ‘-(으)ㄹ 것’ • ‘내일’ 등의 시간 부사어

2. 다음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어 보자.

- 바람이 몹시 차가웠다. → _____
- 해지는 어제 열심히 훈련을 했다. → _____

3. 다음 대화에 나타난 ‘-겠-’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하람 어서 가자. 공연에 늦겠어.
지원 그래. 와, 저기 공연장이 보여. 저 공연장에는 관객이 천 명은 들어가겠다.
하람 정말 멋지다. 나도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꼭 여기에서 공연을 하겠어.

4. 두 문장의 의미상 차이를 말해 보자.

- 영이는 국수를 다 먹어 간다. • 영이는 국수를 다 먹어 버렸다.

(24)

1. 다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보자.

- 내가 그의 발을 밟았다.

→ _____

- 정우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다.

→ _____

- 동생이 종이를 구겼다.

→ _____

2. 다음과 같이 동일한 상황일 때, 이를 나타내는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의 의미 차이를 생각해 보자.



(25)

1. 다음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어 보자.

- 열음이 녹는다. → 난로불이 _____

- 연주가 짐을 졌다. → 아버지가 _____

2. 다음 문장을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으로 바꾸어 보고, 두 사동문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 손주가 한복을 입었다.

→ 파생적 사동문: 할머니께서 _____

→ 통사적 사동문: 할머니께서 _____

(26)

다음 시를 통해 부정 표현을 탐구해 보자.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후략)

— 장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1) 이 시에서 부정 표현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말해 보자.

(2) 이 시의 밑줄 친 '없는'이 부정 표현인지 아닌지 토의해 보자.

4. 나아가기

추상성과 구체성

이론성과 실제성

<참고문헌>

- 이관규 외 옮김(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 이관규 외 옮김(2008), 국어 수업을 위한 언어 탐구와 인식, 박이정.
- 이관규 외 옮김(2015), 교사를 위한 문법 이야기, 사회평론.
- 이관규 외 옮김(2017), 문법 가르치기, 역락.
- 이관규 외(2012, 2014), 독서와 문법, 비상교과서.
- 이관규 외(2014), 어휘 교육론, 사회평론.
- 이관규 외(2019), 언어와 매체, 비상교과서.
- 이관규(1999, 2012), 학교 문법, 월인.
- 이관규(2005, 201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역락.
- 이관규(2008, 2013), 학교 문법 교육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의 내용과 방법

왕 단
(북경대학교)

1. 어휘 지식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 문법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확한 표준 발음을 구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어의 내용을 구성하는 어휘가 부족하다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 문법 지식 없이도 문맥의 의미는 어느 정도 전달되지만, 어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의미 전달이 전혀 되지 않는다.(Wilkins, 1972)

2. 어떤 어휘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1) 어휘력이란 무엇인가?

- 어휘력(vocabulary knowledge): 학습자들이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다.
- 어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2) 어휘력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 Richards(1976: 77-89): 어휘를 배운다는 것은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으로 나타나는 지식의 일부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휘 능력의 8 개 가정(assumption)을 들고 있다.

① 모어 화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휘 확장을 계속한다. 보통 2 만에서 10 만 개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②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빈도 collocability)

③ 단어를 안다는 것은 기능과 상황에 따른 사용제약을 안다는 것이다. (때, 지역, 서법 등)

④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어의 통어적 형식을 안다는 것이다. (타동형, 격)

⑤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어의 기저형과 파생형을 안다는 것이다.

⑥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다른 단어와의 연결망(network of associations with other

words)에서의 자리를 안다는 것이다.

⑦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가(semantic value)를 안다는 것이다.

⑧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의 다른 의미도 안다는 것이다. (다의성)

- Carter, R. & M. McCarthy(1988):

①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단어의 수동적인 지식만이 필요하며 사용자에게 따라서 어떤 단어는 수동적으로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생성적 사용 방법을 알며 능동적인 사용을 위해 단어를 상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한다.

② 음성어나 문자어 텍스트 또는 양자에 있어서 단어가 나타날 가능성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③ 단어가 들어갈 통사적 틀과 그 기저형식 및 파생어의 지식을 의미한다.

④ 해당 언어에 있어서 다른 단어들과 또한 L1에 있어서 관련되는 단어와 맺게 되는 관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⑤ 단어의 보다 유표적인 화용적, 담화적 기능과 그 문체 수준은 물론 단어의 상대적인 핵심정의 인지를 의미한다.

⑥ 단어와 연관되는 상이한 의미 및 빈번하게 연관되는 언어적 패턴범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⑦ 필요한 경우 반복하고 적용하도록 암기된 고정표현의 일부 또는 전체로서의 단어의 지식을 의미한다.

- Carey(1978): 어휘력을 이루는 제 요소는 해당 어휘의 형태적, 의미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의 어휘 자체에 대한 개념 및 개념 위계에 대한 지식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즉 한 어휘를 배운다는 것은 먼저 그것이 하나의 어휘임을 아는 것이며, 그것의 형태, 통사, 의미적인 자질 및 다른 어휘와의 관계 및 개념적 위계를 아는 것이므로 이들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을 때 비로소 어휘력의 신장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Solos(1979), Anderson(1985), Mclaughlin(1987), Johnson(1996): 한 단어를 아는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가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고 적합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단어를 안다는 것은 어휘 사용의 측면에서 볼 때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과 사용 능력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 Nation(2001: 27): 단어를 안다는 것이 포함하는 제 요소:

① 형태(form): 구어(spoken), 문어(written), 단어 파트(word parts)

② 의미(meaning): 형태와 의미(form and meaning), 지시대상, 정의(concept and referents), 결합관계(associations)

③ 용법(use): 문법 기능(grammatical functions), 연어(collocations), 사용제한(constraints on use)

☞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형태, 의미 그리고 용법까지 모두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어휘력이라는 언어 지식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산출해 낸 세계에 관한 지식의 총화를 이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광해, 1993)

☞ 어휘를 가르칠 때 어휘의 의미 정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태 정보와 통사 정보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3) 어휘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 어휘를 명확하고 조리 있게 이해하여 적절하게 사용해 내려면 어휘의 의미, 형태, 통사 정보 그리고 어휘 관계 정보 등을 함께 교육시켜야 한다. 어휘 교육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자질 요소는 다음과 같다.

항목 구성 자질 요소

I. 의미 정보 정의 ◇그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단어의 주변적 의미는 무엇인가?

I. 의미 정보 적용 범위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구어인가, 문어인가?

I. 의미 정보 함축적 의미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가?

◇어떤 느낌을 주는가?

◇무슨 목적으로 쓰는 말인가?

II. 형태 정보 단어 형성 정보 ◇단어의 구성은 어떠한가?

II. 형태 정보 활용 정보 ◇그 단어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III. 통사 정보 문형 정보 ◇어떤 문형이 적용되는가?

III. 통사 정보 선택제약 ◇어떤 단어가 논항이 될 수 있는가?

III. 통사 정보 문법 제약 ◇인칭, 수, 부정 등 문법적 제약이 있는가?

IV. 어휘 관계

정보 유의어 ◇이 단어와 뜻이 비슷한 말이 무엇인가?

◇유의어간의 의미 차이는 무엇인가?

IV. 어휘 관계

정보 반의어 ◇어떤 말과 짝을 이루는가?

IV. 어휘 관계

정보 상, 하의어 ◇어떤 말과 상,하의 관계가 있는가?

3. 어휘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B. Seal(1991: 296-311): 의미 전달(conveying meaning)의 단계, 이해 확인을 위한 연습(exercises that check understanding)의 단계, 통합(consolidation) 단계

- 전해영(2001: 188): 의미 전달 단계, 확인 연습 단계, 통합 활용 단계

☞ 어휘 교수, 학습 모형: 지식 전달 단계, 확인 연습 단계, 통합 활용 단계, 평가 단계

(1) 지식 전달 단계

- 지식 전달 단계: 어휘 정보를 학습자에게 전수하는 단계이다.

- 전달될 어휘에 관한 지식은 개별 어휘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앞에서 제시한 어휘 의미 정보 제시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유의해야 할 것은 실물, 그림 등 시각적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학습자의 모국어로 제시하는 방법은 한국어를 배운지 얼마 안 된 초급 학습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학습자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에게 한국어로 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학습자에게 해당 어휘에 관한 여러 상황을 제시해 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일정한 상황이나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예시: '우울하다'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단어의 뜻을 추측하게 할 수 있다.

<예시 1> ㄱ. 친한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ㄷ. 아무 잘못도 없지만 벌을 받았다.

- 어휘 지식을 전달할 때 어휘의 의미 정보뿐만 아니라 발음 정보, 형태 정보, 통사 정보, 다른 의미와의 관계 정보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 어휘 정보에서는 불규칙 형태 변화가 있는 어휘나 복잡한 문형을 가진 어휘를 설명할 때 용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단순히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해당 단어의 반의어와 유의어로 그 단어의 의미를 밝히는 것 또한 학습 현장에서 적용

해 볼 만한 방법이다.

(2) 확인 연습 단계

- 확인 연습 단계: 전 단계에서 학습한 어휘를 연습을 통하여 내재화하는 단계이다.
- 이 단계는 어휘의 의미를 연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의 형태, 통사 등 다양한 어휘 정보도 함께 연습시킬 수 있다.
- 이 단계에서 활용되는 방법은 ‘빈칸 채우기’, ‘연결하기’, ‘단문 짓기’등이 있다.

<예시 2> 다음 단어의 정확한 형식으로 빈칸 채우시오.

그는 저에게 (수줍다) 미소를 지었다.

<예시 3> 맞는 단어를 골라서 빈칸을 채우시오.

김 선생님께서는 어제 _____ 학교에 못 오셨어요. ①편찮으셔서 ②아파서

<예시 4> 다음 반의어를 연결하십시오. 춤다 · · 기쁘다

슬프다 · · 덥다

(3) 통합 활용 단계

- 통합 활용 단계: 언어의 여러 가지 기능과 통합된 방식으로 어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연습시켜 어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휘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단계이다.
-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유의미적인 연습 활동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어휘 정보를 전면적으로 숙지시키는데,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 유형과 연습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예시 5> 상상해 보라!

절차: ①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준다. 예: ‘아름다운 소녀’

② 그들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주제에 관한 내용을 상상해 보게 한다. 어휘를 되도록 많이 사용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힌트를 줄 수도 있다.

눈 키 피부 허리 머리 몸매 입술

<예시 6> 나의 생활 습관

절차: ① 먼저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를 준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한 일련의 문장을 준다. 그 생활 습관은 앞에서 제시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는 행동이다.

상황

생활 습관

주위가 시끄럽다	한 시간 정도 산책한다.
바쁘다	식사 후에 후식을 꼭 먹는다.
힘들다	조간신문을 꼭 읽는다.
배가 부르다	계획한 일을 꼭 한다.
시간 없다	책을 읽을 수 있다.

② 학습자들로 하여금 서로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하게 하고, 학습자 두 명 문답의 형식으로 연습하게 한다.

예: - 유민 씨, 그렇게 바빠도 산책해요?
- 그럼요. 아무리 바빠도 전 꼭 산책을 해요.

<예시 7> 맛이 어때요?

절차: ① 일부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한국 음식 이름을 써있는 카드를 준다.

예: 비빔냉면, 떡볶이, 감자튀김, 오징어, 숯불, 된장찌개, 매운탕, 목은 김치
.....

② 나머지 학습자에게 음식 맛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적혀있는 카드를 준다.

예: 달다, 짜다, 싱겁다, 맵다, 시다, 쓰다, 고소하다, 구수하다, 달콤하다, 짭짤하다.....

③ 음식 이름과 맛을 적혀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을 서로 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4) 평가 단계

- 평가 단계: 교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교수 내용과 방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이다.

- 어휘 학습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널리 쓰는 방법은 질문지를 통하여 어휘를 익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지만, 비교적 재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더 인기가 있다.

<예시 8> 나도 작가다!

절차: ① 학습자에게 수업 시간에 배운 형용사가 들어있는 본문의 사본을 제시해 준다. 본문에 있는 모든 형용사를 미리 가리거나 지워준다.

②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시간에 배운 형용사로 빈칸을 채우도록 한다.

<예시 9> 진실? 거짓?

절차: ① 수업 시간에 배운 형용사를 칠판에 쓴다. 이들 형용사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 정의를 제시한다. 연습의 난이도를 높이려면 형용사의 수보다 훨씬 많은 정의문을 제시

하면 된다.

② 정의문에서 주어진 단어에 대한 정의는 정확한 정의인지 틀린 정의인지 알아맞치게 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2004), 통합적 어휘 관계를 이용한 관련어 교수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4 차 국제 학술대회, 국제한국교육학회.
- 곽지영(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말 2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광해(1995), 어휘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 김광해(1998), 유의어의 의미 비교를 통한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신청어문 2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광해(1999), 형용사 유의어의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신청어문 2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광해(2002), 한국어 어휘교육의 기반 다지기, 한국(조선)어 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준비위원회.
- 김미옥·정희정(2003),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어휘 오류분석, 한국어 교육과 학습자 말뭉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연구센터 제 3 회 한국어교육 국제워크숍.
- 김병운(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의미 교육방법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1, 태학사.
- 김수정(1998), 문맥을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4), 한국어 어휘 교육 항목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어 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 문금현(1999), 관용 표현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고찰, 신청어문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문금현(2003),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박동호(1998), 대상부류에 의한 한국어 어휘 기술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동호(2001), 한국어 어휘기술 방법론과 어휘교육, 미국한국어교사협회·국제한국어교육학회 연합 학술대회 발표요지모음집.
- 박영순(2002),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21 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박재남(2002),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상규·남윤진·진기호(199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어휘 선정,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손영애(1992), 국어어휘 지도 방법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현숙(1998), 한국어 어휘교육과 의미사전,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왕혜숙(1995), 영어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분석, 이중언어학회지 12, 이중언어학회.
- 이정희(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우(1990), 어휘교육의 기본 과제, 국어교육 71·7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전혜영(2001),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정희정(2001), 한국어 어휘 교육과 사전 정보, '한국어 교육과 사전' 제 15 회 언어정보 연찬회 발표 논문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조향록 외(2003), 예비 교사·현직 교사 교육용 교재 개발 최종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 재단.
- 조현용(1999),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교육,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최문경(1992), 낱말 지도에 관한 연구, 모국어교육 10, 모국어교육학회.
- 최영환(1993), 합성명사 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희수(2002), 어휘 교수에서의 몇 가지 문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3, 태학사.
- 한상미(2001), 학습자 자율성에 기초한 한국어 어휘 교육 사례 연구,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송화(2004), 언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4 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정일(2000),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후문옥(2003), 중국어권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rter, R. A.(1987), Vocabulary: Applied linguistic Perspectives, 원명옥 옮김(1998), 어휘론의 이론과 응용(역), 한국문화사.
- Carter, R. A. & M. J. McCarthy(1988),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 Hatch & Brown(1995), Vocabulary, Semantics and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o, R.(1957), Linguistic Across Culture: Applied Linguistic for Language Teacher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wis, M.(1993),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김성환 옮김(2002), 어휘접근법과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 Richard, J. C.(1970), A Psycholinguistic Measure fo Vocabulary Section, IRAL 8(2).
- Richard, J. C.(1976), The role of vocabulary teaching, TESOL Quarterly 10(I)
- Seal, B.(1991),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Heinle & Heinle Publishers.
- Sinclair, J.(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한국어 어휘 교수법 예시>

마인드맵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수법

왕 단
(북경대학)

1. 머리말

20 세기 60 년대 영국 학자인 토니 부잔(Tony Buzan)에 의해 구안한 마인드맵은 조직적인 사고 도구로서 두뇌에 저장된 사고를 재생하듯 표현하는 것이다. 마인드맵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추상적 사고와 구상적 사고를 결합시키고 사람의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작동시켜 자기의 사고를 그림으로 보여 주는 데 있다. 그 동안 중국이나 한국에서의 마인드맵은 영어 어휘, 문법, 읽기, 쓰기 등의 교육에 널리 활용되어 왔고 이에 대한 풍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특히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그리 중요시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연구 성과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선 마인드맵에 관련된 원리 분석과 이론적인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한국어 교육, 특히 한국어 어휘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성을 입증해 낼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 어휘의 특징을 반영한 마인드맵을 활용한 몇 가지 어휘 교수법을 구안하여 어휘 교육에의 적용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와 학습자 두 측면으로 나누어 이 방법이 어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고 어휘의 기억력을 강화시키며 학습 방식을 전환하는 데 미치는 역할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2. 마인드맵 관련 이론

이 부분에서는 마인드맵의 개념, 특징, 그리고 작성법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마인드맵은 한 마디로 '마음의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심리학자인 토니 부잔(Tony Buzan)이 '학습 장애', 특히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두뇌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학습 기법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마인드맵은 두뇌에 저장된 사고를 재생하듯 표현하는 것인데, 두뇌의 잠재력인 좌뇌 기능과 우뇌 기능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그것을 그래픽 기술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두뇌 속에 어휘 학습, 문제 해결, 독서 등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지도를 그리듯이 배열함으로써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억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두뇌 개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중심 이미지와 핵심 단어, 그리고 색, 부호, 상징 기호 등을 사용함으로써 좌, 우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여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21 세기형 정보 처리 및 활용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인드맵은 중심 이미지로부터 방사상으로 아이디어들을 뻗어나가게 그려서 방대한 연상 결합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 주어, 사고의 폭이 넓어져 활용 분야들을 개척해 낼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형식, 활용 등의 개발과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마인드맵 기법은 새로운 학습 기법이고 정보 처리 기법이며, 이미지와 언어의 연상 작용에 의한 시각적 노트 작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잔은 마인드맵의 특징을 구조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1) 생각의 핵심이 되는 주제는 중심 이미지에서 시작한다.
- (2) 중심 이미지에 연결되는 주가지는 나뭇가지처럼 중심 이미지에서 방사상으로 뻗어나간다.
- (3) 주가지에서의 연결은 가늘게 중심 이미지와 핵심어를 통해 연결해 나간다.
- (4) 계속 이어지는 부가지들도 나뭇가지의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구조를 취한다.

마인드맵을 구성하는 요소는 단어, 선, 색깔, 그림, 표기, 연상이고 기본적인 마인드맵 작성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중심 이미지, 즉 핵심 주제이다.

- 주제를 찾는다.
- 중심 이미지는 종이의 중앙에 이미지로 3 가지 내지 4 가지 색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2. 주가지, 즉 주제이다.

- 중심 이미지에서 가지를 굵게 뻗어나가게 그린다.
- 이 가지들 위에 단어를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림과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미지의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이 가지들은 확실하고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 선명하고 굵은 선을 사용하고 각자 다른 색을 사용한다.

3. 부가지, 즉 부주제이다.

이 부가지들은 주가지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 주가지 끝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시켜 준다.
- 이미지가 아닌 핵심어로 표현할 경우, 글씨는 주가지에 썼던 글씨보다 조금 작은 글씨로 표현한다.

4. 세부가지

- 부가지의 내용을 더 자세히 보충할 수 있는 잔가지를 만든다.

- 세부가지들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덧붙일 수 있다.
- 세부가지는 그림, 글자 혹은 그림과 글자를 혼합해서 써도 된다.

3. 어휘 교육 차원에서 본 마인드맵의 이론적 배경

(1) 두뇌 이론과 마인드맵

마인드맵의 근간은 두뇌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0년대 말 캘리포니아대학교의 로저 스페리(Roger Sperry) 교수는 대뇌 뇌피질의 양면, 즉 양 반구에 의해 주요 지적 기능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중 좌뇌, 즉 왼쪽 반구는 언어, 숫자 등의 논리적, 분석적, 언어적, 수학적 기능을 수행하고, 우뇌, 즉 오른쪽 반구는 상징, 기호, 리듬, 색상 등의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지각하는 예술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각의 반구가 어떤 특정 영역의 활동을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모든 영역을 관장하고 있다. 양 반구가 어떤 중심 주제에 집중할 때에는 서로 교류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토니 부잔은 이러한 두뇌 이론에 근거하여 마인드맵을 개발하였다. 마인드맵은 우리 두뇌의 활동 방식과 일치하는 방법이다. 마인드맵을 사용하면 순서 없이 발상되는 내용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될 수 있고, 좌뇌와 우뇌를 한꺼번에 쓰는 공동 작용 사고를 자극하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두뇌에 저장된 모든 감각, 기억, 사고는 수십, 수백, 수천, 수백만 개의 갈고리가 방사상으로 뻗어 나오는 구 모양의 중심체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 두뇌의 사고 패턴은 선이 수없이 많은 자료의 중심점에서 방사상으로 뻗어 있는 슈퍼바이오컴퓨터라고 보고 있는데, 이 거대한 정보처리 능력으로부터 방사사고이론이 나왔다. 마인드맵은 바로 이러한 방사사고의 표현이다.

(2)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마인드맵

구성주의는 정보화 사회, 무한 경쟁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등장한 학습 이론이다. 구성주의에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들과 서로 관련된 정보를 만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제를 발견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 구성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학습은 학습자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기존의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낸다는 것인데, 이는 곧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쓸모없는 지식에서 맥락적 지식 중심, 획일적 환경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환경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구성주의 이론은 학습의 본질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마인드맵을 만드는 과정은 바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행 학습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다.

(3) 유의미 학습 이론과 마인드맵

오수벨(Ausubel)에 의해 제시된 유의미 학습 이론도 마인드맵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이다. 유의미 수용 학습은 새로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구조와 관련지어질 때 학습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학습이 유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수벨에 따르면, 수업 과정에서 교사는 임의적이지 않고 이전에 배운 정보나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을 언어적 설명을 통해 학습자가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는 또한 선행 조직자(advanced organizer)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선행 조직자란 새로운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인지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현재 학습할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수업의 내용이나 그 요점을 포괄적, 추상적으로 압축하여 시사해 주는 언어적 설명을 말한다. 마인드맵이 선행조직자로 사용됨으로써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이 새로운 정보와 연결되어 유의미한 학습이 촉진된다.

(4) 지식의 시각화와 마인드맵

심리학자인 파비오(Paivio)에 의해 제시된 '이중 부호화' 혹은 '이중 코드화' 가설에 의하면, 인간은 비언어적 체계와 언어적 체계, 즉 두 가지 부호 체계를 가진다. 비언어적 체계는 시각 및 공간적인 정보를 부호화하고 조직하며,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이고, 언어적 체계는 추상적인 정보를 의미하며 기억이 쉽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습 자료를 시각 부호와 어문 부호로 동시에 표상하면 기억이 향상되고, 시각 부호와 어문 부호를 함께 묶어서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지식의 시각화는 시각 학습의 중요한 형식이고 그림, 사진, 애니메이션, 표정 이모티콘, 동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 속에서 살고 있는 신세대 학습자들의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이다. 마인드맵은 언어와 시각, 이 두 가지 코드를 동시에 이용하여 단어에 대한 기억력을 강화하고 망각률을 낮춤으로써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5) 활성화 확산 모델과 마인드맵

컬린스와 킬랑(Collins & Quillan)은 1969년에 '연상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두뇌 속의 각각의 개념(이미지 조각)은 '노드(개념의 표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노드는 체계

적으로 결합된 링크(연결 고리)를 형성하고, 이들은 인간의 기억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75년에 컬린스와 로프터스(Collins & Loftus)는 연상 네트워크 모델을 활성화 확산 모델로 확장시켰다. 활성화 확산 모델에 따르면 특정 개념에 관한 정보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그 개념과 의미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개념에까지 활성화가 확산된다. 즉 의미 점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단어는 고립된 언어 단위가 아니라 서로 연계된 체계와 층위 안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어휘 교육을 할 때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잘 파악하고, 활성화 확산 모형처럼 단어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인드맵은 바로 그림의 방식으로 단어 간의 관계를 보여 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서로 연관되는 어휘망을 구축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인출을 용이하게 한다.

(6) 처리 수준 모형과 마인드맵

크레이크와 로크하트(Craik & Lockhart)에 따르면, 기억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반복 노출에 의해 기억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암송 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는 정보가 처리되는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자료를 심도 있고 의미 깊게 암송해야만 기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보 처리 수준의 깊이(levels of processing)는 얕은 처리, 중간적 처리, 깊은 처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보에 대한 처리 수준이 깊을수록 정보의 정교화가 잘되어 기억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Craik & Lockhart, 1972). 이것은 바로 기억 이론 중의 하나인 처리 수준 모형(levels of processing model)이다. 마인드맵을 만드는 과정은 바로 단어의 발음, 형태, 의미, 공기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형태와 의미 등에 대한 처리가 깊어질수록 어휘 간의 관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와 기억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7) 어휘의 특징과 마인드맵

단어들의 체계적인 집합인 어휘는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구성 부분인 하나하나의 단어는 다른 단어와 발음, 형태, 의미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 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 단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단어와 비교하여 그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즉 둘 이상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 음, 형, 의의 측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단어의 속성을 파악하고 단어를 기억하는 데 유익하다. 어휘 교육으로 사용되는 마인드맵은 임의의 단어와 관련된 다른 단어를 계속해서 연상하게 하여 단어의 확장성과 융합성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맵핑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두뇌에 숨어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끌어내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단어를 상기하게 하고 어휘 확장을 통한 자기 주도적인 어휘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상으로 마인드맵을 어휘 교육에 적용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결국 마인드맵은 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언어를 도구로 하는 추상적 사고와 이미지를 도구로 하여 사고하는 이미지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포용하고, 두뇌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강력한 그래픽 기술이다. 그리고 좌뇌와 우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함께 상호 작용시킴으로써 어휘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까지 활발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마인드맵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수법

마인드맵 이론과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마인드맵을 활용한 교수법을 구안한다.

4.1. 단어의 구조를 이용한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

◆ 접사를 이용한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

한국어는 교착어인데, 교착어의 특징 중 하나는 접사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접사를 잘 활용하면 단어의 뜻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단어의 형태소가 담고 있는 의미 정보와 단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어휘력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어를 가르칠 때 접사의 의미를 먼저 숙지시키고 마인드맵핑을 통하여 그 접사가 들어 있는 단어를 최대한으로 상기하게 하는 연습이 단어의 구조적 특징을 탐구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단어 '헛걸음'을 가르칠 때 이 단어의 구성에 대해 이해시킨 다음에 접두사 '헛'이(그림 2) 포함된 동사와 명사, 그리고 접미사 'ㅁ'이(그림 3) 포함된 명사를 각각 마인드맵으로 그리라고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접미사 '보' 같은 경우, 그 앞에 오는 형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마인드맵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림 4). 이러한 방법은 다른 접사에 대한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법을 통하여 학습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접사에 대한 지식과 이미 배운 단어를 인출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 한자어의 특징을 이용한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약 60~70% 정도를 차지하는 한자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는 글자마다 의미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조어력이 아주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시기가 난 후 중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마인드맵으로 이미 배운 한자어를 복습하게 하고 장차 배울 한자어의 의미를 유추하게 함으로써 큰 학습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 효율성은 이미 교육 현장에서 검증된 바 있다.

예를 들면 교사는 칠판에서 '경'(그림 5)자를 써 놓고 학습자에게 '경'자가 들어있는 한자어를 최대한으로 상기하게 하고 그 후에 '경'자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분류하여 그룹 활동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라고 지시한다. 한자 '학'(그림 6)자를 가지고도 비슷한 연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학'자가 첫 번째 음절인 경우도 있고, 다른 음절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4.2. 어휘의 의미 관계를 이용한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

개별 단어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의 의미적 상관관계에 따라 파악된다. 어휘 의미 관계는 크게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계열 관계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의 관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고, 통합적 관계는 연어, 관용 표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인드맵 방법을 이용하여 단어와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그 단어와 유의, 반의 등의 관계를 가진 단어들과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봄으로써 단어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다.

◆ 다의, 반의, 유의 관계를 이용한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

어휘 교육에 있어서 어휘 정보의 제시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은 서로 다른 학습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어휘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한 단어를 접할 때부터 그 단어와 다른 단어 간의 의미 관계 등의 풍부한 어휘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단어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형용사 '가깝다'(그림 7)를 가르칠 때 교사는 이와 같은 마인드맵을 그려 학습자들에게 이 단어의 용법, 의미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이미 배운 지식과 연관시켜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단어의 용법을 잘 파악하게 해준다.

◆ 상하의 관계를 이용한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

상하 관계는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계층적 구조로서 한 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섭하거나 다른 쪽에 포섭되는 관계를 말한다. 상하 관계에서는 더 특수한 의미를 지닌 어휘소가 더 일반적인 어휘소에 포함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일반적인 어휘소를 상의어라고 하고 특수한 어휘소를 하의어라고 한다. 하나의 상의어 아래 의미상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 집단을 의미장이라고 한다. 적절한 시기에 학습자들이 배운 단어를 귀납, 정리하여 마인드맵으로 단어 간의 상하의 관계를 정교하고 정연하게 정리해 주고 새 단어와 배운 단

어를 서로 연관 지어 준 것은 어휘력의 증가와 어휘 기억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단어 '짜다'를 가르칠 때 미각어 마인드맵핑을 하게 할 수 있고, 각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표시해 주도록 한다(그림 8). 또한 각 미각어의 대표적인 음식을 상기하게 하고 미각어와 대응하는 식품 사이에 일정한 연관 관계를 만들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각 단어가 대응하는 유의어, 반의어를 표시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외에 동물(그림 9), 식물, 야채, 과일 등의 의미장 마인드맵을 그려보게 하는 시도도 할 수 있다.

4.3. 자유 연상을 통한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

이상은 한국어 단어의 구성과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구안한 마인드맵 교수법에 대한 언급이다. 실은 마인드맵 교수법은 단어의 이러한 질서 정연한 관계를 제시하는 것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주제에 대한 합리적인 연상을 통해 단어와 단어 간의 유기적인 연관을 표현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연상은 핵심 주제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배운 단어로 자유분방한 생각 그대로를 종이 한 장에 펼쳐 놓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초, 중급 교재의 본문 부분의 주제를 고찰해 보면 대부분은 주제, 기능, 상황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위주의 본문은 대략 가족 관계, 날씨, 직업, 교통, 취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 위주의 본문은 자기 소개하기, 확인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 위주의 본문은 식당에서, 병원에서, 우체국에서, 상점에서 등의 상황을 설정하여 그 상황에서 진행된 대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가르치면서 마인드맵으로 단어를 학습시켜 주고 이미 배운 내용과 새로이 배울 내용을 연관시킴으로써 학습자의 어휘력을 신장시켜주는 것이다.

◆ 주제 관련 연상을 통한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

'계절'이라는 주제를 예로 들면, 이 주제에 관한 본문을 가르칠 때 만약 한국의 사계절을 소개하는 본문이라면 '계절'을 핵심어로 설정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가지로 한다(그림 10). 그 후 학습자들로 하여금 본문 내용과 본인의 개인 경험을 통하여 각 계절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단어로 부가지, 세부가지를 그림으로써 자기가 알고 있는 관련 단어를 상기하게 하는 것이다. 본문의 내용에 따라 '봄', '겨울' 등과 같은 어느 특정한 계절을 핵심어로 설정하고 마인드맵을 그려도 좋다. '집'을 주제로 설정하고 학습자에게 마인드맵을 그리라고 시키거나 학습자와 같이 그릴 수 있다(그림 11).

◆ 기능 관련 연상을 통한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

자기 소개하기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이 모두 예외 없이 배워야 할 내용이다. '자기

소개하기' 내용을 가르칠 때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상황에 따라 마인드맵핑을 하게 할 수 있다(그림 12). 이 방법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말할 때 내용이 보다 더 명확하고 질서 정연할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에 관련된 단어들의 어휘망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은 학습자가 자기소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학습자들이 자기 소개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 상황 관련 연상을 통한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

학습자들의 언어 응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교실에서나 교재를 통해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일어날 대화를 익히게 한다. 어휘 교육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자에게 이 상황과 관련된 모든 단어를 상기하게 하고 어휘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머릿속의 어휘망을 구축하게 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때 단어의 신속한 인출에도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라는 핵심어를 설정하고, 병원이라는 상황에서 사용될 모든 단어와 표현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이 그림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그림 13).

5. 마인드맵을 활용한 어휘 교수법의 실제적 응용

어휘 교수의 모형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본 연구자는 2005 년에 줄고에서 실(B.Seal)과 전해영 교수가 제시한 모형을 기초로 하여 '지식 전달 단계, 확인 연습 단계, 통합 활용 단계, 평가 단계'로 구성된 어휘 교수 모형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마인드맵 어휘 교수법이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5.1. 지식 전달 단계의 응용

지식 전달 단계는 단어의 어휘 정보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단계이다. 전통적인 어휘 교수법은 교과서에서 제시해 준 순서대로 단어의 모국어 대역을 제공해 주고 용법이 복잡한 단어에 대해 일정한 예문을 보여 주는 식으로 한다. 이 방법은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단계에서 이미 구안한 마인드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1) 새 단어에 대해 설명할 때 교사가 미리 준비된 <그림 7>과 같은 마인드맵을 학습자에게 보여 줄 수 있다. 학습자들은 단어의 풍부한 정보를 직관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접할 수 있어서 단어에 대한 기억과 의미 이해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 마인드맵으로 설명 대상 단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선행 지식으로 핵심어를 알아맞히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사 '타다'를 가르칠 때 이와 같은(그림 14) 마인드맵을 그려서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라는 것은 동사 '타다'를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좋을 것이다.

3) 주제, 기능, 상황 위주로 구성된 본문을 가르칠 때 <그림 10, 11, 12, 13>에서 제시한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새 단어를 설명해 줄 것을 제안하고 싶다.

4) 본문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본문 내용대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도록 하고 본문에 나온 새 단어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준다(그림 15). 이렇게 함으로써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심화할 수 있고 그 단원의 새 단어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다.

5.2. 확인 연습 단계의 응용

단어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 후에는 그 단어를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 연습 단계에서는 그 단어를 구성하는 어휘 정보 중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시킨다. 따라서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 통사적 특징과 관련어 정보 등에 대해서도 연습을 시켜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단어의 구조와 단어의 의미 관계를 기초로 한 마인드맵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7>에서 제시한 형용사 '가깝다'에 관한 마인드맵에서 일부 내용을 지우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미 배운 내용을 회상하고 써 넣으라는 연습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사를 설명할 때 동사, 동사와 공기할 수 있는 명사를 제시해 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마인드맵으로 그 공기 관계를 정리하게 하는 연습도 시도해 볼 만하다.(그림 17)

5.3 통합 활용 단계의 응용

이 단계에서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을 이용하여 언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한다. 이 단계는 4 장에서의 자유 연상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마인드맵을 교수 설계에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단원의 교수 내용에 따라 학습자에게 '아름다운 소녀, 나의 고향, 미용실에서, 백화점에서, 음식점에서' 등의 주제나 상황 등을 설정하여 이미 배운 그 내용에 관련된 단어를 회상하여 마인드맵핑 활동을 시도하게 한다(그림 18).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고 학습자들의 활발한 사고 활동을 유도한다.

5.4 평가 단계의 응용

평가는 교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교수 내용이 적절하고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이고 그 시간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진행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마인드맵을 이용한 어휘 교수 평가는 교사가 교실에서 실시하는 평가와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평가로 나눌 수 있다.

교실에서 어휘 학습 효과를 평가를 할 때 교사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해당 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에 학습자들의 회상과 방사성 사고를 하는 데 용이한 주제와 핵심어를 선택하여 학습자 개인이나 그룹을 단위로 하여 마인드맵을 그리게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습득 상황을 파악하고 차시별 교육에 참고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른 학습자들이 그린 마인드맵을 보고 자기가 그린 마인드맵을 보완하게 하는 활동, 그룹 단위로 마인드맵을 제출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단어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더 깊게 함으로써 어휘 학습 효과를 한층 더 높여 준다.

6.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마인드맵의 효용성

효과적인 교수법은 일반적으로 학습자 중심성, 활동 지향성, 개별성, 그리고 통합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마인드맵은 이상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어휘 교수법과 어휘 기억법에 비해 현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교사와 학습자의 측면에서 마인드맵의 효용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교사의 측면에서 볼 때, 어휘 교육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교사의 강의 준비에 도움이 된다. 마인드맵의 설계와 준비 과정을 통해 교사가 어휘 교육 내용에 대한 파악이 더 깊어지고 교수 설계가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더 효과적이다.

둘째, 교사가 교육용 마인드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발견을 통해 교육 내용을 계속 재구성, 재편집, 재정리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려진 마인드맵을 가지고 어휘 교육을 한다면 보다 더 빠르고 더 정교한 교육 내용을 학습자 앞에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도 자신감을 얻고 강의할 때도 보다 더 여유로울 수 있다.

셋째,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강의할 때 교사가 학습자 전체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그려진 마인드맵을 통하여 개별 학습자의 학습 내용에 대한 소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맞는 개별성 교육, 맞춤형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넷째,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강의하면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욕구를 자극하고 학습 동기를 기양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가 마인드맵핑을 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교류와 협력도 증진할 것이다.

학습자의 측면에서 볼 때, 마인드맵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학습자의 단어 기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마인드맵을 통하여 배운 단어를 선, 그림, 주제어 등과 연결시켜 머릿속에 그 단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단어의 장기 기억을 가능케 한다.

둘째, 마인드맵핑을 통해 기존의 교사에 의해 주도되는 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피동적으로 학습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마인드맵을 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새로 접한 지식과 이미 배운 지식을 서로 연결 지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신속한 이해와 파악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이미 배운 지식을 다시 귀납하고 정리하게 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

넷째,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어휘 학습을 할 때 학습자 개개인의 어휘 기억 상황, 지식 구조, 지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라 그들이 그린 마인드맵도 개인차가 현저할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 과정에서 주관적 능동성과 개인의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진정한 개성화 학습을 가능케 한다.

다섯째, 마인드맵 방법은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들 간의 대화와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여섯째, 마인드맵은 문자, 그림, 색깔, 선 등을 통하여 지식의 명시화, 시각화를 실현하고, 학습자들의 지식 구조를 체계화, 구조화, 전체화시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지식 체계를 구축해 준다.

일곱째, 마인드맵은 교사에게 있어서 한 가지 효과적인 어휘 교수 방법이고 학습자에게도 한 가지 어휘 학습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학습 전략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기계적인 암기에서 벗어나 어휘량을 계획성 있게 축적해 나가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받은 훈련은 그들의 학습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주 학습, 협력 학습, 창의적인 학습을 가능케 할 것이다.

7. 맺음말

이상은 본 연구자의 사고와 교육 실천을 통해 구안해낸 마인드맵을 활용한 어휘 교수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풍부한 교육적 기능을 겸비한 마인드맵을 한국어 어휘 교육에 적용할 경우 어휘 교수법과 학습법을 풍부케 할 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를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학습 효율을 제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 방법으로 어휘 교육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마인드맵은 영어 교육 연구 성과 중에 한 가지 교육 모형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마인드맵은 효과적인

교수 방법,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마인드맵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교사에게 지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마인드맵을 학습 방법으로 활용할 때 교사에게 더 높은 요구가 제기되어야 한다. 교사가 수업의 방향과 목적을 뚜렷이 알고 있어야 하고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열린 마음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마인드맵 작성 과정을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유도해 주어야 하고, 학습자에게 동기와 의욕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마인드맵에 대한 연구와 응용이 한국어 교육자와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설계한 마인드맵을 응용한 어휘 교수법은 실질적인 어휘 교육에도 적용해 볼 만하다. 하지만 본인의 개인적 사고와 참고 문헌의 부족으로 인해 이 논문에서 다룬 내용 중에는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견해에 불과한, 이론적인 허점이 여러 군데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제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인드맵은 어휘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교육에도 충분한 적용 가치가 있는 방법이다. 부디 이 미약한 연구가 한국어 교육에서 연구되고 적용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직은 일천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현수(2012), 마인드맵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초급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김보경(2014), 마인드맵 활용 전략이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남상은·권유진(2009), 마인드맵 학습 전략이 어휘 기억에 미치는 효과, 언어사실과 관점
2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41~66 쪽.
- 김희숙(2005), 마인드맵을 활용한 漢語 어휘 학습 지도방안-외래어 학습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은·김영주(2011), 한국어 어휘학습에서 기억 강화 전략이 어휘 기억에 미치는 영향, 국어국문
학 157, 국어국문학회, 5~35 쪽.
- 박수현(2010), 마인드맵을 활용한 중국어 어휘 지도 방안-形·音·義 접근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병미(2005), 경험 중심 마인드맵 학습프로그램이 어휘력 신장 및 언어 표현 능력 향상에 미치
는 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은경·송향근(2005), 유형별 어휘를 중심으로 한 어휘교재 개발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29, 이중
언어학회, 165~194 쪽.
- 신현숙(2011), 의미망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문학연구 5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449~479.
- 왕단(2002), 효과적인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교수법 개발 구상,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2 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왕단(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어휘 교육 내용의 선정과 제시를 중심으
로, 제 7 차 고려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국제고려학회.
- 우홍식(2004), 마인드맵을 통한 어휘력 향상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주(2007), 효율적인 중국어 어휘 지도방안 연구-마인드맵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 부잔 센터(2002), 반갑다 마인드맵, 사계절.
- 한재영 외(2010), 한국어 어휘 교육, 태학사.

- 方文娟(2014), 浅析运用思维导图辅助英语词汇教学, 海外英语, 2014 年 11 期 : 96
- 纪曼然(2010), 思维导图对于英语词汇教学的启发, 当代教育论坛, 2010 年第 1 期, 70~71
- 贾竑·隋晓冰(2014), 思维导图应用于我国外语教学研究综述分析, 外语教学与研究 298 期, 189~191
- 李满月(2011), 思维导图应用于汉语词汇教学, 辽宁大学硕士学位论文
- 李莹莹(2014), 思维导图在俄语词汇辨析教学中的应用研究, 辽宁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刘亚娟(2009), 关于思维导图促进英语词汇学习的探析, 长春师范学院学报(自然科学版), 第 28 卷第

1 期, 117~120

马梅(2015), 思维导图在英语词汇教学中的运用--以高中英语学困生教学为例,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束定芳·庄智象(2006), 现代外语教学: 理论、实践与方法, 上海外语教育出版社

裴光刚(2007), 思维导图与外语教学, 2007 年第 2 期(总第 117 期), 山东外语教学

托尼·巴赞(2000), 思维导图--反射性思维, 作家出版社

托尼·巴赞(2004), 开动大脑, 世界图书出版公司

王余蓝·陈琳(2011), 思维导图在外语教学中的应用探索, 2011 年 9 月第 8 卷第 2 期: 27~30

魏红霞(2010), 思维导图在英语单词教学中的应用研究, 河南大学硕士学位论文

杨光(2013), 在思维导图中词汇的呈现方式对记忆效果的影响, 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邹菁(2010), 运用思维导图 转变英语学习方式, 重庆科技学院学报(社科版), 2010 年第 8 期

Paivio. A Mental Represent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W.M.Rivers. Communicating Naturally in a Second Language: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Teaching[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28-31